

간·중국을 주제로/ 발행처·시남(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서로·방배길 756-7/ 전화·594-8038, 533-5497/ 발행인·이동화/
일·1994. 6. 10. 등록·1994.2.14일자(등록번호:바 - 2078). (통권29호)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중국을 주제로

1994.9/10

격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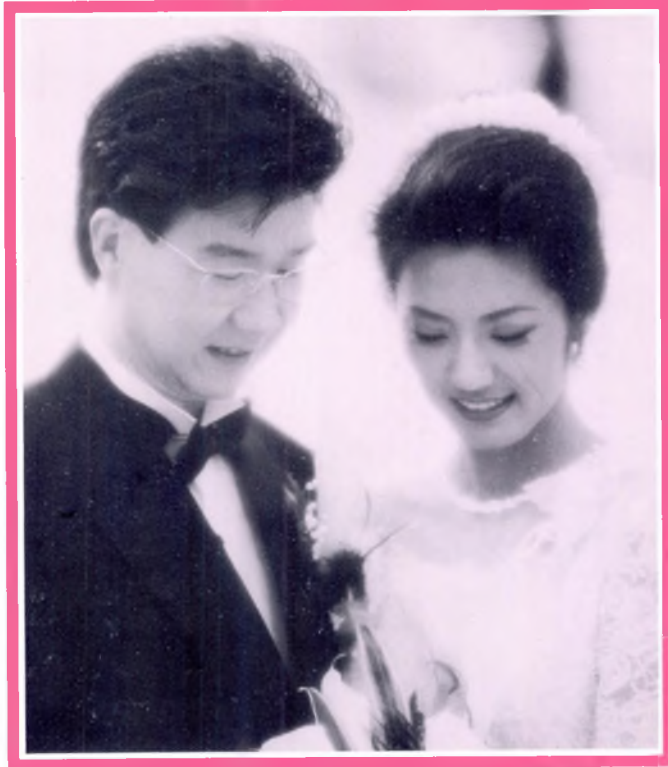


특집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
오늘의 중국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역자로서의 중국여성
중국교회와 중국여성

Wedding Photo

행복한 순간의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임백천 · 김연주 커플

사랑과 축복속에 이루어지는 결혼!
언제보아도 환한 웃음이
배어나오는 사진을...

**연출사진의 名家[®]**
동승스튜디오
PHOTO STUDIO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2-2(방송대학 앞)
대역부본점: 743-6266~8 FAX:743-6268
▲ 공동지점: 775-7767~8 FAX:754-9100

중국선교협의회



이동화

근래에 들어와서 중국선교계에서 '선교협의회' 구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바로 KNCC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선교협의회(가칭)」가 그것으로서 지난해 9월 동 단체와 중국기독교협회(CCC) 사이에 체결된 '한중교회 협정문' 못지 않은 반향을 교계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면서 아울러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다.

먼저 필자는 KNCC가 준비하고 있는 「중국선교협의회」가 운영 역할에 따라 그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차선'이라고 본다.

교세확장 선교, 물량주의 선교, 한건주의 선교, 과시 선교 등 현재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난맥상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중국선교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결국 한국교회의 경쟁적 난립이라는 구조적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의 개인적 시정 노력 외에 범교단적 선교협의회 구성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수적인데 그 실현 가능성면에서 현재로서는 KNCC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KNCC의 이러한 '적임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선교협의회」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단일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KNCC가 인정하는 중국기독교 삼자운동위원회 소속의 공인교회 이외에 비공인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0일자 '뉴스위크'지 기사에 의하면 공인교회 신도수가 1천백만 명인데 비하여 비공인교회의 신도수는 무려 3천만~6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KNCC의 「중국선교협의회」는 수천만 명의 비공인교회 교세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중국공인교회의 창구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의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 모두가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는 그 두 교회가 하나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일에 KNCC의 「중국선교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

중국을 주께로

1994년 9/10월호 차례



표지설명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느가족의 모습. 아이들의 옷차림과 함박웃는 여성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특집/중국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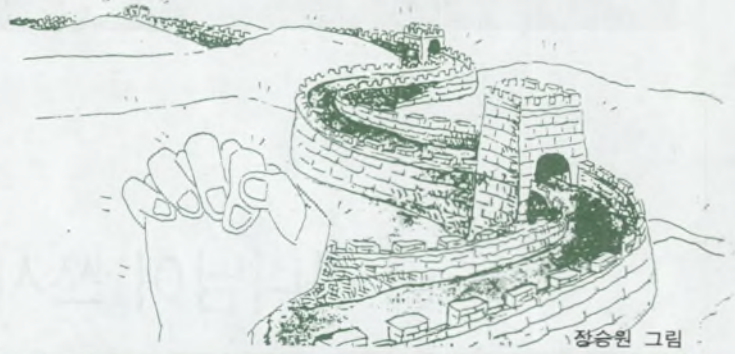
- 9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Wei Zhangling
- 18 오늘의 중국여성 무엇이 문제인가/권수영
- 26 사역자로서의 중국여성/Ye Xiao Lian
- 33 중국교회와 중국여성/석은혜

선교 전략

- 1 발행인 칼럼 중국선교협의회/이동화
- 4 선교일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김성복
- 44 목상의 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 45 선교현장을 가다 중국현지에서 본 중국선교 환경/박완신
- 49 중국종교의 현주소 중국대륙의 기독교 열기/畢明
- 55 문화충격 얼굴은 중국인, 마음은 미국인/노 알마
- 58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민요셉
- 63 세미나 자료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10가지 전문직 인력
- 97 중국선교의 발자취 小群會/방지일

선교정보

- 65 오늘의 중국 교육의 불모지에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趙軍
- 70 현지에서 온 소식 중국신학원은 지금!!/이반석
- 72 중국소수민족을 알자 중국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1) 동북지역
- 83 중국유학안내 중국 천진시의 주요대학/박명수
- 114 중국선교 참고도서 추구 외 2권/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116 중국은 지금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동향/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인물·간증

- 90 최근 중국교회 인물 연길교회의 유두봉 목사
- 91 중국기독교 인물소전 중국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Ⅰ) 위치만 니
- 99 중국선교사의 간증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허드슨 테일러
- 107 대륙성도의 간증 나의 사랑, 나의 조국(Ⅱ)/ 왕 에스더

선교마당

- 103 중국어 찬양 當聖靈在我的心
- 104 중국어 퍼즐 도전! 填字遊戲
- 105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일흔 일곱번
- 113 내가 사랑하는 선교도서 벵랑끝에 서는 용기/이혜돈

기도·선교단신

- 123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캠퍼서
- 126 선교단신

선교자료실

- 130 중국 기독교 양회·기독교 신학원 및 삼자교회 주소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김성복

들어가는 말

인간의 욕구 가운데 쓰임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된다. 더구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유의 주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의 삶은 매우 적극적이 될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당신께서 직접하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신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따르며 이루어가는 삶을 말한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론도 아니며, 감정 또한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과 그 길을 따라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기간 동안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이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되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 우리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때 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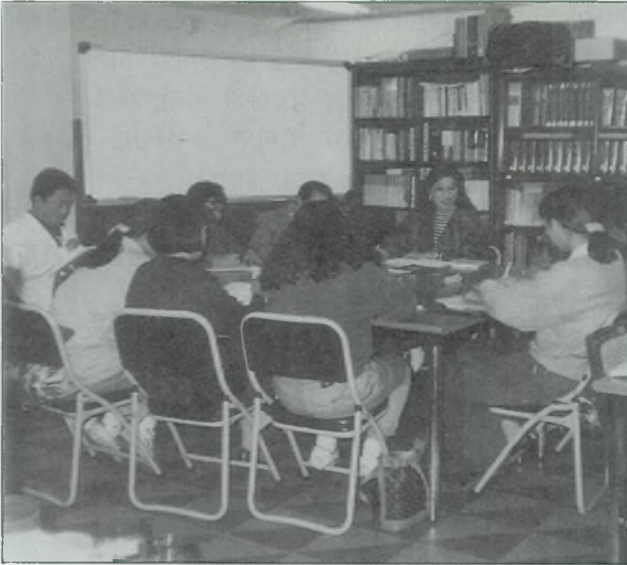
은혜 속에서 강하여진 사람을 쓰신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에 자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창 6:8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까닭에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깊이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라고 하였다.

은혜는 나누는 자만이 강하여 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쓰신다.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바울은 겸손한 주님의 종이였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 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발견할 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 아래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신다. 은혜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을 쓰신다.

훈련은 비자발적이나 훈련되어지면 지극히 자발적이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로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설교(Preaching), 제자양육(Teaching), 치유(Healing)였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신다. 종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하면 주님의 마음을 결코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일할 때 주인은 그를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말씀으로 훈련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Message), 영적 교제(Fellowship)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면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귄 속에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또한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 나 또는 가족 중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에 훌륭한 의사를 찾듯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다른 이들이 찾아온다.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일꾼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의 소문을 듣고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일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말씀을 먹으면 성령께서 불같이 일어나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랑을 체험해

야 한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룩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여 말씀 속에서 채울 때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양육할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깊은 영적 사랑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자.

이는 자기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생애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라는 뜻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일 즉 구원사역보다 앞서가는 일은 없다. 즉 구원의 긴박성을 알고 이를 위해 최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순종하여 감당하는 사람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하나님의 군사는 훈련되어야 한다. 훈련되어지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충성심으로 훈련되어야 한다. 목숨을 드려 충성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

용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가족, 건강, 꿈과 비전, 재산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에 민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학벌, 지연, 혈연에 의존하여 일하려고 한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체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정신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 영 주도적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영 주도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물리적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정신 주도적인 사람은 세상의 지식으로 일하려는 사람이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은 변화되기 이전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한답시고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사마리아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자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그 성에 불을 내려 살라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다 육체 주도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정신 주도적인 사람은 빌립같은 사람이었다.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 굶주려 있을 때 200테나리온이 있어야 그들을 먹일 수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계산적으로 나온 사람이다. 200테나리온이 있다고 한들 그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는가?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이요, 우리의 대적자는 영적 존재인 사탄이라는 사실

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영 주도적인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사역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결코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그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베드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고 외쳤다. 바울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고로 선교의 길을 바꾸었다. 빌립 집사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간다게의 내시에게 전도하였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인가? 영 주도적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이들과 함께 살아 계신다.◇

김성복/ 주사랑교회 목사

갈릴리세계선교회 팀사역 대표

1분목상

그리스도인의 희망

나의 하나님, 나에게서는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희망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곁손과 고통과 죽음으로 나를 모든 헛된 희망에서 구하셨습니다. 당신은 현세의 헛됨을 당신 자신 안에서 죽이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난하신데 왜 내가 부유하기를 원해야 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들어 높이고 참된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진 이들의 자손들이 당신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내가 그들의 눈에 유명하고 강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까?

나를 삼켜 버리는 희망, 즉 이 세상에서의 완전한 행복에 대한 희망은 좌절될 수 밖에 없는 절망일 뿐인데도, 왜 내가 그러한 희망을 가슴속에 품어야 합니까?

나의 희망은 사람의 눈이 한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보답을 신뢰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희망은 사람의 가슴이 느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내 가슴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희망은 사람의 손이 한번도 만져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손가락으로 짚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말게 하소서. 죽음이 손아귀를 느슨하게 하면 나의 헛된 희망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나의 신뢰를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에 두게 하소서. 나의 희망을 건강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인간적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두게 하소서.

내가 당신께 신뢰하면 모든 것이 내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나를 파괴할 것입니다.

토머스머튼



중국의 여성



인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여성.
그러나 인류 역사적으로 여성이 얼마나 정당한
평가와 대접을 받아왔는가를 들여다 본다면
절망 이외의 단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변하고 있다.
이념의 동과 서가, 빈부의 남과 북이,
그리고 상하의 남녀가 그러하다.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동반으로...

숫적으로 엄청난 중국 여성이 변하면,
중국 사회가 변하고, 중국의 교회가 변한다.
아울러 세계의 흐름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여성의 과거와 오늘,
중국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중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중국여성을 위한 선교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

by Wei Zhangling

현재 중국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관하여 대단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물론 그 변화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 바로 옛 것과 새 것이 교체되는 과도기라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중국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장구한 역사

일반적으로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중국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오랜 기간의 원시 사회를 거쳐 1500년 이상 고대 노예사회가 존재했고 그 이후 약 2300년 동안 봉건사회가, 1840~1949까지 약 100년 동안 반봉건 반식민사회가 지속되었고 마침내 1949년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의 개막을 알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었다.

엄청난 인구

중국 봉건사회에서의 인구발전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반봉건 반식민시대의 중국은 연평균 0.25%의 저조한 인구성장률을 나타냈는데, 그 시기의 특징은 높은 출산율, 높은 사망률 그리고 낮은 성장률 등이었다. 1949년에 국가의 총인구수는 5억 4천만에 도달했다. 1982년 7

월 1일까지의 본토 인구를 보자면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10억(1,008,175,288)에 이르렀고 세계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다.

대부분의 중국인구는 농부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시골 지역의 인구가 총인구 수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2천년 동안 중국의 농부들은 국가 정책과 경제에 결정적인 세력이 되어왔다. 그들은 정부라는 보트를 떠나려 보내기도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는 물결 같았다. 중국 역사상 옛 정권을 새 정권과 교체하는 세력은 주로 농민반란이었다.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주도된 혁명이 성공을 거둔 중요한 요인도 대다수 농민들의 강력하고 전적인 지지에 있었다.

단일화된 다민족 국가

이 나라는 대다수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총인구수의 6.7%를 차지하는 인구 6천7백만여 명의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1949년 전에는 이 소수민족들이 각기 다른 사회적·문화적 발전 속에 살고 있었으나, 1950년대 후기에 민주화 개혁과 더불어 각각 다른 발전 도상에 있는 민족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적용이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소수민족들

과거 2천년 이상을 중국의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부엌에서, 중국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생활을 했다. 전족(纏足)이라는 끔찍스런 봉건적 관습은 여성을 정신적 육체적인 불구로 만들었다.

은 사회주의에로의 도약을 금세 이룰 수 있었다. 지금은 모든 소수민족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책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집권주의 국가

중국의 관료제도는 대단히 강력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나타난다. 이 관료주의는 개체성보다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일관성있는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탱된다. 내용과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자와 손문(國父)과 모택동은 모두 집단주의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중국에 흠어져 있는 가정들과 중앙집중된 국가를 잘 조화시키는 일관성있는 철학이 되어 왔다.

우리가 중국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얘기하고자 할 때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사실을 염두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의 장구한 역사는 중국여인들에게 있어서 기나긴 억압의 역사이고, 중국의 대규모 인구는 여성에게만 지워진 힘겨운 일을 그리고 농경국가인 중국은 여성에게 더욱 심한 생활의 굴레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일화된 다민족의 모습은 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관료제도는 얼룩진 여성해방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2천년 이상을 중국의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부엌에서, 중국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생활을 했다. 전족(纏足)이라는 끔찍스런 봉건적 관습은 여성을 정신적 육체적인 불구로 만들었다.

1911년 마지막 황제의 통치하에 있었던 반봉건 반식민 사회시기에 1919년 5·4 운동과 같은 혁명적인 젊은이들과 학생들의 운동들이 있었다.

그 운동들은 여성해방의 문화적 지침이 되었다. 여성해방의 한 진전으로서 전족이 도시에서 시작하여 시골지역에까지 점차로 폐지되었다.

종교, 사회적 문화적 기준과 가치관

1949년 이전 고대 중국의 긴 역사 속에는 유교, 불교, 도교라는 세 가지 주요한 종교가 있었다. 이 종교들은 중국의 철학, 경제, 윤리, 문학, 예술, 관습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전족을 한 여인. 발이 불과 10cm정도가 된다.

유교

유교가 중국에서 성차별의 본질적이고 이론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여자를 하등한 피조물로 간주한다. 유교의 영향력은 고대 중국에서 대단한 것이어서 관리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공자의 초상을 집 벽에 붙여놓곤 했다. 그들은 그를 우상화하고 그의 학설을 행동윤리로 받아들였다.

불교

중국에는 몇 개의 다른 불교의 가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우세한 대승불교 그리고 다이(倣;Dai) 소수민족 지역에 널리 보급된 소승불교, 티벳과 내몽고의 라마교가 그것이다. 불교는 강력한 유교 윤리의 영향을 받아 여성에게는 정신적인 굴레로서 작용했다.

도교

고대 중국의 많은 미신적인 영향과 비밀 단체들은 주로 도교에서 발생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마법과 강신술들도 도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유교의 윤리와 더불어 도교는 중국에서 여성해방 운동에 강한 저항력을 형성했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중국의 주요 종교와 별도로 이슬람과 기독교 역시 중국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한족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에 말했듯이 중국에는 총 56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통일된 한족 문화가 중국전역을 지배해 왔다. 심지어 한족이 타민족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성질을 지닌 문화를 흡수하는 한문화의 힘은 어떤 면에서는 그 문화의 탄력성을, 어떤 면에서는 완

고함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한문화의 도가니 속에서도 몇몇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유지했었다.

고대 중국에서 효(孝)와 충(忠)은 각각 가정과 국가를 다스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효는 가정 내의 집단주의를 강화시켰고, 충은 국가 내의 집단주의를 강화시켰다. 복종과 충성의 원리는 가정, 국가 모두에게 유용한 것이었다.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라는 것은 봉건시대와 반봉건 반식민 시대에 2천년 이상 중국을 지배한 유교의 금언이다. 고대 지도자들은 가족의 유대를 든든히하고 중앙집권화된 관료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과거제도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중국 귀족 계급은 지주들과 학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출세한 가문은 기술적, 재정적 지식을 얻는 데 관심을 두는 대신 그들의 자녀가 유교 경전을 외우도록 격려했다. 유교의 윤리에 의하면 남성은 하늘이요, 여성은 땅이다. 그래서 가문은 그들의 아들로 하여금 관료가 되는 데 희망을 걸었다.

가정과 법제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고대 봉건 가부장 제도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폐쇄적인 경제생활을 조장했다. 이러한 경제는 폐쇄된 내륙적 환경 속에 고립된 생활양식을 갖도록 했다. 이것은 고대 문화의 폐쇄적인 제도를 유지하고 다른 문화와 현대식 과학과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었다.

둘째, 비교적 넉넉한 가문 속에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여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화려한 이상들을 불러일으켰다. 불행히도 실상은 그 이상과 거리가 멀어 그 이상을 더욱 화려하게

**어느 사회에서건 여성해방의 정도는 그 사회의
현대화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만일 여성에 대한 봉건적 굴레가 깨어 질 수 없다면
현대화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다.**

만들었다. 이 가족제도는 여성의 희생을 제물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

어느 사회에서건 여성해방의 정도는 그 사회의 현대화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만일 여성에 대한 봉건적 굴레가 깨어질 수 없다면 현대화란 거의 현실화되지 못한다.

셋째, 상업을 경시하고 관료주의를 중시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경제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경제적 발전은 현대화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다. 그것은 기타 다른 목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대 중국의 가족제도는 분명히 현대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또 개인에 있어서는 폐쇄적인 특이한 정신구조를 낳았다. 그것은 사람들을 가정의 이익에 대해서만 과도한 관심을 쏟고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정신 구조는 고대 중국의 장기 쇠국정책을 강화시켰고 현대화를 막는 구실을 했다.

넷째, 가족 구성원에게 가문 규율을 고수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종류의 생활 양식은 고대 중국의 농부들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인 타성과 보수주의를 가져왔다. '너의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으리라.' 이런 종류의 가정규율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욕적인 생각들을 억압했고 관료들로 하여금 현대화 과정을 주저하도록 만들었다.

다섯째, 구성원의 개성을 제한시켰다. 효성은 젊은이에게 엄격한 요구 조건들을 내세웠고 집안의 웃어른에게, 나라의 관료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요구했다. 수세기 동안 그것은 봉건관료제도의 길을 닦아주었고 한 관료의 업적평가에 기준이 되었다. 특별히 그것은 젊은이들의 주도권을 억압했고 그들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정략결혼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비극을 초래했다. 이것 역시 효(孝)라는 간판 아래 행해졌다. 이렇듯 제한적인 가치관은 현대화의 진전을 막았다.

여섯째, 부패한 관습과 정치 현대화에 부적당한 가부장적 행동양식과 친족동용주의를 낳았다. 가부장적 행동양식은 한 사람에게만 주도권을 쥐게 한다. 법이든 여론이든 그의 앞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지나치게 소심하게 만들고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만 행하게 했다. 친족동용주의는 사람들이 각각의 파벌을 형성하여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일곱째, 젊은이들로 하여금 의존적 태도를 갖도록 조장하고 그들의 자연스런 사회화를 방해했다. 봉건적 가족제도는 중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보통 그들의 가문이나 주로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한 개인의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 그것은 젊은이의 복종을 요구했고 주관적인 주도권과 양심적인 행동에 제약을 가했다.

여덟째, 중국인들의 예절과 걸치레, 허세를 중시하는 형식주의를 낳았다. 결혼식이건 장례식이건 그것은 가족의 위신을 세우는 행사였다. 사실 그런 행동은 집단적 가족주의의 한 면모를 반영하는데 외부인들에게 그 가정의 권력과 재산

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가정들도 관료들이나 귀족들의 호의와 자비를 얻기 위해 한 톨을 쓰거나 선물을 보내야 했다. 이런 허세와 낭비의 일반적 분위기는 자본축적과 투자에 해를 끼쳤고 사회전통을 바꾸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아홉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법적 제도를 무시했다. 종종 중국인들은 가정교육을 국의 법률보다 더욱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가정규율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이익을 나누어왔기 때문이다. 유교에는 법제도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원리가 더 많다. 고대 중국에서는 사적인 재판이나 불법적인 체벌이 아주 흔한 일이었고 가부장적 제도는 그것을 좋아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봉건적 관료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기까지 중국의 현대화를 방해했다.

여성 지위의 변화

1949년 이후 중국사회와 가정에서는 여성의 지위 변화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긍정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혼인법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의 권리에 법적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전중국여성연합은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강력한 조직체이다. 그 지방분원은 전사회적으로 각각 다른 환경하에 알맞게 설립되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조직적 보장체를 제공했다.

소년, 소녀간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정부에 의해 강조되었고 반문맹 캠페인은

전국에 걸쳐 중국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대다수 여성이 경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말할 수 있는 더 큰 권리를 획득하게 했다.

국가의 인구정책이 여성해방운동을 격려했고 남녀평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2천년 이상 지속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고대 봉건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정신 속에 남아 있다. 특히 낮은 생활 수준이 집안일을 여성이 전담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남겨 놓았다.

대다수 중국인은 농민이기에 전통적 생각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불편한 교통과 의사소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단순히 남성을 위한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림은 司馬相如의 술집(179~118 B.C)

1949년 이후 더욱 많은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많은 주부들이 직장을 갖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넘치고 독립적이 되었다.

통 수단의 부재는 외곽지역에서 성차별 문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고대 봉건전통에서 비롯된 중국의 관료주의는 여성경시 풍조를 낳았고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1949년 이래로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재산 유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아들만이 유산상속 권리가 있었다.

가족부양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변화되었다. 과거 중국의 여성들은 남성의존적이었다. 1949년 이후 더욱 많은 여성이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많은 주부들이 직장을 갖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 넘치고 독립적이 되었다. 여성은 남성과 별도로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가정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집안일에서 있어서의 성(性)구분에 대한 가치관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가사일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가족을 섬기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성들의 전문적인 책임이었다. 1949년 이후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집안 일은 남녀가 공유해야만 하게 되었다. 많은 유아원과 탁아소가 여성의 짐을 덜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시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경향이 있다. 집안일을 부분적으로 사회가 떠맡음으로써 여성은 더욱 가정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기혼여성의 성(姓)의 변화가 남녀평등에 강한 변화의 인상을 주었다. 과거의 여성들은 처녀적 이름을 결혼 후에 포기하고 남편의 성을 따라야 했다. 해방 이후 여성은 그들 자신의 이름을 고수하고 남편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간에 교육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들의 마음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갈 기회가 거의 없었다. 1949년 이후 도시부모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딸을 학교에 보냈고 비슷한 예들이 시골에서도 점차 일어나고 있다.

일부일처주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과거에 일부다처주의는 특히 부유한 집안에서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일부일처주의가 혼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일부다처주의는 금지되었다.

도시에서 정략결혼이 자유연애결혼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을 늦게하는 유행이 생겼는데 이것 역시 전통에 도전하는 일이다.

핵가족화의 일반적이 경향이 있다. 아이양육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현저히 변화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가족과 사내아이를 좋아했으나 지금은 인구교육을 통해 정부가 강력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교윤리에 의해 요구되어 온 여성의 순결과 처녀성에 대한 가치개념이 변화되었다. 1949년 이후 정부는 여성들이 그들을 얽매는 정신적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호소했다. 이것은 강한 반발과 더불어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간음을 저지른 어떤 여인에 대해서도 심한 재제가 가



1949년 이후 혼인법의 제정으로 여성의 불공평한 사회적 지위는 혁명적으로 개선되었다. 사진은 어느 농촌의 할머니와 손녀

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외곽지역에는 아직도 그러한 관습이 남아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도 어느 정도 변화됐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편만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지금은 이혼소송이 아내에 의해 청구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위에 언급한 변화는 1949년 이래 사회개혁과 발맞추어 일어났다. 1950년 5월1일 정부는 첫 번째로 혼인법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은 일부다처주의를 폐지하고 어린이 결혼, 정략결혼, 매매결혼 등의 금지이다. 1980년 9월 10일 정부는 두 번째 혼인법을 개정했는데 혼인 가능 연령을 여성인 경우 최소 18세에서 20세로, 남성의 경우 20세에서 22세로 높였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키고 남편과 아내가 가족계획을 수립해 행해야 할 의무조항도 명문화하고 있

다. 아이양육에 대한 개념의 변화도 사회개혁과 정부의 인구정책에 나타나 있다.

1949년 이후 가정, 결혼, 인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49~1963 : 무간섭주의의 시기

전통 윤리를 깨뜨리고 경제 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히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옹호하여 부부들이 많은 아이들을 갖도록 고무했다. 그리하여 높은 혼인율과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동시에 사망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자연적으로 인구성장률이 급속히 증가했다(1958~1960년 사이만 제외됨).

1964~1977 : 가족계획 강조의 시기

정부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하고 출산율을 조절하도록 권장했다.

1978~현재 : 강력한 가족계획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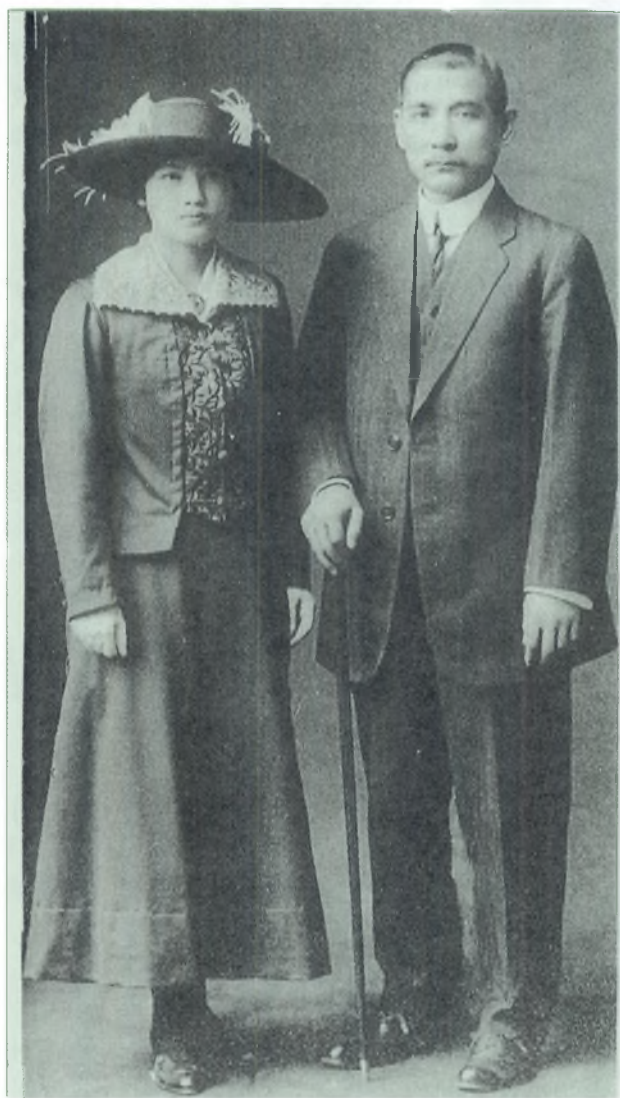
정부정책은 처음에는 한 가정당 한 자녀만 갖도록 권장했으나 현재는 의무조항으로 요구된다.

여성해방운동과 여성단체들

최초의 중국 여성해방운동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농민 반란인 「태평천국의 난」 동안에 일어났다. 홍수전(洪秀全)은 남성과 여성은 한 형제요 자매라 생각하고 성차별을 대항해 싸웠다. 그는 다음과 같은 업적을 이루었다.

여성군대와 캠프를 설립하여 여성관리를 임명하고 여성이 집 밖에 나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강간을 금하고 매춘을 폐지하며 일부 일처주의를 주장했다. 매매결혼을 폐지하고 결혼식을 간소화시켰다.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이



중국의 최초 부르조아 민주개혁을 일으킨 손문과 그의 부인 송경령이 일본 동경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찍은 사진 (1915년 10월 25일)

토지를 분배했다.

이러한 정책은 기독교의 초기교리에서 평등의 개념을 따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반란군 지도자들은 봉건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일에 지쳤는지 어떤 면에서는 유

토피아적이거나 후퇴하는 경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남녀사이에 접촉을 금하고 금욕주의를 옹호하며 여성들에게 유교의 세 가지 복종윤리와 네 가지 여성의 덕목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더구나 일부일처제는 낮은 관리에게나 평민들에게만 가능했고 홍수전과 고위관리 자신들은 많은 첩을 두고 있었다.

양계초(梁啓超)가 이끈 1898년의 개혁운동은 자유부르조아 계급들과 계몽된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성해방운동에 착수했다. 그 표시로서 전족(纏足)이 그 개혁자들에 의해 폐지되었으나 광범위한 지지는 얻지 못했다.

강유위(康有爲)가 쓴 『위대한 조화』라는 유명한 책 속에서 그는 완전한 사회와 한 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는 여성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여성해방운동의 일부로서 가문과 결혼계약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양계초(梁啓超)는 1897년 4월에 여성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898년 6월 상해의 민족자본주의자들에 의해 최초의 여성학교가 건립된다. 이에 이어 여성연합과 여성신문이 상해에 설립되어 여성들의 권리와 해방을 강력히 주장했다.

개혁주의자들은 여성해방운동을 국가구원과 연관지어 생각한 애국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감히 봉건 규율의 기반을 건드릴 수는 없었다. 그 결과 여성해방운동은 개혁운동 중 미성숙한 실패작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1911년 손문 박사에 의해 주도된 중국 부르조아 민주개혁운동은 청나라를 전복시킨다. 그들은 여성신문을 여론에 영향을 주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새 문화운동의 가장 우수한 선두주자인 노신은 여성을 하등한 피조물로 취급하는 전통의 악습을 정죄하고 여성해방을 옹호하는 수많은 글을 썼다. 그의 글들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다.

여성해방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과 행동 방침을 제안했다. 많은 혁명적 순교자들과 투사들 중 추근(秋謹), 송경령(宋慶齡), 하향령(何鄉寧)과 다른 많은 여성들이 무장봉기에 참여하여 청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1904년 일본의 도쿄에선 중국 학생 등에 의해 'Society for Sharing Love'라는 단체가 생겨났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여성 단체였다. 1911년 11월에는 영국·중국·소련의 연합으로 한 단체가 발족되었는데, 이 단체는 상해에서 정치활동과 정부 기관에서의 여성 참여를 위해 손문 선생에 의해 후원받고 있었다. 비록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성쪽에서 열렬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여성학교들이 점차 더욱 많이 설립되고 1911년부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당국이 남녀공학을 허가해주었다. 1911년 혁명은 부르조아 민주혁명의 분리될 수 있는 구성요소를 지녔기에 현대적 의미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의 주장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중국 여성의 투쟁의 의지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

1919년 5·4운동은 10월 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상의 기본으로 한 지식인들의 주도하에 일어난 반제국, 반봉건 정치문화 운동이었다. 그것은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새 시대

를 예고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과학이라는 깃발 아래 '유교와 함께 사라져라'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새 문화운동의 가장 우수한 선두주자인 노신은 여성을 하등한 피조물로 취급하는 전통의 악습을 정죄하고 여성해방을 옹호하는 수많은 글을 썼다. 그의 글들은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다.

5·4운동기간 내에 여성운동에 관한 이론적 토론들이 도시 지식인들 사이에 일어났다. 그들은 서방제국의 인권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새 문화 운동은 여성의 해방운동을 진전시켰고 여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대항해 싸우도록 격려했다. 동시에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912~1927년 사이에 북부 독군(督軍) 정부에 대항한 투쟁(北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함께 어깨를 같이하여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남녀사이의 사회활동에서의 개방된 접촉에 대한 이해와 남녀의 동등한 기회보장, 젊은이들의 독립적인 인격, 자유연애와 결혼을 호소했다. 극심한 투쟁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젊은 피를 흘렸으며 대중의 깊은 공감과 강한 지지를 얻어냈다. ◇

『In God's Image』 중에서

번역/ 김근아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오늘의 중국여성 무엇이 문제인가?

권수영

중국 역사상 여성들에 대한 종속과 압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반(半)봉건, 반(半)식민지의 고대 중국이 막을 내리게 되는 1911년 5·4 혁명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도들은 매우 적었을 뿐 아니라 비효과적이었다. 여성들의 대부분이 문맹이었으며 가난한 시골여인이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것은 1949년 이전까지 중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여성은 남성의 상대자로서 일생 동안 세 개의 큰 산에 의해 억눌림을 당하여 왔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 의해 착취받았다. 그러나 중국 여성들에 대한 억누름은 단지 이뿐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봉건제의 결과로 생긴 가부장제(家長制)와 종교적인 요소들에 의한 결과이다.

“여성은 학문과 재능이 없는 편이 오히려 좋다.” -중국속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별 가치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들은 보배 하나를 얻은 것처럼 축하하는 반면 여자아이는 한낱 벽돌 한 조각처럼 아무 이득도 못되는 존재, 심지어는 가정의 커다란 짐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의 선조들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이 글은 아시아 여성문화 신학자료센터(원장: 이선혜 목사)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in God's Image』 1994년 봄호에 특집으로 실린 <Women in China>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전통적 중국사회에서 억압의 삶을 살아온 중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급속하게 부상하였으나,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또 다른 차원의 노동력, 성적착취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개방 이후 중국여성들의 변화된 가치관과 자본주의에 적응해가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각종 자료를 참고로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이 그들의 상대인 남성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참가할 권리를 부정하면서 여성의 역할을 그들의 아버지, 남편, 아들에 부속되는 정도로 제한하였다. 구중국의 가정은 가부장제(家長制) 가정이다. 가장은 일반적으로 부친이나 조부 및 기타 손위의 父兄輩가 책임을 맡는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직업이 없었으므로 가정의 피부양자로서 어떤 권리도 없었다.

중국에 널리 퍼져 있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과 “여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고수하게 만들었다. 남성은 사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성은 가정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내는 사회적 지위에서 그들의 남편을 능가할 수 없다.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친다.”

사회에 대한 여성의 공헌을 중국 정부가 인식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뚜렷해졌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모택동은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떠받칠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한 나라의 여성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 전까지는 혁명은 승리한 것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로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원칙하에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도화, 공식화 되었다.

1950년의 결혼법 제정이 정부의 법 조항의 첫 번째 부분이었다. 이 법제에 의하여 여성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혼도 법제화되었

다. 여자 유아 살해가 금지되었고 일부다처제가 불법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여성이 그들의 상대인 남성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그 상황은 여성의 권리와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직장, 동등한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으로 하여금 교육과 승진을 향한 기회적근을 촉진시키고 있다.

여성해방운동 이전에 여성의 문맹률은 90%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40년 간 문맹을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캠페인으로 총 1억 1천만 명의 여성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중의 일부는 나중에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까지 되었다.

도시에서 여성 노동력은 총 노동력의 40%를 차지한다. 교사, 의료진, 타일공 같은 직업에서는 여성이 반수 이상이고 대, 중 도시에서의 여성고용률은 약 80~90%이다. 1990년에 여성 근로자는 5,100만 명까지 이르렀고 전체 고용인원의 37.6%를 차지하였다. 농촌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는 그들의 전통적 역할을 계속하면서 남편을 돕고 자녀를 교육하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전문직 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은 더이상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교육의 기회와 사회의 생산에의 참여는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전을 넓히고 재능을 개발하고 더욱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볼 수 있다. 전국에서 현급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간부는 이미 7만여 명에 달한다. 전여성간부의 행렬은 이미

시장개혁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일깨우는 결과를 낳았다.

1951년의 360만 명에서 현재 농촌의 중소 도시와 마을에서 1,000여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개혁과 시장경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을 개발할 큰 기반과 남성과 경쟁할 비교적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1989년 말에 자기 고용(Self-employments)에 들어간 여성이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여성 기업가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과 같이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중국의 여성 해방 운동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업적은 주로 여성의 넓은 고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고용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상대자인 남성과의 동등한 사회적, 가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초를 놓았다.

시장개혁 -불완전한 해방

중국여성들의 위상이 1949년부터 현저하게 부상되고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문제와 이슈들이 존재한다. 지난 15년 동안의 시장개혁으로 인해 여성들의 위상은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들은 개방 이후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중국 가부장 사회구조의 존속에 의해 변질되었다고 한다.

시장개혁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일깨우는 결과를 낳았다. 농촌의 남자들이 모두 도시나 해외로 나가면서 77% 이상의 여성들이 농지에 남아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게 되었고 이들은 식구의 가장이 되었다. 이

들은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위해서도 일한다. 부업에 종사하는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집안일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시골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병원, 보건소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인스턴트 음식, 기성복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와는 달리 대부분의 농촌지역에는 그러한 서비스업을 이용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외에도 개방정책과 근대화 아래 발생하는 여성 문제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여성 지도자 양성에 투자하는 데에 대한 공동체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 있다는 전통적인 개념과 여성은 쉽게 가정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실제적 고려에 의해 영향 받은 결과이다. 특히 멀리 외딴 지역에서는 여학생이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형태가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촌여성이나 소수민족 여성들은 ‘족외혼(다른 씨족의 남성과 결혼하는 풍습)’의 사회적 관습에 얽매어 왔는데 이것은 한 마을에서 여성 지도자가 양육되는 것을 방해한 주요원인이다.

농촌에서 아버지들은 자기 딸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문맹인 중 70%가 여성이다. 고학력 인구로 갈수록 그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다. 중등 상급학교나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자 지원자는 필



중국의 개방정책과 근대화는 여성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진은 어느 농촌의 길가에서 벌어지는 패션 쇼 광경

요한 입학 성적보다 10점에서 20점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 학, 석사의 학위를 갖고 있는 여자 졸업생이 성차별 때문에 적절한 학교에 들어갈 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여성들은 최근 몇 년 간의 경제적 재적용에 의해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병합될 때 남성들보다 더 쉽게 사직을 권고당한다. 책임생산제의 농촌에서 여성은 생산과 가사일로 두 배의 부담을 안게 된다.

물질만능주의하의 중국여성

중국의 개방 정책과 근대화에 대한 욕망은 번영을 가져오는 반면, 늘어나는 여성 착취에 대한 구실이 되었다. 여성이 성적 상품(Sexual commodities)으로 취급되는 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젊은 여성의 납치와 인신매매, 매춘산업의 증가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여성들은 값싼 노동력에 불과하

며 신체적, 생물학적 제한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구의 반 이상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다. 특히 한 아이 낳기 정책의 수행에 있어 농촌은 비교적 성공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의 배경이 있다. 아들을 갖기 위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를 버리는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1978~1979년 동안 195 명의 여자아이가 안휘성 동부에 있는 한 강물에 빠뜨려져 죽었으며, 1982년에도 광둥의 산두 부근에서 130구의 여아 시체가 발견된 적이 있다. 중국의 한 지역에서는 아들을 원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고아원이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

서로 다른 직업들, 사회적 수준의 차이, 지역적 차이로 인해 여성의 자기발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여성

**여성들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생 만족도는
남성과의
동등에서 찾기
보다는 물질적인
안락과
편안함에서
찾으려는 것이
지배적이다.**

들이 문화적 위치, 교육적 수준, 사회적 참여, 그리고 자아 인식에서 남성과 동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적 발전은 여성들의 독립심을 낳았지만 그와 동시에 물질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사상을 고양시켰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은 돈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과, 적은 수입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비싼 물건을 사다줄 수 없는 남편들은 큰 곤경에 처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여성들은 인간적인 삶과 평등한 삶을 쟁취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로부터의 자유는 필수적이지만 압박과 성차별을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백 년 동안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의 가치관을 잠식해 왔기 때문이다. 여성들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생만족도는 남성과의 동등에서 찾기 보다는 물질적인 안락과 편안함에서 찾으려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에도 여성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며 부자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쉽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은 값싼 노동력과 섹스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넓고 압박적인 관행들, 즉 여아 살해, 정략 결혼, 농촌에서 신부를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시골여인들의 매춘행위와 인신매매 등의 추악한 범죄들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성 가치관

구 혼 광고

북경 시민들이 가장 즐겨 보는 『北京晚報』에는 가끔 구혼광고가 실린다.

<구혼> 여·32세·미혼·신장 169센티미터·언행단정·고졸·집 있음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40세 이하, 키 175센티미터 이상의 신체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남성을 구함.

이런 구혼광고는 신문뿐만이 아니라 잡지와 텔레비전에도 실리고 있다. 이전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던 "오늘 저녁 우리 만나요!(今天我們相識)"라는 TV 프로그램은 구혼광고를 포함한 연애, 가정, 결혼, 가정생활을 위한 인기 프로그램으로 미혼 남녀들이 각자 자신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방송사에 보내 방영, 구혼하는 방식은 별로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결혼방식은 연애와 중매결혼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이 되거나 그에 상당한 나이가 되면 이성친구를 찾는다. 남녀간에 특별히 가까워지면 거의 결혼을 전제로 한 단계로 들어간다.

『중국의 비밀, 중앙일보사』 중에서

사회가 남녀의 결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혁·개방한 뒤로는 사회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남녀간의 접촉과 왕래의 기회가 많아지고 자유롭게 사귀는 기회 역시 증가하였다. 사회적으로도 각종 형식의 결혼 소개소가 생겨났으며 방송이나 신문, 출판사 등을 통해 구혼하는 방식도 날로 가능하고 유효한 배우자 선택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편차적 조건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경제, 문화지식, 직업, 체격, 용모, 취미 등 조건을 고려하는데 그것은

결혼한 후 쌍방이 공통의 언어, 이상, 취미, 정서가 있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중국인의 배우자 선택기준은 사회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건국 40여 년간의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은 몇 개의 단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년대에는 노동자 출신, 70년대에는 지식인 청년, 80년대에는 졸업장을 중시하고 90년대에 와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소수의 경우이지만 이것은 여성들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사상의 속박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점점 애정을 중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여 경제적 조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 개혁의 추진으로 인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신분상의 차이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배우자 선택기준도 인위적인 장애와 신분 및 이러저러한 차이들을 간파하고 있다.



90년 대 중국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우선 경제적 조건에 대한 요구가 중시되고 있다. 요즘 중국의 결혼식 장면. 중국여성들의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호화로운 결혼식

사람들의 경제적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비용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결혼용품의 고급화 추세도 날로 더해갔다. 여전히 남자쪽의 결혼비용 지출이 컸으므로 결혼은 종종 남자쪽 부모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혼비용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소비관념이 바뀌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나 동시에 사람들이 결혼을 인생의 대사이자 경사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나친 결혼소비는 과거 사회풍습의 반영으로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관념에서 벗어나기에 어려움을 보여준다.

자본주의의 독버섯 -인신매매와 매춘

인신매매와 매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폭력단이 부너지나 어린이를 유괴하여 팔아넘기는 범죄행위가 개혁개방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조직적인 “人販子”(인신매매업자)에 의해 사천, 귀주, 운남, 섬서 등의 가난한 농촌 아가씨가 화북 화남지역의 농민들에게 1인당 2천~4천 元에 팔리는 예도 있다.

최근 뉴스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개방정책과 근대화로의 질주는 특히 경제특구지역에 놀랄 만한 변형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몰려드는 가난한 여성들의 계발에도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했다. 방콕의 한 신문에 따르면 14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중국 소녀들(어린이를 포함하는)이 운남 지역으로부터 태국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섹스산업의 노리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여성들의 대부분은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주겠다는 피임에 넘어가 매춘굴로 팔리운다. 이 곳에서 그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만 한다. 광둥

여전히 봉건적인 전통이 뿌리깊은 지역들에서는 변화를 거부했고 1979년에 시작된 한 가구 한 자녀 낳기 정책은 옛 편견(남아선호사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과 복건 지역의 여성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마카오의 사창가와 유흥가로 팔려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홍콩과 대만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호남, 강서 등 농촌으로 팔려 결혼하게 되는 유괴도 빈번히 일어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노예로 팔리기 위해 유괴된 여성 1,000명이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버려지는 딸들 - 여자유아 낙태의 실상
고대 중국의 가족관계에서부터 뿌리깊게 내려온 전통인 남아선호 사상은 여성 해방을 가져온 이후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자리잡아왔다. 불과 수십년 전만해도 여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곤 하는 것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가난한 농촌에서 딸이란 단지 먹일 입이 하나 느는 것이며, 결혼해서는 막대한 지참금을 챙겨서 궁극적으로는 남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떠날 잠시 동안의 구성원일 따름이었다. 이런 경제적인 필연으로 농촌에서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공공연히 허용되어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이들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들에게 공장과 인민공사에서 일하도록 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변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여자는 적극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봉건적인 전통이 뿌리깊은 지역들에서는 변화를 거부했고 1979년에 시작된 한 가구 한 자녀 낳기 정책은 옛 편견(남아선호사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농촌지역과 그 외의 지역들에서는 두 번째 임신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것(이런 아이들을 “黑孩子”라 한다)이 다반사다.

현대적인 변형으로서 초음파검사로 아들이지 딸인지를 식별한 후에 딸이면 낙태하는 일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정부는 “당신의 딸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캠페인을 벌여 여자아이를 살리려는 일련의 노력을 나타내기까지 한다.

초음파를 이용,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과급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성비율은 여아 100명당 남아 118.5명 꼴에 이르고 있다. 이 통계는 92년 9월, 3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당국이 조사한 임시적인 통계에 불과하지만 당국의 조사발표가 언제나 축소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5 내지 106명 정도인 것에 비하면 중국의 비율은 세계 기준에서 약 13포인트 높은 것이므로 여아가 낙태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11억 7천만의 중국에서 매년 170만 명 이상의 여자아이가 낙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30개 성 중 5성에서는 이미 성비가 100:120을 넘어섰다. 이것은 초음파 스캐너의 광범위한 보급률과 비례하는 현상이다.

여자아이의 낙태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호적에도 올려지지 않는 여자아이들,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리는 아이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인구통계상 여아의 성비를 낮아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초음파 검사가 여성의 수



를 적어지게 만드는 주원인이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농촌의 병원에는 초음파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초음파 기계의 보급의 확산 배후에는 부분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경제의 영향력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들은 은밀히 시술을 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영병원들도 같은 필요에 의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공보에 따르면 92년 절강성의 우하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74건의 낙태 중 68건이 여아를 낙태한 것이라 한다.

정부당국은 불균형으로 기우는 성비에 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찍이 한 관리는 “현재 나이 어린 남자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여자를 찾지 못하여 일어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성별 감식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통제가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심을 나타낸다. 농촌, 도시를 막론하고 도처에 돈만 주면 아이의 성별을 말해 줄 수 있는 의사들이 깔려 있을 정도로 초음파 감식기는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참고문헌

<Women in China> Tan Li-Ying 『in God's Image』 Vol.13, No 1, 1994(Spring)

<Women in Rural China> Theresa C. Carino 『in God's Image』 Vol.13, No 1, 1994(Spring)

<Condolence, It's a Girl> Sandra Burton in God's Image』 Vol.13, No 1, 1994(Spring)

<A Lost Generation: China Weeds Out Baby Girls> 『in God's Image』 Vol.13, No 1, 1994(Spring)

<中國女性の 政治·社會參與 研究> 趙壽星 『중국연구』 14호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93

<當代中國婚姻家庭狀況概述> 陶春方 『韓·中 女性の 地位』 제1차 동북아여성학술대회 자료집, 1993

<當代中國婦女的 教育與中國的 現代化> 鄭必俊 제1차 동북아여성학술대회 자료집, 1993

<中國의 秘密> 월간중앙 1992년 1월호 부록. 중앙일보사, 1992

사역자로서의 중국여성

— 복음전도자 에 사오리엔

Ye Xiao Lian

에 사오리엔은 20대 후반의 활동적이고 매력 있는 젊은 여성이다. 비록 그녀가 작고 가냘프지만 그녀가 설교할 때는 평소의 그녀 이상으로 강해진다. 마이크 없이도 그녀의 강한 목소리가 교회당 안에 가득 찬다.

그녀의 울리는 웃음소리는 전파력이 있다. 그녀는 온주지역에서 인기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교회에서 1년 동안 50명 이상의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미스 에는 부끄러움을 타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되게 미화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었다.

직업적인 복음 전도자로 난 항상 움직이며 다닌다. 나는 복음 전도자라는 말을 좋아한다. 왜냐 하면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나의 일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 년에 적어도 300번 정도 설교를 한다. 나의 동네 CHASHAN에서 나는 일 주일에 2번 설교하고, 우리 교장의 모든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장소가 너무 멀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만일 자전거로 2시간 이상 걸린다면 버스를 탄다.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물론 모든 여행은 힘이 든다. 특히 여자 혼자서 더더

욱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렸다. 올해 3월에만 이미 여섯 군데의 다른 교장을 여행했다. 어떤 곳은 여행하기에 너무 멀다. 특히 겨울이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기독교인들은 나를 많이 도와준다. CHASHAN 안에 있는 나의 교회는 나에게 있어 가정과 같다. 신도들 중 두서넛 사람은 쇼핑이나, 요리할 때 나를 도와준다. 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종종 어떤 이는 나를 위해 저녁을 지어 놓는다. 물론 이런 일은 매일 생기지는 않는다. 나는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좋은 설교란 좋은 음식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나는 매우 바쁘다. 밤 늦게 귀가해서 대충 저녁을 간단한 식사로 해치우고, 다음날 아침 식사 전에 다시 떠난다.

나는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한다. 예를 들면 3주 동안 버스로 약 1시간 걸리는 TANQIAO에서 그 곳의 평신도를 위한 훈련과정을 갖고 성경반을 가르치면서 보낸다. 현재 우리는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나는 성경의 구절구절을 통해 각 단어를 설명한다). 하루 동안만 그 곳에 있기 때문에 5시간을 계속해서 가르친다. 오후에는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세례학 강좌를 연다. 그들은 대

부분 약 18세 전후반의 청년들인데 더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항상 늦게까지 진지한 수업을 갖는다. 저녁 후에 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나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여행을 간다 해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금요일 저녁까지는 돌아오려고 노력한다. 이 성경공부반은 약 30명 정도의 작은 모임이며 대부분 내 나이 또래이다. 나는 이 모임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다. 만약 내가 수요일 저녁에 집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성가 연습에 참석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는다.

일요일 저녁은 우리 모임의 젊은 회원들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비록 시작 단계에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은 많은 설교자를 필요로 하며 우리 마을의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젊은이들을 활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 중 2명을 뽑아 매 일요일 저녁 훈련 학습을 한다.

나는 모든 설교는 우선 성경본문을 낭독하고 전개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시작한다. 비록 그 설교가 일정한 주제를 갖고 있지 못하고 논리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성경 구절은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나는 그들에게 본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과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친다. 그 학습 후에 우리는 같이 기도한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매주 2명씩 바꾸어 가며 교육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알도록 그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나는 내가 설교하는 데 준비 해야 하는 시간 이상을 쓴다. 내가 해야 할 하루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 전에 나는 자주 설교를 하였다. 그런 때에는 내가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 중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일을 “먹다 남은 국수를 먹는 것” 이라고 한다.

신학교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테마로 여러 설교의 샘플을 준비했다. 그 주제들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 다른 상황들에 적용하기가 매우 쉬웠다. 운 좋게 나는 순회 설교를 하면서 내 청취자들이 매번 달라서 나는 같은 설교를 되풀이하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일에 싫증 나면 되풀이되는 설교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역 교회에 요구되는 테마는 매우 유사한 것들인데, 그래서 나는 과거에 설교했던 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만일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에 대한 것을 듣길 원하면, 나는 몇 가지 관계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사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내 가족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내 부모는 모두 공산당원이다. 그러나 나는 12살 때 예수를 만났다. 그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이웃의 어떤 여자가 중한 병에 걸렸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의사들은 그녀를 치료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불교의 수도승들에게 의탁도 해 보았지만 그들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다. 나중에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과학적 방법과 모든 종류의

**나는 어느날
오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과
나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들었던
것들과 너무나
달랐다.
그 이후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미신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치료를 받았다. 그 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병 걸리기 전에 그녀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병에서 완쾌된 후 그녀는 아들 하나를 더 낳았다. 그녀는 그에게 “Shen'ai” 神愛(신애)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문화혁명 동안 모든 교회들은 폐쇄되었다. 기독교는 거의 장래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기독교 모임 장소로 그녀의 집을 개방했다. 내가 이야기해줬듯 그녀는 우리 건너편에 살았고 신앙인들이 모여들었으며, 찬송을 하였고 그 소리는 매우 아름다웠다.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몰래 나가 그 집으로 향했다. 나는 오랫동안 그들의 노래를 배웠고 그들 찬양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전에 들었던 어떤 것 보다는 더욱 흥미로웠다. 나는 어느날 오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과 나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들었던 것들과 너무나 달랐다. 그 이후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이후 중학교에 들어간 나의 마음 속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줬듯 그 때의 일들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그러한 모임과 예배는 매우 비밀스럽게 이루어 졌다. 때때로 어른들이 산 위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나는 언제나 혼자 갔다. 나는 찬송과 기도를 배웠고, 그리고 어느 날 세례를 받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

다. 그들은 내 부모가 공산당원이고 만일 그들이 미성년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였다.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나는 매우 순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세례 받기를 갈망했고 주님께 기도했다. “제발 오늘 재림하지 마옵소서! 나는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했고 나는 당신의 나라 밖에 남겨져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세례주기를 거절하는 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웃음)

물론 나의 아버지는 교회에 빠져 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했는데 실패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된 종교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꾸짖었다. “기독교인은 너의 머리를 혼란시킨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과 예수 안에서 나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대학 대신 성경학교에 들어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현재 공장 간부로 있으면서 자기의 길을 진정한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중학교 동창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이야기한다.

“너는 항상 너의 기독교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진정으로 아는가?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받은 소녀, 당간부의 딸, 좋은 부류의 배경, 아름답고 건강하고 보기 좋은 네가 말이다.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 왜 기도하고 예배 같은 것을 하느냐? 나는 네가 종교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느 날, 나를 보기 위해 온 그녀를 내가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만났다. “너의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정말로 그만둘 수 없냐”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녀는 점잖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인간 창조와 같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워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화를 내며 “9년 동안이나 학교교육을 받은 네가 아직까지 그런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신(神)은 어떤 신이냐? 그것은 신화야. 너의 하나님은 존재 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녀는 진화의 이론에 대해 나에게 강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심지어 진화에 대한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했다.

한번은 그녀가 나에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다시 혼란스러웠다. 나는 성경으로

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작이런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는 다른 많은 질문을 내게 했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만약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 쉽게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그러한 도전은 항상 나를 자극시켰다. 그녀는 약간은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악의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에게 소리까지 쳤다. 너의 하나님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사탄을 이길 힘이 있을 것이고 죄로부터 아담을 지키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많은 고통에 대하여 언쟁을 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는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가끔 교회에 나오셔서 나를 만난다. 비록 그는 공산당원으로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함에도 나를 위해 나오신다.

아시고 어느 곳이나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먼저 보시고, 그런 고통은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친구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예수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때 나는 그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너의 과학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고 나는 주장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또한 나는 그 지방 사람들의 80%가 고침을 받고자 기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사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 친구는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그러한 것들은 뒤떨어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로부터 얼마나 더 배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나타내주는 단순한 미신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보다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개발국가들을 지적하며 다시 싸웠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논쟁을 하였고 어떤 때는 새벽 한두시까지 논쟁을 하였다. 나는 그녀가 정말로 심각했으며, 이러한 대화는 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다. 어떻게 말하면 그녀 때문에 나는 신학교에 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학기가 시작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에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사야를 부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지 않았

다. 그리고 나는 천사나 어떤 환상도 보지 못했다. 나는 단순히 배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

내가 신학교에 가려할 때 내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겠는가? 처음에는 매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의 아버지는 그토록 엄격하지는 않았다. 간부의 일원으로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확실하게, 나에게서는 기독교를 믿는 권리를 가졌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 대해 내가 아버지를 항상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은 가끔 교회에 나오셔서 나를 만난다. 비록 그는 공산당원으로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함에도 나를 위해 나오신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당원 자격은 오로지 이 세상 안에서 그가 생명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다.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한다면, 그것은 사후에 하나님과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불일치란 없다. 그의 현재에 관한 것은 전자이며 후자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말한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늘로 데려 갈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때에 만약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구원을 못 받고 남겨지게 될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아버지의 딸이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없는 하늘나라에 있길 원치 않아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위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형제 중 막내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친하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 안에서 역사하실 것

정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제약을 하지만 만약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라고 믿는다. 결국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우리 중국기독교인들은 특별한 환경 안에 있다. 중국은 무신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종교는 말살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말한다.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는 무신론을 표방한다. 공산당 안에서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했다. 적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며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제약을 하지만 만약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면 그들은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 반(反)종교운동을 통해 공산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없다. 마지막에 당은 그 교훈을

배웠다. 우리를 근절할 방법은 없다. 종교 사무국 같은 정부 기관이 오히려 나의 일을 많이 도왔다. 그들은 나와 같이 젊은 여자에게도 진실하게 대했다.

항주(杭州)에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정부와 관계도 좋다. 최근 나는 지방 정치 자문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 기구와 나는 모든 정치적 문제를 토의 했고 나는 종교 정치에 대하여 제안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그 책임감 때문에 나와 같은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본 것에 따르면 교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것들은 교회 자체에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화합이 필요하고 복음 전파의 노력에서 좀 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비기독교인과의 접촉하려하지 않는다. 성경학교의 학생



“그렇다 나는 나의 조국과 내 동포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들은 자기끼리만 친구를 하고 목회자들도 동료와만 어울리려고 한다. 우리 주변의 사회로부터 너무 멀리 동떨어지게 된다.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살았던 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문도 읽어야 한다. 모택동도 한번은 매우 중요한 관찰을 하였다.

“모든 것은 균중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균중으로 돌아간다”

기독교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환경에 보다 더 관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비기독교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신학교를 막 나왔을 때, 어떤 교회 성도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러한 일은 많은 젊은 졸업생들에게도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정부로부터 파견됐다고 비난했다. 그 이후로 그런 불신은 변해 갔고 이제 사람들은 내가 정부 관료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로 신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여자이기에 어려움이 더했다.

온주(溫洲)는 매우 보수적이다. 그들은 여자 목사를 안수한 적이 없다. 내가 목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나를 복음 전도사 정도로 인정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목사로 나를 안수하기까지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것이 나를 난처하게 했을까? 아니다. 왜일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결국 임명된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목사 직분에 매우 부족한 자라고 느낀다. 나는 책임진 경향이 별로 없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으랴? 당신도 알듯이 목사는 목자를

의미한다. 지금 나는 내 자신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까? 물론 주께서 나를 양육하신다면 언젠가는 나는 그의 부름에 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것이다.

내가 여권주의자로 보이는가? 당신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나는 솔직히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고민스런 문제들이 있다. 당신도 아다시피 우리의 전통상 한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여인으로 한 번 결혼하면 모든 것은 그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욕망도 결코 가져보지 않았다.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독신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의 교회에는 많은 식구가 있다. 나는 혼자라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은 없다. 물론 사람들은 언제나 나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나는 결혼에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나는 나의 교회일에 꽂 얽매어 있다. 날마다 설교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나는 기쁘다. 바울의 로마서 1장의 말은 나에게 적용이 된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 나는 나의 조국과 내 동포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

『in God's Image, 1994(Spring)』 중에서

번역/김춘호

중국교회와 중국여성

석은혜

머리말

성경 속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온다. 그 중에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기생 라합,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수넵 여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일했던 유대인 계집종,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 사사가 된 민족의 지도자 드보라, 나오미의 며느리 룯 등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신약에는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하나님을 사랑했던 도르가, 하나님을 첫째로 놓았던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던 로이스와 유니게, 켈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독신여성 뵈뵈 등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지켜보던 다수의 사람은 여인들이었고, 부활절 아침 그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도 세 여인(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이었다.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여성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왔다. 현재도 여성신도의 수가 남성신도의 수보다 훨씬 많다. 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여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의 많은 여성 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여성신도들은 평신도로서 봉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교회에서의 여성은 어떠한가? 중국에서도 여성신도들의 수가 중국전체 신도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한국과는 달리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다. 1979년 이래로 중국교회는 400명 이상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들 중 60명 이상이 여성이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심양의 서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 역시 오애은(吳愛恩)이라는 조선족 여자목사이다. 절강성의 온징당(恩澄堂), 사천성의 강수복음당(江水福音堂), 해남성의 해구당(海口堂) 교회 등도 중국인 여자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

또한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분들 중 대부분 여자 전도사이거나 여성 평신도 지도자이다. 또한 산촌이나 어촌 등 편벽한 지방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20대의 젊은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현재 중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많은 여학생들도 언젠가는 목회자로 임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목사가 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특히 젊은 여목사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세계 각 국의 교회에서 여성신학운동이 일고 있으며, 중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여성신학이란 무엇인가?

여성신학이라는 말에는 여성이라는 말의 함의와 신학이라는 말의 함의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여성”이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또는 “여성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곧 “페미니스트(feminist)라는 의미를 포함한 “여성”이다. 여성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에 투신하는 입장의 신학이며, 교회사상이나 교회제도 속에 들어 있는 성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 신학이다.

여성신학자들은 진정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성이라면 가부장적인 기독교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신학이 함축하고 있는 남성적 언어와 남성적 상은 기독교의 형성 초기부터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교회에서의 페미니즘은 어디쯤 와 있는가? 이 글에서 중국교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 중국여성의 삶에 미치는 교회의 역할, 중국여성을 위한 선교전략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중국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

현재 중국 북경 승문문 교회의 여자목사인 高英은 [in God's Image, 1994, Spring]에 발표한 글에서 여자목사로서 중국교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말한다.

“중국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목사가 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특히 젊은 여목사는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가 여자 목사로서 경험해 왔던 삶의 본질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실존적인 문제이며, 이런 물음에 대답하려 한다면 그것은 여성신학의 발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중국교회 내에서의 여성들이 지니는 위치를 이해하려 한다면, 중국의 현재와 과거 전통에 있어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지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예전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남성들과의 관계를 떠나선 인격체로서 규정지를 수가 없었고 자아주체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만약 홀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아들에게 종속되어 결국엔 세 명의 남자에게 순종해야만 했다.

1949년은 공산당 지도하에서 혁명이 성공한 해이다. 사회제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났다. 현재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과 함께 그러한 봉건적인 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모택동 주석이 “남녀는 다 같다”, “여성이 하늘 절반을 받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원칙 면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 새로운 feminism이 일어났다.

전반적으로 요즘 중국의 신세대 여성들은 동등한 기회부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성의 직업이 가사와 아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억측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 직업고용, 경제적인 지위에 있어서 여성들은 현저하게 남성들과 동등함을 얻고 있다. 여성들의 법적 권리들은 헌법과 여성연맹, 모든 행정차원의 각 기관에 의해 보호받는다.

중국의 여성들은 1949년 이래로 남성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능력을 겨루며 용기를 얻어 왔고 이러한 여성해방 운동은

중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중화 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전에는 여자목사들이 거의 없었으나 1949년 이후 많이 등장했다. 지금도 여자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이 여성들이 삶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2000년 동안 뿌리 깊이 지켜져 온 남성우위의 전통이 한 세대에 일소되어질 수 없듯이 이것은 교회 내에서조차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여성들은 중국교회에서의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활동적으로 일한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들의 수는 집회 때마다 60-70%가 넘고 있으며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안내자의 역할, 성가대 봉사, 성찬식 준비 등의 준비활동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성찬식을 준비는 하지만 주일 날마다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빵과 포도주를 만들고 성찬식용 탁자를 준비하고 식이 끝난 후에는 컵과 접시를 닦는 등 그들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그들의 가치나 자아 정체성에 대하여 주장하기보다는 순종하면서 맡은 일을 감당할 것만이 기대되고 있다.

북경 송문문 교회의 高英 목사가 2년 전 미국에서 공부한 후 베이징으로 막 돌아왔을 때, 예배의 성찬식에서 회중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전에 남자들이 목사에게 성별된 성찬식용 빵과 포도주를 받는 장면을 보고선 놀랐다고 한다. 서양의 교회에서 본 것과 베이징 교회에서 본 현실과의 놀랄 만한 대조적인 광경은 그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성찬식에 여성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여성은 목사라야만 참여시킬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그는 그 당시 성직자로 임명되지 않았었으나



중국교회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만 뿌리깊은 남성우월사상은 교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경 해정구(海澱區) 교회에서 설교하는 여자 목사의 모습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여성도들에게서
조차 남자
성도와의 동등한
역할을
요구하는 노력과
열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 후 목사로 임명되었을 때 고집스럽게 그 문제를 다시 들추어냈다. 이번에도 역시 다시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몇몇 성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선임목사들의 감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남자와 동등하게 목사로 임명된 후에도 11개월 동안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의 여성도들에게서조차 남자 성도와의 동등한 역할을 요구하는 노력과 열심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렸고 결국 이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건강이 좋지 않은 목사를 대신해서 토요일 저녁 예배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성찬식을 여성목사가 거행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승문문 교회에 있어서 성찬식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시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목사로 임명된 이래 그에게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비록 토요일 저녁예배는 주일 아침예배에 비하면 400명의 성도가 모이는 훨씬 작은 규모의 예배이지만, 그 기회는 성차별을 없애는 첫 번째 돌파구이자 발돋움이었다. 이후 그녀가 주일 예배의 성찬식을 거행하는 위치에 놓이기까지는 또다시 6개월이나 더 지나야 했다.

8년 전 그가 전도사로 처음 설교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에 부딪혔다고 한다.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그 때엔 여성해방주의자(feminist) 의식을 갖고 있질 않았다. 이후 전에 열심히 매주 출석하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던 한 형제가 교회를 떠났는데, 그것은 여성이 설교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한 반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 내에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훨씬 뒤쳐져 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봉건적 가치관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다.

남경신학교 총장인 정광훈 주교가 “모성, 여성, 신성(Motherhood, Womanhood and Godhood)”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모든 남성적인 접근방법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들과 어머니들에게 기대하게 되었다.”

『남경신학지(The Nanjing Theological Review)』에 실린 이 설교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이런 주제의 글은 그 후 5년 동안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다.

남성들은 자신의 지도에 따라 여성들이 움직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남성들은 전체교인의 60-7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선권을 남성에게만 부여한다.

북경 승문문 교회의 고영 목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자신의 사역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자목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이야기했다.

첫 번째로 중국 교회나 사회에서 여성신학을 한다는 것은 여성 평등과 해방에서 있어서 역사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해방은 여성에



심양시 서탑교회 담임 목사인 오에은(吳愛恩)목사

게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도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인간의 창조성을 풍성하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중국의 문화전통이나 교회에 있어서 가부장적 전통을 지적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면은 서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교회에선 아직 여성의 권리나 여성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화되어 있지 않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 지도권의 성격과 회중들에게 본질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다 할 때에 서구의 여성신학을 공공연히 도입함으로써 생기는 위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녀는 분석한다.

따라서 여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은 천천히 인내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비록 서구의 문화가 여성주의자(feminist)의 문화를 이야기해 왔고, 서구의 많은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책을 써 왔을지라도, 여성신학은 여전히 중국인의 신학에는 낯선 주제이다. 그래서 제기되는 몇몇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중

국의 여성신자들에게 여성신학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록 여성신학이나 성경적 해석학과 같은 서구 신학의 여러 업적들이 중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중국교회에서 여성신학에 대한 작업은 여자 목회자들에게조차도 아주 기초에 불과하다.

고영 목사는 여성목사로서 중국에서 여성신학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을 위한 계속적인 자유해방운동은 무엇을 의미하나?”

“왜 중국교회는 feminist 시각을 필요로 하는가?”

교회에서 여성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특이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중국의 문화적·정치적·경제적 체제와 개인적인 신앙 경험들을 통합해야만 한다.

여성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 오늘날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로 중국 여성들이, 특히 믿는 여성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노력해야 한다.

여성 목회자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크리스천 여성들로 하여금 자아정체성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여성들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교회성도의 60-70%

이상을 차지한다. 만약 여성들의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제를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 여성주의(Christian feminism)를 경험하면서 중국 feminist 신학을 추구하는 온당한 출발점이 되기를 고영 목사는 소망했다.

feminist 시각은 중대한 것이고 유행이나 지나가는 것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feminist 시각은 예수님을 닮아 가면서 남성과 여성이 파트너가 되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을 줄 것이라고 고영 목사는 믿고 있다.

중국여성의 삶에 미치는 교회의 역할

중국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성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에 모인 여성들이 그 곳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天風> 93년 5월호에 실린 개인 간증란에 여성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다. 현재 중국기독교회의 대표위원회에서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高香芝 씨는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in God's Image, 1994 (Spring)」에서 중국 여성의 삶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사랑의 공동체가 주는 치료의 힘

『天風』에 실린 첫 번째 간증은 학대에 못이겨 끝내 이혼하고서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어느 여성이 쓴 글이다. 그녀는 처음에 그저 찬송가 부르는 것이 재미있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했다. 찬송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녀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따뜻하고 친절하신 교인들의 배려에 의하여 점차 교회를 자기집처럼 여기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좀처럼 이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교회가 치료의 역할을 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국에서의 이혼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조차 불행한 결혼생활 때문에 크게 고통 당하는 여성들이 많다. 결과적으로 내적 치유가 필요할 만큼의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여자들이 고통 당하는 경우는 수천 가지로 다양하다. 불쌍한 시골여성들은 주로 건강이 나빠서 교회를 찾는다. 의료 시설이 턱도 없이 부실한데다가 절망적인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의 여자들은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 이럴 때, 믿는 자매들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는 더할나위 없이 적절한 도움이 되고 결국 그 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자매들은 이런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혼의 질병도 치유 받는다.

도시에는 흔히 직장을 은퇴한 여신도들이 많은데 도시의 특성상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여성들은 보통 50세 정도에 퇴직하는데, 관공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55세에 직장을 나오게 된다.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는 심리적 충격은 많은 여성들을 괴로움에 빠뜨리고 방황하게 만든다. 지역회의 같은 곳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야말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

교회에서야말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체험해 보지 못한
심령의 격려와
신실한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도 체험해 보지 못한 심령의 격려와 신실한 크리스천의 공동체를 마련해 주고 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 연금이나 자식들의 부양으로 먹고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다. 모든 가족들이 일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노인에게 대한 배려가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여신도들은 모임을 만들어서 노인을 방문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 이런 여성들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은 대단히 클 것이다.

가정에서 창조되는 평화

여성의 삶은 가족관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天風』의 두 번째 글은 너무 방탕해서 도둑질과 싸움질로 감옥에까지 갔다 온 적이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토로하는 가슴아픈 체험의 회고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 어머니는 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마침내 그 어머니는 아들이 흘리는 참회의 눈

물을 보게 되었다.

상해의 은혜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방탕과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는 남편을 둔 어느 젊은 아내는 결국 남편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 그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초대했다. 그 남편 역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행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합쳤고 이 광경을 보는 이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여자는 좋은 아내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여자들은 문제가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또한 여자들 자신이 그 기도에 의해서 변화된다. 한번은 어느 농촌 여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매우 고집 세고 불같은 성미에다가 남자들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늘 집안에 큰 불화를 일으켰던 그 여자가 주님을 영접하여 신앙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답게 살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그녀 자신이 변화자 그의

많은 여성들이 사랑의 실패, 공부나 직업의 좌절감을 겪으며 산다. 일단 비관주의에 빠지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만, 교회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거듭나서 기쁨과 희망 속에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가정도 평화스럽게 되었다. 덕분에 근처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게 될 것ियो.”

숭고한 삶의 목표를 세움

세 번째 이야기는 공장 노동으로 생계비를 벌지만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여성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자기 지위를 바꿔보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일을 내팽개치고 술독에 빠지자 곧 극도의 빈곤이 찾아왔다. 가정은 파탄 났고 그녀는 살아 갈 용기를 잃어 버려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어느날 교회에 출석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했고 죄를 끊어 버렸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에 전념했으며 가족들과도 다시 화해했다. 결국 그녀는 일터에서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았고 가정의 빛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다. 인생이 다시 환히 빛나게 된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사랑의 실패, 공부나 직업의 좌절감을 겪으며 산다. 일단 비관주의에 빠지면 끝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만, 교회로 나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거듭나서 기쁨과 희망 속에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현재 외부세계를 향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기회와 도전에 부딪치며 살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적 발전의 목표는 무엇인가? 좀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함인가? 요즘 들어 젊은 여성들이 인생의 의미를 묻기 위해 자주 교회로 찾아온다. 일단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는 성경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들은 삶의 영적 가치를 발견하고서 주님을 따라 거룩한 소명을 받들어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교회와 사회에 대한 섬김

마지막 이야기는 중국 서부지역의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것이다. 너무나 독실한 신자인 그녀는 맡겨진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자진하여 감당하고 있다. 청소, 심방, 고령의 할머니 돌보기, 가난한 사람들 돕기, 교회 앞 길 거리 청소하기 등.

여성들은 교회를 섬긴다. 현재 중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목회자 부족 현상이다. 그래서 여성 목사가 증가하고 있다. 어떤 여성 평신도들은 자원 설교가로서 훈련받고 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교회 일에 참여하며 개인전도, 심방, 새신도 관리 등의 일을 맡아보고 있다.

또한 크리스천 여성들은 사회에 무한한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 여성의 대다수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직, 의료직, 교육계 등에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개인적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면, 크리스천은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라고 동기를 불어 넣어 주며 그에 따라 양육될 수 있게 해준다. 크리스천은 또한 훌륭한 업적을 통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는 말씀이 많은 크리스천 여성

**복음을 통하여
중국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들의 삶의 표어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여성의 삶에 있어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 교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진실한 메시지는 여성들의 마음속의 깊은 곳을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많은 여성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는 힘이며, 그 힘에 의하여 여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그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1:37-40).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성의 심리적, 윤리적, 영적 특징들이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여성의 증거는 교회의 사역을 더욱 명확하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다.

중국여성을 위한 선교전략

우리는 위에서 중국여성이 취한 현실적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관념이나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앞서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힘이 바로 많은 여성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으며 그 힘에 의하여 여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 되는 것이다.

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리라 본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장차 중국교회와 사회 내에서의 중국여성들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따라서 중국교회의 건실한 성장이나 중국사회의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국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의식을 개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여성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통에 얽매인 여성 자신의 의식이다. 이것은 어쩌면 ‘견고한 진’과 같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다. 복음을 통하여 중국 여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복음으로 신비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교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 중의 하나는 신비주의적 신앙체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흥회, 사경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의

중국교회 전체에 여성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는 신도 대다수가 여성신도들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한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하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교회 여성들의 신앙이 왜 이처럼 신비주의에 흐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신앙을 가짐으로써 누리는 해방의 기쁨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여성들이 신앙의 체험 면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우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여성들 속에 흐르는 무속적 에너지나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한(恨)의 표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신비적 체험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실재, 곧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의 임재가 영육간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치유하게 하지만, 그 이후에 온전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마련하신 창조적인 비전과 힘을 복음을 통해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단발성 은사집회보다는 장기적인 성경공부나 영성훈련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복음을 통해 중국여성들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중국교회는 한국교회보다는 여성의 위치가 훨씬 낮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나, 아직도 중국교회가 여성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격려해 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는 여성들을 복음으로 격려할 뿐 아니라, 중국교회 전체에 여성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여성 목회자나 지원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 특히 여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외지에 나가 살게 될 때 더 많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더구나 아직도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산주의의 중국 안에서 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외국이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기가 훨씬 용이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유학생들 특히 여자 유학생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사회에서는 물론 중국교회 내에서 엘리트 여성들의 필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교회의 60-70%를 차지하는 여성신도들의 의식개혁이나 중국교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도적 위상의 제고는 결국 이들 여성엘리트 크리스천이 늘어날 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국여성들이 사회의 퇴폐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영성 개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중국사회는 지금 자본주의식 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물질만능의 풍조가 중국사회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여성의 상품화라는 좋지 않은 현상이 만연해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이에 맞서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중심 타겟트는 가정의 파수꾼인 어머니요, 부인인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가치관을 복음으로



여신도들의 신비적 체험 중시의 신앙을 넘어서서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을 통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중국에 몰아치는 부패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성들만을 위한 그룹 성경공부, 기도 모임의 확산을 통해 사회변혁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국여성들에게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깨닫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꼭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으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이해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은 1949년 이래 공산주의 사회였고 그 이론이 전체 사회를 40여 년간이나 지배해 왔다는 사실이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 수준만큼 혹은 그 이상 공산주의 이론을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공산주의 허구성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상 6가지 점에서 중국여성을 위한 선교전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론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문제는 더욱 큰 관심과 그리고 사역의 실제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맨발로 걷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권리를 그분께 순복하여 내어 드리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또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데에 안락함이나 안일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딱딱한 잡자리를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복음 8:2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 대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분이 당신을 먹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때의 음식은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만은 아닐 것이다. 그분이 거할 곳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 곳이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그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체포당했듯이 당신 또한 체포당할 수 있다고 하신다. 더 나아가 당신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올해도 죽게 되는 30만 명의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전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분의 명령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무력으로써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통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즉 종으로서, 온유한 자로서, 또한 겸손한 자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불가능한 소리로 들리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당신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 그분 자신이 음부의 밑까지 내리우셨다. 이제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종이 되라”고 하신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온 세상을 취하게 될 것이다. ◇

중국현지에서 본 중국선교 환경



박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필자는 1994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북경, 천진, 장춘, 연변조선족자치주, 백두산, 두만강 등을 돌아보면서 중국선교, 북한선교의 현실을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

길거리의 한문간판을 보면서 문화적 동질의식을 느꼈고, 더욱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글이 많이 눈에 띄어 동족애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중국대륙이야말로 선교의 옥토임을 느끼게 했고 북한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북경대, 길림대, 연변대, 연변과학기술대 등의 교수, 대학생, 그리고 중국인, 조선족 교포들과의 대화에서 이들의 신앙적 행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저술한 『교회 행정론』과 전도지 등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때, “好吧, 我信耶穌基督(네, 좋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자유이나 남에게 선교하는 것은 중국의 종교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사실 중국 국무원은 94년 1월 31일 “외국인이 중국공민들 가운데서 신도를 발전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위임하거나 기타 포교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률을 제144호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제8조에서 밝히고 있다.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전도가 어려워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비공식적인 대화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함을 실감했다.

더욱이 중국문화의 이면에 깔린 사상에 하나님을 증시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경시내 천단공원이나,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등을 돌아보면서 유교문화의 전통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천단공원에는 황제가 하나님께 제사지내는 제단이 있었고 황제가 천단을 향해 가는 길도 365미터의 길을 옥돌색 큰돌로 깔았는데 그것은 구름, 하늘을 의미한다고 중국 안내원들은 설명했다.

천안문(天安門)도 청나라때는 천청문(天靑門)이라 했던 것을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을 수립하면서 천안문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 역시 천하태평을 의미한다고 했다. 명청대 건립된 왕궁이었던 자금성 역시 하나님을 하늘을 자색(紫色)으로 창조했다하여 자(紫)는 하늘, 즉 천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禁)하였다고 하여 자금성(紫禁城)이라 했다고 한다.

자금성에 살고 있었던 궁녀가 9천 명, 관리가 15만 명 이었는데, 그들이 묵는 방이 9,999개 였다고 한다. 그것은 하늘이 1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방이 하늘보다 더 넓고 많을 수 없어 9,999개의 방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음을 보고, 복음중심의 하나님 사상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선교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특성을 깊이 연구하고 고려하면서 중국선교에 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우리와 같은 동양문화권 속의 사람들이므로 생김새도 비슷하고 가치관, 습관, 행태 등이 유사함을 보고 중국선교에 더욱 큰 사명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960만 Km²의 광활한 대지에 12억이라는 세계 제1의 인구를 가진 나라이다. 앞으로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있는 나라이다. 다만, 중국통치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관리하고 경영 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발전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중국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국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로 서도록 노력한다면 중국을 통해 세계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경 천안문 광장 앞에서의 필자의 모습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두만강 앞에서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위해서는 중국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을 철저히 연구하여 중국문화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땅에 절대적인 복음을 바로 전하되 복음전파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중국문화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19세기 세계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는 절대적 복음을 바로 전하되 대상의 문화에 맞게 다양한 선교 방법을 구사해야 선교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중국에 절대적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방법이나 선교의 매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입체적인 중국선교 전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선교전략 방법이나 선교 매체에 있어 최근 중국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많이 만나게 되는 중국인들에게 적절한 말과 전도지를 통하여 face to face 선교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외 방송선교, 선교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여 중국 문화현실에 맞는 선교전략을 구사하되 진리의 말씀, 절대적 복음을 바로 전하는 데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선교를 위한 길목에 있는 나라이다. 중국 내에 있는 192만의 교포들은 중국문화, 북한문화에 익숙한 동포들이다. 교포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여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다면 중국선교와 함께 북한복음화와 민족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중국방문 여정에서 두만강 유역,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면서 중국선교와 함께 북한 복음화의 사명을 더욱 크게 일깨워 주었다. 두만강 다리를 경계선으로 하여 중국과 북한이 국경선이 그어진 것을 보며 중국선교와 함께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기를 기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드러내 보인 천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이 민족의 성산이 중국선교와 북한 복음화,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산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다.

더욱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중국, 북한 문화와 함께 한국 문화까지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음을 보고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 건전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민족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북한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던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평화의 기운이 감돌다가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남북한 통일선교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동안 하나님의 선교전략의 도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 북한선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이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뚜렷한 선교목표하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선교전략의 도구로서 빛 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크리스천들이 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가장 좋은 선교의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한다. ◇

박완신/ 행정학박사(북한학)
북한사회과학연구원장
소망교회 시무장로



“중국을 주제로”에 실을 광고를 모집합니다.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본지는 1994년 2월, 공보처에 잡지등록을 함과 동시에 유가지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지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합니다. 이는 정보시대에 발 맞추어 다양한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본선교회의 문서사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 마감일은 매 홀수달 20일 입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광고를 실기 원하시는 단체, 기업은 중국어문선교회로 전화해주시시오 (TEL : 594-8038, 533-5497, FAX : 599-2786).

광고 담당 : 김정하 협력간사

중국대륙의 기독교 열기

-미열인가, 고열인가-

畢明

‘기독교 열기(Christianity fever)’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정부 당국이 '82년 <종교자유> 정책을 회복시킨 후, 국내의 주요 5개 종교는 신속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일부 지역의 종교 발전 속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였으며 특히 기독교는 기타종교에 비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종교학자의 한 사람인 방오천(方五天)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의 발전이 ‘놀랄만한’ 지역은, 강소성 회음시(江蘇省 淮陰市:1981년 기독교인의 수는 약 2만 명이었으나 '86년부터 매년 2만 명씩 증가하여 1990년에 이르러서는 14만 명에 달했다)와 절강성 온주(浙江省 溫州:1981년 기독교인 수는 약 20만 명이었는데 1990년에 이르러는 30여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안휘성 래안현(安徽省 來安縣: 1950년대 초 기독교인은 겨우 11명이었는데 1976년에 77명으로 늘었고 1990년에 이르러는 무려 천 명을 넘어섰다) 등이다.

方氏는 이같은 현상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째, 중국에서 '50년대 이래 최근 10년 동안의 기간은 종교신자의 증가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둘째, 중국 내의 일부 지역에서 확실히

‘종교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숫자는 ‘놀랄만한’ 것이며, 종교 ‘열풍’은 부정할 수 없다. 국내의 대다수 종교계와 학술계 인사들은 누구나 이것을 ‘병폐’로 인식하기를 원치 않는다.

南京대학 종교 연구소의 왕유번(汪維藩)은 최근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발전이 비록 다른 종교에 비해 대단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상적이며 ‘고열’을 일으킨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놀라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의 말의 뜻은 “기독교의 발전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관리에 대한 눈금에서 왕유번 氏는 당 간부들이 종교에 대해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공해에 관해서 일관되게 사용해 온 단어이므로, 당 간부들이 종교를 일종의 ‘사회공해’로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정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종교자유 정책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가 신속하게 발전하는 이유는, 냉정하게 그 역사와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볼 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상술한 논의에서 ‘기독교 열기’의 문

**여자신도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
현상은
중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나
차츰 청년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제는 중국 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정상적이라는 주장은 종교정책을 수호하는 인사들의 의견일 뿐이며, 실제로 이같은 열기는 정책상의 변화를 초래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기독교 열기”의 증상

중국 기독교계의 최근 통계-혹은 잠정적인 추정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기독교 신자는 6백만에서 9백만에 이른다(Amity New Service '93.2.1). 그러나 홍콩 및 외국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기독교인의 수는 2천만에서 5천만이다.

〈中國宗教十年〉, 〈世界宗教研究〉에 따르면 중국교회는 전형적인 「女多男少 老多靑少」(여자신도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은 현상)의 모습이었으나 차츰 청년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교인들은 대부분 문맹이어서 이들이 총 신자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나 도시 신자의 문화 정도는 비교적 높으며, 그 가운데는 교수나 저명한 의사 등도 많다.

이것은 보편적인 상황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 내에는 여러개의 비공인 교회가 있다. 어떤 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신자들의 연령 구성면에서도 하남(河南)과 산서(山西) 일부 지역의 교회에서 신자들 중 8할이 18세 이하이며, 신자들의 교육수준을 봐도 도시의 교회에서 청년 지식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이다. 학술계에도 적지 않은 젊은 학자들이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나 ‘기독교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의 출판 역시 현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는 서양의 저작물을 번역, 출판한 것이 많은데, 최근에 1,800페이지 분량의 두 권으로 발간된 <서양종교철학선택; Selected Readings of Western Philosophy of Religion> 같은 책도 있다.

이 책 속에 수집된 글들은 대부분 근현대 기독교 신학자들의 저작물이며, 더욱 놀라운 일은 이 책이 출판된 지 두 달이 못 되어 300부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식인들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열기를 엿볼 수 있다.

‘기독교 열기’의 원인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열광은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종교열’ 혹은 ‘기독교 열기’는 89년도의 ‘6.4사태’ 현상에 뒤지지 않는다. 중국 내 학자와 기독교 인사들의 ‘기독교 열기’에 대한 원인 규명은 다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전통 및 역사적 요소

기독교의 발전이 신속하고 신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오랜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갖고 있다. 절강성 운주와 복건성 복청 등지는 농촌 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모두 오랜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다.

가정의 기독교적 전통도 청소년들의 입교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시키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상해의 한 교회 성가대 20명의 청년들은 거의 이 교회 교인들의 자녀라고 한다.

사회 및 경제적 요인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귀신의 존재를 믿는 관념은 여전히 보편적이다. 농촌에서 기독교의 발전이 도시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귀

신 관념의 일종의 전환 내지는 대체인 것이다. 그리고 농촌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기복신앙 형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켜주실 것을 기도한다.

한편 중국사회는 예로부터 남존여비 의식이 강한데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심하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여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농촌의 여성들은 교회에 와서 만족을 구하고 있다. 어떤 농촌지역에서 여성 신도의 수는 80퍼센트에 이르기도 한다. 강소성 유녕현 고작향(江蘇省 睢寧縣 高作鄉)에서는 전체 1,248명의 기독교인 중 여성의 숫자가 1,185명으로 전체수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심리적 요인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교인의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해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85년 溫州 龍灣區 蒲州堂 교회에서

행한 표본조사에서, 57%의 신도들이 질병에 걸렸다가 입교했으며, 같은 해 안휘성의 한 교회의 조사에서는 160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126명이 병으로 인하여 입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현(固鎮縣)의 2,500여 명의 기독교인 중 1,620명이 병 때문에 종교를 믿게 되었으며, 강소성 북부 농촌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 60~70%가 병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신자들은 연애, 결혼, 가정, 학업, 사업 등에서 좌절을 겪고 교회를 찾아 정신적 위로를 찾고 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기타 요인

문혁기간 중에는 장기간 종교를 금지하였기에 80년대의 교회는 다시 일종의 반작용을 개시하였다. 신자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발적인 힘과 단결하는 역량을 발휘하여 결국에는 반전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입교의식과 요구가 다른 종교에 비해 간단



신자는 억압을 받을수록 자발적인 힘과 단결하는 역량이 더욱 강해진다. 사진은 광주 대마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도들의 모습

종교 신앙의 자유는 종교에 대한 연구, 토론과 비평을 포함하며 종교계 인사의 종교연구 참가를 배척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한 것도 많은 신자를 끌어들이는 원인이 된다. 기독교와 서양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젊은이들을 흡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 열기'의 대처 방향

'기독교 열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중국 내의 인사들은 주로 학술계, 기독교계, 당 정치부에서 종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인사들, 이 세 부류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들 세 부류의 인사는 그 배경과 목표가 다르기에 '기독교 열기'에 대한 반응도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한 부류는 종교업무를 관리하는 간부들이다. 이들은 '종교업무를 정상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종교활동'을 공격하고,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모든 종교활동은 위법,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요즈음 각지에서 계속 「종교활동장소 등록 관리조례」라는 것이 등장하고 지방에서는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종교활동장소를 줄이고 활동을 제한하는 실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지방의 종교 사무소는 신자증을 발급, 판매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수익을 가져옴은 물론 신자를 제압하거나 방해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열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측은 당연히 기독교계의 인사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종교의 적극적인 면과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서 종교를 평가하고 막연히 싸잡아 말하고 있는 '아편설'에 반대한다. "전인(前人)들이 간단한 가치판단으로의 성질에 비유하여 한 마디 한 것을 후인들은 무슨 선현들의 천고불변할 진리나 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여 이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마르크스 종교이론에 대한 공개적인 도

전은 사실상 전대미문의 것이다. 심지어는 대담하게도 <아편설>은 '비과학적이며 폐해가 있고', '민족의 단합에 이롭지 못하다'는 등의 논조로 공격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성립된 시기에 착취계급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아 종교가 노동인민을 마비시킨다는 소극적인 작용은 크게 감소되었으므로, 마땅히 종교를 민족의 역사·문화의 일부분으로서 강건하게 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인민의 단결과 우호적인 국제관계 창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80년대 중반 전면적인 종교관 확립이 제기된 후 학술계에는 종교연구 방면의 개방이 왔고, 교회측에서는 강력하게 '신앙자유' 정책의 실현을 쟁취하게 되었다. 종교신앙의 자유는 종교에 대한 연구, 토론과 비평을 포함하며 종교계 인사의 종교연구 참가를 배척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과거에는 이러한 배척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종교신앙자유 정책이 종교를 소멸시키는 책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기독교인의 대대적인 증가 때문에 교계는 한편으로 종교업무 관리들의 세세한 간섭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압력에 맞서고 있다. 특히 "89년 민주화운동" 이후 기독교의 발전은 더욱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해외 반중국세력의 침투와 화평연변(和平演變)이라는 명목으로 가정교회를 공격하고 교회활동을 제한하였다.

기독교측에서는 즉시 이에 맞서 이를 구별하여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기독교계와의 우호적인 교류와 정치성을 띤 침투를 구별하며 미등록 종교활동과 위법적인 반중국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정책이란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구분하여 다루지 못한다면 정책이라 할 것도 못 된다"



한 교회의 성경·기독교서적 판매대

라고 여긴다.

학술계의 기독교 열기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현저하게 극좌(極左)노선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 연구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이다. 과거의 종교 연구 방향은 완전히 당 중앙의 명령을 듣는 것이었다(일례로 1964년 북경에 설립된 <世界宗教研究所>는 모택동의 명령으로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 종교연구는 종교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사로 초점을 전환하고 점차 이론과 실제 두 면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주로 신자 수의 증가, 연령구조, 남녀비율, 종교를 믿는 원인, 교인의 가정적 배경 및 종교가 가정생활과 사회윤리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실황에 대한 조사 보고는 대부분 <宗教> 나 <當代宗教研究> 등 연 2회 발간되는 잡지에 실리고 있다.

87년부터 92년까지 기독교회의 현상에 대한 조사보고가 20여 차례 이상 실렸다. 비록 어떤 때에는 매우 간략한 자료 제공에 불과하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그리 엄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의 종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같은 연구 보고는 오히려 큰 변화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종교이론의 연구에 있어 '아편설'도 더이상 교조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50년대 초 주은래(周恩來), 이유한(李維漢) 등이 제기한 '五性論'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즉 종교는 군중성, 민족성, 국제성, 장기성, 복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빨리 소멸해 버린다는 논조는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의 상층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협조하는 조건과 종교의 사회 작용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전의 종교연구는 철학의 범주에 부속되어 있었고 의식형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와 교회생활은 계속적으로 신앙이 없거나 이상을 상실한 중국인들을 계속 흡수·확대해 갈 것이고, 종교를 믿는 인민들의 숫자는 앞으로 몇 년 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태 문제를 정치 투쟁으로 확대해 온 점은 사실 가장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근래들어 종교학 연구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식하고 여러 방면에서 사회과학 연구로 확대해 가고 있다. 종교현상학을 포함하여 종교사회학,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총괄해서 말하자면 최근 학술계는 종교연구와 기독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교회측 인사와 종교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연구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구 방향과 지도 방식은 여전히 당 정치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존경받는 종교문제 권위자 라죽풍(羅竹風)은 50년대 화동종교사무처 처장이었다. 그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 종교학회 부회장과 고문, 상해시 종교학회 회장, 상해 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 명예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그가 主編한 <中國社會主義 時期의 宗教問題>는 최근 중국 내 종교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언론편이라 할 수 있다. 종교사무부서를 관리하는 羅氏를 볼 때 종교연구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당정(黨政)의 지도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열기' 이후의 조망

기독교인의 숫자가 근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중국사회 각 계의 인사들의 기독교에 대한 지대한 흥미와 수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점은 각 지역의 교회와

신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자들의 단결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민주화운동 이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압력에 대해 맞서고 있다. 기독교인이 믿는 교리와 교회생활은 계속적으로 신앙이 없거나 이상을 상실한 중국인들을 계속 흡수·확대해 갈 것이다. 종교를 믿는 인민들의 숫자는 앞으로 몇 년 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중국 기독교와 중국문화의 충돌에 대해서는 대만 기독교가 하나의 선례가 되겠다. 비록 대만에 전도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가 몇십 년 간 신속하게 발전하였다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극소수의 종교이며 문화의 '기독교화'를 말할 정도는 못 된다. 중국 기독교가 중국문화에 동화되는 점도 역시 그리 크지 못하다.

과거에 중국에서의 기독교의 발전은 불교와 같이 중국문화에 동화되거나 토착종교와 결합하지 않았다. 기독교의 세계관과 중국인의 세계관이 상충되기에 중국의 기독교 열기는 대체로 점차 안정되어 갈 것이며, 기독교는 중국에서 그 기본적인 특질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중국 문화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 장식되어 갈 것이다.◇

『中國與教會, 98期』중에서
번역/ 빈미정(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얼굴은 중국인, 마음은 미국인

노알마

알마 선교사는 미국인으로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은 머리카락에-요즈음은 회색으로 변해 간다-검은 눈동자 그리고 피부색은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혈통임을 완전히 드러낸다. 사실 그녀의 가족은 중국을 떠나 5대째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23년 간 동아시아에서 OMF와 동역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세계복음주의협의회(World Evangelical Fellowship)사역을 맡고 있다. 그녀의 남편 노봉린 선교사는 한국인이지만 30여년 간 미국시민으로 살았다.

알마 선교사가 아시아인 피부색을 가진 서양선교사로서 아시아로 오는 데 일어났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알아보자 여기에서 그녀는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을 소개하고 있다.

나의 마음, 태도 그리고 사고 방식은 확실히 미국인이다. 중국인 친구들은 나를 중국인의 한 사람으로 분류하며 남편 역시 나를 중국인 아내로 소개하지만 나의 자라 온 배경을 부인할 수는 없다.

금발의 파란 눈동자를 가진 선교사들이 고생과 눈물로 만다린어를 배우는 것처럼 나도 동일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렵게 만다린어를 배웠다. 우리가 중국인 공동체에서 살 때마다 그들이 우리를 항상 수용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모습이 그들과 같아 보이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내가 만다린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만은 확실히 아니다.

선교지에 뿌리 내리기까지

내가 중국인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나

에게서 더 능숙한 언어구사를 기대하는 것일까?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나의 뿌리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전혀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 나는 모국인처럼 말을 구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내 억양 때문에 나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후에 나 자신이 좌절감을 느낄 만한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세우지 않았다.

당신은 혹시 비영어권인 아시아에서 만든 팜플렛이나 게시판 또는 신문에서 영어 문법이 틀린 것을 보고 비웃은 경험이 있는가?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중국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시도를 해 본 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

게 되었다. 만약 내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팜플렛을 만들어야 한다면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는 배우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아시아의 교회를 위해 뭔가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선교지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와야만 한다.

특히, 개방된 잔디밭, 넓다란 국립공원 및 자동차가 거의 없는 한산한 도로의 서양의 환경에서 살다가 인구밀도가 높은 선교지의 도시에 적응해 가는 데 처음 1년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선교지의 환경들을 잊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우리의 본국과 '다른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미국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가 5번째 임기로(한 임기는 보통 4년) 3번째 나라인 한국에 왔을 때(미국→대만→한국) 나는 이곳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 자신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나 자신이 좀 더 성숙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대만과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장기헌신

장기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단기사역과는 다르다. 나는 단기사역자로 선교지에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과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때 오는 초기의 충격을 극복할는지 의아스럽다. 선교지에 적응하는데 최소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만일 단기사역자로 이곳에 왔었다면, 기후, 교통, 언어, 지저분한 환경,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을 다른 문화권으로 데려가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했다. 아이들이 병이 나거나 또는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6살 난 딸 로빈이 골목길을 따라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었을 때 중국인 이웃들이 모여들어 아이를 돕고 그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문화적 적응을 잘 하였다. 어린 나이에 두 문화를 접했을 때 그들은 두 문화 속에서 아주 쉽게 편안함을 느꼈다. 너무도 잘 적응하여서 유모어가 넘치기까지 하였다. 한 예를 소개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쌍둥이 아이들은 지방 특유의 억양을 넣어 싱가포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서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미국 억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언어와 습관을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는



선교지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괜찮거나 우리의 방식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것이 비록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국의 문화에 너무 강한 집착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때때로 친구들과 가족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렇게 자주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다. 첫 1년간은 매우 어려웠지만, 얼마 지나서는 소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시아인들 중에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교회와 선교사들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남겨 둔 친척들을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주머니, 아저씨의 역할을 해 주었다.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이다. 신입선교사였을 때는 우리의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 살아 본 후로는, 다른 방식도 괜찮거나 우리의 방식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었다. 우리는 그 문화의 손님이다. 몇몇 아시아 문화는 5,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양의 신생문화가 선교지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문화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인가?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디어 보라.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라. 그러면 곧 당신은 동서양의 문화에 잘 융화될 것이다.

바울은 고후 4:17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편집자 주 : 위 글은 KOMF에서 발간하는 “아시아 기도”(87호)에 실렸던 내용으로 저자의 허락을 얻고 실었다.

노 말마/OMF 선교사

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

민요셉

중국의 선교환경

지난 1월 31일에 발표된 종교법규 제정으로 중국에서의 선교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 당국도 기존의 선교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선교사들을 하루 아침에 추방할 수 있다. 특히 선교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동북지역에서는 구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기존의 방법(직접 목회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양육을 하는 등)으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중국선교 전략으로서 “전문인 선교(사)”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란 무엇인가?

“전문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전문인 선교”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에 대한 파악이 우선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 선교를 할 때 치루어야 할 희생과 미리 결단하여야 할 것들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인 선교가

장점도 많지만 잃는 것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른 길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용어들과 개념들

공산권, 또한 이슬람권 사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알려진 ‘전문인 선교’란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개념이 공통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다소 혼동이 있고 강조점도 달라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단어도 약간씩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유사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텐트 메이커

이 용어는 사도행전 18:3에서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선교에 있어서의 ‘텐트 메이커’는 아직 개념의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성경적으로도 아직은 유사성경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텐트 메이커’ 방식의 선교를 전부터 시도해 온 서양에서도 ‘텐트 메이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단은 무난하다.

직업 선교사

이 용어도 역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선교사인 동시에 자기 직업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일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특정분야를 전공한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직업에 관하여 정통한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업선교사는 '텐트 메이커'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평신도 선교사

안수를 받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신분적으로 목회자 선교사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자비량 선교사

선교활동에 필요한 사역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즉 이것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된 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사실 외부의 재정적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비량선교사를 '텐트 메이커'의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사역자에 따라서는 전적인 자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혹은 일부나 전부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인 선교와 유사한 많은 용어들을 정의하는 이유는 전문인 선교의 개념과 한계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에 따라 선교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특성을 가진 선교사들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인 선교사란 무엇인가?

전문인 선교사

이 용어가 국내에서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선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전문인"이라는 단어는 사

전에 나와있지 않다. 대신 "전문가(專門家)"라는 말은 있다. 그런데 "전문인"이라는 말은 'professional'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전문가'라는 단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은 영어에 그대로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단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때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정통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란 의미이다. 그리고 단어의 뜻 그대로 타문화권에서 자신의 기술이나 자격을 심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에서 말한 협의의 '전문인 선교사'처럼 어떤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는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단정짓는다면 실제적으로 전문인 선교사의 자격으로 중국에 나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를 들어 목회자이거나 또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전도와 제자훈련 등에 상당한 경험이 있어서 교회개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없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전문인이 아닐지라도 선교전략적 측면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전문인 선교사이다. 이 경우 비록 어떤 분야에 전문인은 아니지만 "신분상 전문인"인 경우도 전문인 선교사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인이 아니거나 해당 분야에 깊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대신 전도와 양육 등 교회개척에 은사와 많은 경험이 있을 경우, 선교사 신분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외형상 전문인의 신분을 가지고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교전략적인 필요와 그 효과 때문에 그렇다.

즉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미나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전문인 선교사란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로서 혹은 신분상 전문가의 형태를 띠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신분상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선교지에 들어간 전문인 선교사가 그 곳에서 신분을 밝혀야만 할 경우에 비자상의 신분을 증명하면 된다. 윤리적인 면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한다는 죄의식 때문에 갈등하는 선교사들이 몇몇 있어 왔다. 이 때 일부러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애써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신분의 비자를 갖고 들어왔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신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선교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서 거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신분적으로 ‘전문직종’을 갖고 있다면 바로 전문인 선교사이다. “전문가”만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전문가이면 바로 “전문인 선교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실질적인 전문가만이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라 신분상 전문가이면 바로 ‘전문인 선교사’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전문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인 선교의 형태

패트릭 라이(Patrick Lai)는 ‘전문인 선교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리, 정리하였다. 그는 개념상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텐트 메이커의 실상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텐트 메이커 사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를 제시하였다.

전문인 선교의 형태

구 분	T1	T2	T3	T4
소 속	자국회사 소속	T1과 동일(자의로 이룬 회사에 소속)	자신의 사업체 운영(팀사역)	사회, 종교적 사역(신분노출)
후원근거	소속회사	소속회사	교회 사업체	교회
선교훈련	무	유	유	유
소 명	무	유	유	유
목 적	해외취업	선교	선교	사회, 종교적 사역 통한 선교
언 어	모국어	모국어	현지어	현지어
비 자	합법적	합법적	합법/불법	합법적
선교기관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사역상황	본국의 신앙 생활과 유사. 직장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고 언어한계로 전도는 자국인에게 제한	회사 일 우선, 그 다음이 사역. 시간 확보 어려움. 열매적어 갈등	스스로 시간통제 가능. 사역에 많은 시간 투자. 열매적어 가능성	사회, 종교적 사역(신분노출)

유형 1은 단순히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소명이나 훈련없이 직장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서 국



중국여문선교회 주최로 열린 <중국선교 정기세미나> 광경

내에 있을 때와 같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유형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사 주재원, 외교관, 대사관 직원들의 신분으로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데, 특별한 선교동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나서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 적극적인 선교 도전을 주어 동참케 할 필요성이 있다.

유형 2는 중국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국내에 다니는 회사의 해외지사나 공장으로 일부러 파견을 나가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의 선교사는 제자양육과 훈련과정을 거쳤고 선교 소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회사의 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장일에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이 투자되어 선교사역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다. 언어를 배울 만한 시간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선교의 효과가 별로 없다. 또한 회사소속으로 가서 소속된 선교기관이 없으므로 보고체계가 없어 사역의 방향이나 평가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유형으로 선교지에 간 사람은 무척 많으나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열매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직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유형 3은 선교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의도

적으로 본인이 해외의 어떤 지역에 독자적인 회사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주로 사업보다는 선교를 위해 더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다. 최근에 개발된 이 전략은 바람직한 전문인 선교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선교에 있어서 이러한 비즈니스 사역은 가장 손쉬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유형 3의 방법으로 전문인 선교를 하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 대규모의 사업체보다는 소규모 사업을 통한 사역이 보다 효과적이다. 대규모 사업체 운영도 가능성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출한 기업일지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자체 브랜드는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 하면 사역이 발각될 경우 사업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선교에도 부작용과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유형 4는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해외에 유학생으로 가거나 사회사업 등을 위해 가는 경우이다. 즉 병원, 학교 등 구제와 교육,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통해 선교사역을 펼치는 것이다. 학생으로 가는 경우라면 학생 신분이 끝난 후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미리 설정되어야 한다. 또 학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학생의 입장에서 사역에만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사역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수 사역도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 대학은 서양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의 대부분은 중국어나 영어로 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바람직한 전문인 선교 모델 - 팀 선교

팀 선교의 세 가지 유형

만약 어떤 선교팀이 사업체를 통해 선교할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운동을 하기 때문에 선교 방향에 대해서 관리해 줄 체계적인 조직의 후원이 있어야 한다. 조직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있어서도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은 선교기관이나 교회가 직접 선교지에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지에 일시불로 대규모 투자하여 후원하는 방법이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교회나 기관이 자금문제나 경영에 미숙하기 때문에 사역이 장기화되면 자금난에 봉착할 위험이 높고 신분의 보장이 어려워진다. 가능하면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사업선교를 시작한 다음 헌신된 기독교인 사업가를 선정하여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지역을 옮기게 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세 번째 방법은 교회나 선교단체, 중국에 선교하려는 목적을 가진 헌신된 기독교인 사업가 그리고 현지 선교사, 이 세 방면의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유형의 전문인 선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선교를 위해 헌신할 만한 사업체를 찾아 사역에 투

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나 기관은 자본을 공급하여 사업체에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도록 해야 한다. 수익을 분배하여 일부는 선교사역에, 일부는 현지의 문화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만든다. 현실적인 목적이 되기 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현지인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 방법은 필자가 원하는 중국에서의 바람직한 전문인 선교 모델이다.

팀 선교의 성공요건

그러나 이 전략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첫째 구성원(Team)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실제적인 비즈니스 전문가가 최소한 한 사람 이상 필요하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회 전문가(목사 혹은 전도사), 나머지는 기업의 일반 사원이다. 어쨌든 이 방법으로 전문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필요한 훈련(비즈니스 훈련 등)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결론

어떤 방법으로 전문인 사역을 하든지 반드시 전문선교단체 혹은 전문성있는 교단 선교부와 연계를 갖고 나가길 바란다. 활동에 대해서 지시받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으면 사역의 방향성을 잃고 열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성공적인 팀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과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그만큼 열매도 클 것임을 확신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

편집자 주: 위 글은 1994년 6월 27일 중국어문선교회(주최한 중국선교세미나(강사: 민요셉, 전문인선교협력기구 총무)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중국이 필요로 하는 10가지 전문직 인력

아래 내용은 <鏡報> '94. 4에 실린 "중국이 필요로 하는 10대 전문직"을
간추린 것입니다.

중국 전문인 선교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여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북경시 인력시장이 발표한 1993년 통계결과에 의하면, 현재 대륙에서 긴급히 인력이 공급되어야 할 10종의 전문업종은, 경제·경영·판매 전문인, 전자통신·미술광고 전문인, 공공 관계 전문인, 컴퓨터 전문인, 건축기술 전문인 등이다.

중국대륙의 최대의 인력공급 교류시장인 북경시 인력시장은 최근 1993년 한 해의 통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0종의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제·경영·판매** 전문인력이다. 시장경영·기술상품 경영과 각종 시장의 경영을 포함한다. 인력시장을 통해 구인신청을 한 기업단위와 경제실체 등의 사회 수요량과 구직신청을 한 인력의 비례는 100대 10.7로서, 미공급량은 무려 90%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전문업 인력 중 최우선을 차지한다.

두 번째는 **전자통신** 전문인력이다. 유선·무선통신과 수리·개발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최고 87.6%에 달한다.

세 번째는 **미술광고** 전문인력이다. 미술광고 설계·기획·창의력·광고업무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86.2%이다.

네 번째는 **공급관계** 전문인력이다. 기업의 경영·기획·상담·연락·조직·개발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78.5%이다.

다섯 번째는 **컴퓨터** 전문인력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응용하드웨어·사무자동화 기술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69.9%에 달한다.

여섯 번째는 **건축기술** 전문인력이다. 공업 및 민간 건축설계·실내장식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67.7%이다.

일곱 번째는 **관리** 전문인력이다. 특히 고급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미공급량은 100분지 64.4이다.

여덟 번째는 **문서분야의 전문비서**이다. 외국어가 능통한 비서를 포함한다. 미공급량은 45%이다.

아홉 번째는 **기계제조와 기계디자인** 전문인력이다. 미공급량은 26.6%이다.

마지막으로 **재무·경영·회계** 전문인력이다. 공상기업(工商企業)과 사업체 단위의 재무경제, 회계감사, 출납 등을 포함한다. 미공급량 100분지 26%에 달한다.

위의 내용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전문직 인력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의하면 1993년 북경의 1천7백여 단위에서 필요로하는 10대 전문업 인력은 1만 6,633명에 달하며, 개별 단위 당 최고 4천여 명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1993년 한 해, 위의 10종 전문직종을 선택, 등록한 사람은 겨우 6천여 명으로, 전체 수요량의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과 수요에 크나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이 10가지 전문업 인력의 사회적 수요와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의 비례는 이론상의 통계 숫자인 36%에도 못 미치는 10%에 불과하다.

중국대륙에서 나타나는 전문인력의 긴박한 부족현상은 중국이 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만약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일시적 해결'과 '근본적 해결' 두 가지 범주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먼저 '일시적 해결'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0종 전문인력의 부족함의 모순을 완화시키려면 '눈을 밖으로', '눈을 안으로', '눈을 아래로' 돌려야 할 것이다.

「눈을 밖으로」 돌린다는 것은 해외 혹은 국경 밖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인력을 초빙해 오는 동시에, 이러한 외국 국적을 가진 인재들과 귀국 유학생들이 중국 경제건설의 물결 속에서 대대적으로 헌신하고 포부를 펼치게 하며, 힘써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다.

「눈을 안으로」 돌린다는 것은 인력시장과 각 기업단위들이 눈을 내부로 돌려 중국 내에서 잠재력을 발굴하고 인력을 찾아내야 한다. 현재 중국내 경제 건설과정에서 수요가 급박한 각 직종 인력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썩고 있거나 혹은 다른 데에 재능이 낭비되어 그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각자적인 지도자들은 "단지 생각만 바꾸면 인력은 곧 눈 앞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중국이 당면한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눈을 아래로」 라는 것은, 인력시장과 인력사용 단위, 기업들이 조직화되어 사회에 대해 힘을 키우고, 인력을 계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부족한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의 힘을 발동하고 지도자를 조직화하여, 「단기 훈련반」 「집중 훈련반」 「양성반」 「야간대학」 등을 개설함으로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능을 양성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인력을 배양하는 유일한 방법은 곧 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강화에 달려 있다. 때문에 중국은 지금부터 교육강화와 교육개혁의 심화에 전력을 기울여, 전국의 초·중·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이와 동시에 직업교육과 직업양성을 증강시키고 다양한 형식과 과정을 채택하여 대량의 숙련 노동자와 각종 전문업 인력들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鏡報, 1994. 4』 중에서 발췌

번역/김현주 중국어문선교회 회원

교육의 불모지에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

趙軍

궁벽한 시골 백만진

광둥성(廣東省) 북부에 위치한 청원시(清遠市) 백만진(白灣鎮)은 중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농촌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 곳은 성 당국에 의해 빈곤구제와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모금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대다수 빈곤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역시 석회암 지형이다. 추수때가 지나면 크고 작은 거무튀튀한 암석들이 전부 다 드러나 있는 아주 험준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척박하고 메마른 토지에 일인당 평균 소유 토지는 2分(分은 약 133 평방미터)에 불과하다. 이곳은 화남(華南)지역 최대 도시인 광주에서 겨우 1백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광주시의 시민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는 동안 백만진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소학교에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다. 광주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급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할 때 이 곳의 농가에는 전깃불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백만진에 사는 청소년들은 15세가 되면 바로 광주에 나가서 생계를 꾸릴 일을 찾기 시작한다. 15세가 채 못 된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며 하릴없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광주로 나간 사람들의 경우, 최소한 중학교 정도의 학력조차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심지어 어떤이는 소학교 졸업장도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공장에서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

백만진에도 소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으며 이미 『의무교육법』 실시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 아이당 1년에 내야 하는 학비 및 잡비의 액수가 5, 6백 원인데 농가에서 이 액수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된 관방의 소식에 따르면, 취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중점적인 구제사업 지역으로 백만진은 우선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곳은 『한극(寒極)』이라 불리우며 각 언론 매체에서도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한극』 지대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문화수준이 낮은 농민들의 경건한 기독교 신앙의 열기가 뜻밖에도 이곳 백만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백만진의 남안향(南安鄉)에는 지은 지 50년이 된 기독교회당 하나가 자리잡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의 위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남안 소학교의 옆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건어서 주지도 않았지만 이 교회당은 반세기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전히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초라한 마을 한 가운데에서 이 건물은 전통적인 중국식 품격을 갖춘 훌륭한 건축물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남안 교회당에서는 매주 적어도 7,80명, 많으면 1, 2백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들은 모두 농민들이며 노인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나는 올해 춘절(春節:음력설) 그믐날 밤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교회당을 관리하는 농민 陳씨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 또 60여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무신론자들이 통치하는 국가의 일부분, 또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사는 문맹의 농민의 무리들이 조상들이 50년 동안 선택하여 온 신앙을 고수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의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40년 전에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캐나다 선교사는 이미 떠나고 없는데 말이다. 중국,

특히 중국의 농촌은 본래 기독교가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토양이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이 곳에 교회당을 짓고 십자가 하나를 남겨 놓은 이후,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부터 열살밖에 안 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따르는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그들의 빈궁한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정신적 삶이 마침내 가난과 어려움을 참고 이기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가 아닐는지.

내가 만난 시골청년 리티엔성

내가 백만진에서 천씨라는 농민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종교를 믿는 농민들은 단지 맹목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곳의 농민들이 결코 신앙의 대상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이 교회당 안에는 대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회당의 분위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중앙에는 강단이 놓여 있고 강단 뒤 벽에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가 달려 있다. 그 위에는 “주를 믿으면 행복과 평안을 누리다” 하는 식의 표어가 크게 걸려져 있었다. 강단의 오른쪽에는 초라한 피아노 한 대가 자리잡고 있다. 교회당 전체는 5백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만만해 들자 하니 긴 의자는 홍콩의 한 교회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벽에는 <글자 깨우치는 반>의 수업 진도표와 학생들의 성적표가 붙여져 있었다.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교회의 <글자 깨우치는 반>에 들어오기를 희망하지만 책상 수가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백만진 기독교회 앞에서 포즈를 취한 크리스천 청년들



스무 살밖에 안 된 이 지역 토박이 청년이 겨울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이는 오후의 교회당 안에서 나같이 기독교에 문외한인 사람을 계몽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12명밖에 받을 수 없단다.

강단의 좌측에 책장 하나가 있는데 책장 안에는 각종 기독교 서적들, 신구약 성경 이외에도 찬송가와 악보들이 꽂혀 있다. 책장은 개가식이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다.

2월 7일 이 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젊은이와 만나 매우 유익한 대화를 한 차례 나누게 되었다. 당시 나는 한 소녀에게 매주 들려지는 예배와 찬양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그 결과 농민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매주 목요일에 이 곳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때 그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7, 8명의 십대 소년들이 함께 있었다. 지도자 격으로 보이는 청년의 키는 크지 않았고 일반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무칙칙한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몸집은 비교적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으나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당신은 기독교 인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나

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종교를 연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사람들로 선하게 되도록 권면하는 것이라면 모두 올바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청년은 그렇지 않다며 나의 말을 바로 잡아 주었다.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게 되기를 권할 뿐 아니라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안식을 준다는 점입니다.”

내가 처음에 짐작하지 못한 것은, <교육과 빈민구제>를 필요로 하는 이 지역에서, 권력을 소유한 지식인들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지식의 척도로 그들의 “낙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역에서, 스무 살밖에 안 된 이 지역 토박이 청년이 겨울의 햇살이 비스듬히 비추이는 오후의 교회당 안에서 나같이 기독교에 문외한인 사람을 계몽하는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리티엔성(黎天生)이 되었다는 점이다.



한 궁벽한 시골 마을 소학교의 수업시간

백만은 빈곤지역이지만 이들의 정신적인 삶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오히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리티엔성은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대개공(四大皆空)」을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단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空”이라고 여깁니다. 천국은 “空”이 아니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이미 자기의 돌아갈 바를 찾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본향을 소유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을 받고 싶어합니다.-설령 부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모두 평안을 얻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했다. 어떤 종교라도 모두 정신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신과 영혼은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지 않는가? 리티엔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정신은 심령의 하나의 경향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모든 사람안에 실존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다만 일종의 사상형태일 뿐이지만 영혼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웠다. 그는 엄연히 훌륭한 한 사람의 “전도사”였던 것이다. 내가 기독교를 분명하게 이해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단지 기독교를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으로는 기독교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오한 체험을 통할 때만이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광주에서 백만으로 돌아

오기 위해 차표 한 장을 샀다고 합시다. 산 표를 계속 손에 쥐고 있거나 하고 백만으로 돌아오는 차에 올라 타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차표를 손에 쥐고서 생각만한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결국 차에 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올라타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백만진에 대해 가졌던 인상과 견해는 리티엔성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 백만은 빈곤지역이지만 리와 같은 이들의 정신적인 삶은 결코 빈곤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다. 오히려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정신적 삶의 최고 경지는 신앙이다. 부유한 지역, 내 주위에 살고 있는 학력이 높은 친구들이나 “현대인”이라 자처하며 살아가는 대도시의 많은 청년들 속에서,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데 말이다.

백만진에 번지는 신앙의 열기

리티엔성이 자신감과 확신에 넘쳐 기독교를 알려주었을 때 나는 그 주위에 있는 소년들이 그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말에 긍정을 표시하면서 듣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농민들이 정부가 원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의 상황에 못지 않게 진지하였다. 사회적 구조에서 보았을 때 소외된 약자의 위치에 놓인 백만진 농민들이 누리는 “정신적인 해방”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교육이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게 된 하나의 원인은 아마 여기서 비롯되었

을지도 모른다.

백만진에 사는 전 주민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정신세계가 모두 풍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정신적 부요를 소유한 푸르른 나무”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순수하다고 했다.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 가는 이 시대, 정신적인 삶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오늘의 대도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백만진 주민들은 자신의 정신적 삶이 있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정신사”가 있으니 이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정신적 삶의 보화는 백만진과 같은 민중들 속에 숨겨져 있으며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버린 대도시에는 오히려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백만진 주민들 가운데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 열기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단지 중국의 빈궁한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현상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궁벽한 곳에 사는 이들의 정신적 요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삶의 가치관과 신념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깨우쳐주고 있었다.

백만진 사람들에게 발견된 기독교 열기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비껴서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경시를 대항하는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亞洲週刊, 94. 5. 22』 중에서
번역/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본선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후원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러 손과 발로 펼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Tel. 594-8038, 533-5497, Fax. 599-2786)

중국신학원은 지금!!

이반석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동신학원 소덕혜(蘇德慧) 부원장이 94년 3월 17일 저녁 7시에 상해에 있는 목은당(沐恩堂)의 청년회 모임에서 “중국 신학원의 개황”이란 제목으로 강연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회 모임이 열리는데 참석자는 100여 명 이상이였다.

소 부원장은 먼저 요한복음 21장, 마태복음 28장 18절~20절까지를 차례로 봉독하고서 이어 중국신학원은 중국교회의 필요에 의해 봉헌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 사회의 대변화와 변혁 속에서도 복음은 첫째 독실한 신도들에 의해, 둘째 신앙기초가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전도되어 왔다고 슬회하면서 중국의 신학교육을 4시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 중국 신학교육의 맹아기

150년 전부터 시작됨.

● 중국 신학교육의 발전기

1900년부터 1949년까지 60개 신학원과 150개의 종파가 존재함.

● 중국 신학교육의 우여곡절의 시기

1950년대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종교는 소멸의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존재를 허용하지 않음. 복음은 정지되어 동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 중국의 신학교육의 재발전기

문화 대혁명이 끝난 후부터 현재까지.

82년 다시 기독교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83년 교육을 하여 종파의 구분 없이 통합되었다.

1949년 중국이 건국되기 이전에는 전국에 7,000명의 전도사와 70만 명의 신도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4,000~5,000명의 전도사와 700만 명(삼자측 통계)의 신도가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농촌의 신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기독교협회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900만 권의 성경을 보급했으며 금년에 200만 권을 재 출판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신학원은 83년 이후 1,7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올해는 200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졸업 예정이므로 대략 1,900명의 신학교육 수료자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도의 숫자에 비례하여 신학원 학생의 규모는 담보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도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전역에는 13개 신학원이 있는데 이외에도 성경반, 훈련반 등이 많다. 남경(南京)에 있는 금릉협화신학원(金陵協和神學院)은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학원으로 전문적인 연구과정이 있다. 서북, 동북, 화중, 화동지역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입학할 수 있는 4년제 본과 과정과 중졸 학력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한 과정도 있다.



화동신학원의 수업광경

신학교 교육의 목적은 교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신학교육을 통해 배양된 사람은 목회자인 동시에 신도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러한 인재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먼저 이들에게 체계적인 신학 지식이 갖춰져야 하고 헌신, 봉사하겠다는 결심과 명확한 사명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교육, 교회관리 교육, 문서 정리·작성 교육, 외국어 교육 및 가장 중요한 항목인 복음전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비 목회자들이 지·덕·체(智·德·體) 이외에도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학원의 교과 과목은 모두 57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0%가 인문·역사·철학 방면의 기초지식을 학습하여 사회 각 계층에 있는 신도들 수준에 적합하도록 문화수준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다.

신학원에서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매일 아침 개인 기도시간이 있고 월·수·금에는 기도모임이 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3~24시간의 강의를 듣는데 이 중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선택과목도 있다. 학생들은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 7시-9시 정도에는 자율학습을 하거나 배드민턴,

탁구 등으로 신체를 단련하기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기도회를 갖는다.

입학 후 실망하는 신학생이 생기기도 하고 간혹 서로 싸우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신학원 자체에 대해 신성하고 신비한 존재로 기대하고 들어오기보다는, 우선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동기를 명확하게 한 연후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학원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신입생을 모집하며 한 번에 20명 정도 받아들인다(20명 이상 초과하여 모집하지는 않는다). 만약 외국인의 신분으로 신학원에 입학하려면, 원칙적으로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유롭게 청강하는 것은 가능하다.

끝으로 소 부원장은, 신도의 증가에 따라 사역자 양성의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이 때에 신학원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신학원의 학생모집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기도를 부탁하면서 신학원 소개를 마쳤다. ◇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와 풍속

1 동북지역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중국 54개 소수민족(조선족 제외)의 문화와 풍습을 연재합니다.

민족의 독특한 풍습과 문화는 그들의 유구한 역사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소수민족의 민족문화의 형성과 발전은 거주하는 자연환경과 독특한 생산방식, 생활방식 및 그들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이해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만족 [滿族 Manzu]

흑룡강의 정수를 타고난 만족은 휘황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수렵민족이다.

17세기 청조를 세우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한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그 영향을 받아 다방면에서 한족화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풍속습관이 대부분 한화(漢化)되었다.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만족은 문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민족 중의 하나로 저명한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해 내었다. 수렵민족으로 남녀 모두 활 쏘기에 능하며 어린이들도 7세 정도가 되면 말타기와 활 쏘는 훈련을 받는다.

혼인은 일부일처제이며 결정권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 통상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16, 17세가 되면 배우자를 결정한다. 혼례를 올릴 때 신부는 하루종일 방의 남쪽 구들에 앉아 있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을 “좌복(坐福)”이라 한다. 결혼생활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음식은 밀을 위주로 한다. 찹쌀 가루를 제분하여 만든 각종 떡과 만두 등은 중국 전역에서 유명하다. 돼지를 가축으로 길러 식용으로 애용하여 순대, 돼지고기, 편육 등을 즐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개를 존중하는 습관이 있어 개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

아이를 요람에서 키우는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과거 만주인은 남녀 모두 말을 타고 나가서 수렵에 종사했으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데리고 나가 돌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작나무 껍질로 요람을 만들어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작은 끈으로 떨어지지 않게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아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였다. 아기 엄마는 안심하고 사냥을 하다가 젖을 먹일 때가 되면 와서 요람을 내려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 이후 정착하여 거주하면 서도 요람은 여전히 민족의 풍습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아이가 요람에서 오래 지낼수록 장수하고 건강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가정은 조상 대대로 요람을 물려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새 요람으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아이를 며칠 동안 낡은 요람에서 재움으로써 “장수”를 물려받다고 여긴다.

이들의 주거형태는 전통적으로 3칸의 상방(廂房)으로 되어 있다. 집 밖에는 나무벽으로 뜰을 만들어 놓았다. 대문은 남쪽을 향해 나 있고 원 내에는 영벽(影壁:가리개)이 있다.

방은 서·중·동 3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쪽 칸에는 남·서·북 3면에 구들이 있다. 서쪽 벽은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므로 손님이 절대 앉을 수 없다. 북쪽 구들은 어른이 앉는 곳이고 남쪽은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하인이 앉는 곳이다. 실내에는 남쪽과 서쪽으로 창이 나 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서쪽이나 북쪽 마루에 안치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만약 식구 중의 한 사람이 임종하려 하면 반드시 남쪽 구들로 옮겨놓았다가, 죽으면 관을 반드시 창으로 내간다. 문은 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므로 시

체를 문으로 내가는 것을 불길하다고 여긴다.

만족의 전통 복식에 의하면, 남자는 앞머리를 밀어 번발을 늘어뜨리고 옷은 馬蹄袖袍掛(마고자)를 입고 양쪽에는 개찰을 차고 허리를 띠로 묶는다. 여자는 머리를 올려 육각모를 쓰고 귀거리를 차고 넓은 두루마기를 입으며 비단으로 만든 신발을 신는다.

다위르족 [達斡爾族 Daur]

중국 역사상 요나라(BC 916~1125)를 건국했던 거란족의 후손인 다위르족은 북방의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농업 문화를 지닌 민족이다.

농업민족이긴 하지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전해져 내려 온다. 또한 피리를 불어서 사슴을 활로 사냥하는 풍습도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 사냥과 활쏘기 대회가 열린다.

씨족 외혼제의 풍습을 고수하며 동성(同姓)끼리의 통혼은 금지한다. 과거에는 데릴사위 제도가 보편적이었는데, 이 제도에 의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씨족을 계승하며 사위는 단지 처가집에서 노동을 담당할 뿐 여자 집안의 재산을 계승할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이혼은 불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다위르족 사회에서 이혼은 매우 드물다.

협동심이 강하고 상부상조하여 근로하는 민족이다. 아들과

남자 친척들은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할아버, 과부, 고아, 늙어 자식이 없는 외로운 이들이나 병들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부양할 책임을 갖는다. 다위르족은 예의를 무척 중시하는 민족으로 이들의 예의의 핵심은 “경로(敬老)”이다. 사람들은 어른을 존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므로 이들 사회에서 노인과 웃어른들은 높은 지위를 누리고 훌륭한 대우를 받는다.

음식은 채식을 주로 한다. 기장을 주식으로 하고 우유를 넣은 메밀 국수와 메밀 떡을 먹는다. 육식은 돼지고기를 주로 먹고 소, 양, 닭, 물고기 등도 즐겨 먹는다.

다위르족의 거주지는 주로 산과 물을 옆에 낀 지역으로 뜰이 매우 가지런하다. 방은 ‘介’자 형태의 초가집으로 벽과 천장에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다. 실내에는 붉은색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울타리가 쳐져 있다.

남자들은 여름에 무명옷을 입고 겨울에 긴 두루마기를 입으며, 흰 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밀짚모자를 쓴다.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는다.

여자들은 긴 두루마기를 입는데 여름에는 흰 무명옷을 입고 꽃신을 신는다. 겨울에는 가죽신을 신는다.

오원크족 [鄂溫克族 Ewenki]

흑룡강성 일대의 삼림 지역에

사는 오원크족은 유목민족으로, 6, 7세가 되면 남녀를 물론하고 모두 부모를 도와 방목에 나선다. 각 종류의 가축의 습성, 기마, 순록방목 등의 뛰어난 기술은 원근각처에 유명하다.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이들은 대다수가 씨족외혼을 하는데 주로 다워르족, 어룬춘족, 몽고족 등과 통혼한다. 이전에 오원크족의 혼인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결정되었고 조혼(早婚)이 보편적이었다.

이들은 부지런하고 용감하며 순박, 솔직, 쾌활한 성품의 민족이다. 수렵민과 유목민들은 삼

은, 유목지역에서는 손님에게 유차(乳茶)로 접대하고 수렵지역에서는 순록의 가슴고기나 사슴의 젖을 내놓는 풍습이 있다.

예의를 무척 따지고 장유유서의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이다. 젊은이는 어른을 만나면



라자(撮羅子)'라고 불리우는 주택에서 거주한다. 활라자는 자작나무나 버드나무 껍질로 만든 원추형 골격으로 만든 집이다. 겨울에는 동물 가죽으로, 여름에는 나무 껍질로 만드는데 매우 견고하고 방수, 방열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를 만든다. 그릇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자, 심지어는 배까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다. 여자들은 7, 8세가 되면 나무껍질을 재료로 조각, 압인(押印), 회화(繪畵), 병풍 등의 수공예품, 장식품 등을 만든다.

어룬춘족 [鄂倫春族 Oulunchun]

중국의 동북부 내몽고 자치주와 흑룡강성에 사는 어룬춘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민족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불안정한 수렵생활을 영위해 왔고 거주 지역의 풍부한 자연 환경에 의지하여 생존해 왔다.

혼인제도는 일부일처제이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며 씨족 내혼은 엄격히 금지되어 다른 씨족과 통혼한다.

부계혈족으로 구성된 어룬춘족 사회는 매 씨족마다 공동의 조상신을 숭배하며 공동의 묘지와 관습법을 갖고 있다. 씨족대회는 전체 씨족 중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서 일체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대회의 구성원들은 선거로 선출되며 족속 중에



목축민족인 오원크족에게 순록은 매우 유용한 가축이다. 식용, 의복의 재료뿐 아니라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림과 초원에 창고를 지어놓고 음식물이나 공구를 저장하는 풍습이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도중에 양식이 떨어지면 창고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다.

손님 대접을 즐기는 오원크족

즉시 담배를 권하고 무릎을 꿇고 공손히 몸을 구부려 인사함으로써 문안한다. 말에 타고 있다면 즉시 말에서 내려와 인사를 해야 한다.

과거 오원크족은 천막으로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했는데, '활

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으며 총명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어른춘족은 경로자애(敬老慈愛)의 아름다운 미풍이 있다. 노인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상좌(上座)로 초청받는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곤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미덕이 중시되기 때문에, 사냥꾼은 포획한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아나 과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갖다 준다. 다른 가정에 큰 일이 생기면 씨족 전체 사회가 힘을 모아 돕는다.

음식은 육식을 위주로 하며 말젓으로 만든 술을 좋아한다. 생활거주 지역의 환경 변화에 의해 포획하는 동물이 점점 줄어들어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지금은 야채를 위주로 식사를 한다.

사인주(斜人柱)라고 불리우는 반개우산형(半開雨傘型)의 장막에서 거주한다. 여름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덮고 겨울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덮는다. 실내 한 가운데 불을 피워 취사와 난방을 한다.

여자들은 사인주 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집 밖에 작은 집을 임시로 지어 아이를 낳은 후에야 사인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때문에 종종 갓난아이가 밖에서 얼어 죽는 경우도 있다.

의복은 주로 동물가죽을 이용한다. 여자들은 천연 그대로의

동물가죽으로 만들어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의복을 제조하는데 익숙하다. 견직물이 들어온 후부터는 어른춘족도 직물로 만든 옷을 입는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사냥이나 어획한 물고기와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독특한 풍장(風葬)의 습관이 있다. 땅을 파기 힘든 겨울이나 들 밖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지낼 때는 대부분 풍장을 치른다. 빙설이나 강물로 시체를 깨끗이 씻고 새 수의로 갈아 입혀 염한 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관에 넣는다. 생전에 고인이 사용한 사냥물들과 사냥용구를 관 속에 집어 넣기도 한다. 가까운 데 있는 큰 홍송(紅松) 두세 그루를 골라 나무 사이에 큰 대들보를 걸쳐 관을 그 위에 안치해 놓는

다.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비바람에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 위에 작은 차양을 덮는다. 몇 년이 지나 관을 다시 내려놓고 염하여 다시 매장한다.

어른춘족에게 약혼은 합법적 의미의 혼인이나 별 다를 바 없다. 남자 집안의 어른이 마음에 드는 규수를 발견하면 곧 사람을 여자측에 보내어 중매를 선다. 양가의 동의하에 결혼이 결정되면 길일을 택하여 약혼식 날짜를 잡는다. 약혼일에 중매인은 예물을 갖고 신랑의 어머니와 숙모를 모시고 신부 집으로 가서 약혼식을 치른 후 신랑, 신부가 둘다 성인이라면 그 날 밤 같이 한 방에 들 수 있다.

동침하기 전에 두 사람은 죽한 그릇을 마시는 풍습이 있는



어른춘족의 독특한 장례인 풍장(風葬). 높은 나무 위에 관을 걸쳐놓는다.

데 이것은 부부의 감정 융합을 의미한다. 약혼날짜로부터 동거하는 기간은 대개 20일 정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혼례를 지낼 때까지 기다린다. 혼례를 올릴 때 신부가 이미 임신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허쩌족 [赫哲族 Hezhe]

허쩌족은 퉁구스계 민족이며 흑룡강성 동북부의 삼강평원, 송화강, 흑룡강, 우수리강 등 매우 추운 지역에 거주한다. 이들은 북방에서 유일하게 어업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다.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이나 일부지역에는 아직도 일부다처제의 풍습이 남아 있다. 동일씨족간에는 결혼할 수 없으며 과부의 재혼도 제한을 받는다.

어업을 주로 하기에 “포어패왕(捕魚霸王)”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겨울에 강이 얼면 “좌빙고(坐水庫)”를 타고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고기를 잡는다. 개썰매를 교통수단으로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허쩌족은 “어피부(魚皮部)” 혹은 “사견부(使犬部)”라 불리우기도 한다.

이들은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주식으로 한다. 즉석에서 날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한다. 갓 잡은 고기를 가느다란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다가 반 정도 익었을 때 비늘을 제거하고 조각조각 잘라서 각종 양념에 찍어 먹는다. 겨울에 얼음을 뚫고

고기를 낚으면 몇 분 후 딱딱하게 어는데 이것을 칼로 얇게 썰어 언 채로 먹기도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진귀한 음식이다.

예의를 존중하는 허쩌족은 노인을 경외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갖고 있다. 어른이 의출했다가 돌아오면 나이의 순서에 따라 문안하며 예의를 표시한다. 어른은 어린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춤으로써 친밀과 애정을 표시한다.

먼곳에서 손님이 오면 허리에서 칼을 뽑아 팔딱팔딱 뛰는 고기를 한 마리 골라 칼로 토막을 내어 손님 앞에 드린다. 손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칼을 쾀어 고기를 먹으면 곧 친구가 되어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 이런 풍습을 “살생어경귀객(殺生魚敬貴客)”이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물고기 가죽으로 의복을 만들어 입어왔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들 옷깃이 넓고 긴 두루마기에 짧은 윗도리 조끼를 입는다. 이후 만족의 영향을 받아 어피(魚皮) 두루마기는 치빠오(旗袍)의 모양과 비슷해졌다. 근 2, 3백 년 이래 면직물과 비단이 허쩌족 가운데 들어와 현재는 보편적으로 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남녀 모두 사냥하러 갈 때만 가죽옷을 입는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머리를 한 갈래로 땀고 결혼한 여자는 두 갈래로 땀고 다닌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귀에 큰 귀걸이

를 달고 다니고 젊은 여자들은 귀를 뚫어 장식을 하고 다닌다거나 팔찌를 즐겨 착용한다. 허쩌족 여인들의 자수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회족 [回族 Hui]

회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고루 거주하는 민족이다. 초기에는 상업에 종사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한다.

회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종교생활은 그들 생활의 각 부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매년 9월(이슬람력)은 회족, 즉 무슬림들의 축제 기간인 “재월(齋月)”기간이다. 이 달은 회족에게 있어 가장 신성한 달이다. 9월 초하루 저녁,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초승달이 났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초승달이 떠오르면 다음 날 곧 “재월” 행사로 들어간다. 달이 뜨면 사람들은 기뻐하며 북과 징을 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서로에게 “달이 떠올랐음”을 알린다. “재월” 기간에는 매일 해 뜰기 전에 밥을 먹고 그 날 저녁 해지기 전까지 일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재월 행사의 의미는 1달 동안 가난하고 청렴한 생활과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고 고난의 훈련을 함으로써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다. “재월”이 끝나는 날 융숭한 의식이 거행된다. 이것을 “開齋

節”이라고 한다. 이날 아침 사람들은 전신을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은 후에 청진사(회교사당)로 가서 의식에 참여한다. 예배의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서쪽을 향해 절하고 기도를 드린다. 의식이 끝나면 인도가 드디어 “재월”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신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친지, 이웃에게 유향(油香)을 선물한다.

청진사는 회족의 종교중심인 동시에 문화교육 중심이다. 전통적으로 회족들은 경당(經堂)에서의 교육만을 중시할 뿐 한(漢)문화는 거부한다. 이들이 지

고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쓴다는 것이다.

회족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동물의 피나 저절로 죽은 동물도 먹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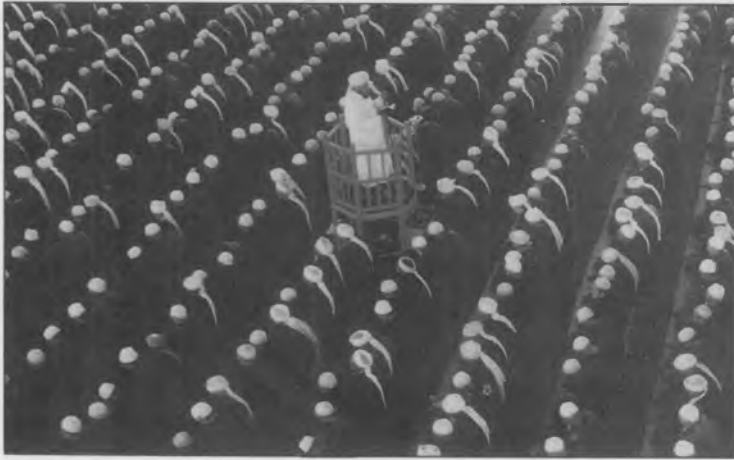
차를 즐겨 마신다. 청결위생 관념이 철저한 이들은 매 주마일(主麻日; 금요일)에는 온 몸을 씻는 ‘대정(大淨)’을 행하고, 매일 매일 여러 차례 입, 코, 눈, 손, 얼굴, 발 등을 씻는 ‘소정(小淨)’을 행한다.

동상족 [東鄉族 Dongxiang]

동상족은 12세기 이래, 일부의 몽고족과 색목인(色目人)들의 융합으로 형성된 민족이다. 농



청진사(清真寺) 안에서 알라에게 예배드리는 회족들



식을 경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회족 문화가 낙후하게 된 주원인이다.

회족의 복식은 기본적으로 한족과 유사하나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하나는 남자 노인들은 검정색이나 회색의 긴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과 남자들은 호모(號帽; 회족의 전통 모자)를 쓰

업을 위주로 하며 상업에도 능하다. 이슬람교를 신봉한다.

동상족은 일부일처제를 행하며 가족은 통상적으로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지지만 3,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도 존재한다. 이전에는 혼인이 부모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 자녀가 7, 8세가 되면 부모의 결정으로

약혼하고 15, 6세가 되면 혼례를 거행하였으나, 지금은 사회상황이 많이 변하여 부모가 결정하는 혼인에서 벗어나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하여 결혼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상생활 중에 예의를 중시한다. 어른을 만나면 젊은이가 먼저 어른의 안부를 묻고 어른이 이에 답례한다.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며 식사할 때 노인이 먹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음식을 들 수 없다.

동상족은 매우 친절하게 손님을 접대한다. 손님이 오면 일어나서 윗목으로 안내하여 가장 좋은 차와 음식으로 대접한다. 주인은 바로 그 곁에서 차와 음식을 나를 뿐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손님을 존중하는 예의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보리, 기장, 옥수수, 콩류, 감자 등을 주식으로 하고 쇠고기, 양, 닭, 오리, 생선 등을 먹는데 품행이 점잖은 어른이 도살하여 피를 다 뺀 후에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동향인은 특별히 차를 즐겨 마시지만 담배나 술은 꺼린다.

전통적인 부녀자들의 옷차림은 등근 목둘레, 커다란 옷깃, 넓은 소매에 자수가 놓아진 옷이다. 경축일 등에는 자수가 놓아진 치마를 입고, 두건을 쓰고 은(銀)장식물들을 주렁주렁 단다. 남자의 전통적인 복장은 넓고 큰 두루마기인데 허리를 띠

로 묶고 옆에 칼을 찬다. 몽고복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근래 들어 동향인의 복식은 점점 그 지역의 한족과 회족의 복식에 유사해져가지만 뚜렷한 구분은 머리에 쓰는 두건에서 볼 수 있다. 남자들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號帽(챙이 없는 작은 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실이나 비단으로 만들어진 수건을 머리에 덮는다. 나이 어린 소녀들은 녹색, 중년 여인들은 검정색, 노인들은 흰색 수건을 쓴다.

동상족의 남자들은 장발을 늘어뜨리지 않으며 수염을 기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몽고족 [蒙古族 Mongolian]

거칠고 광대한 초원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이들은 거칠고 호방한 성격을 지니며 풍부하고 매력적인 초원문화를 형성하였다.

몽고족의 음식문화는 “백식(白食)”과 “홍식(紅食)”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한다. 백식은 유제품(乳製品)을 말하고 홍식은 육류를 말한다. 백식은 몽고어로 “사간이덕(查干伊德)”, 즉 순결하고 고상한 음식이라는 뜻이다. 귀한 손님이 오면 통상적으로 반드시 백식을 접대한다.

설이나 각종 경축일 잔치에도 한 쟁반 가득 순백색의 “내두부(奶豆腐)”나 “내피자(奶皮子)”를 손님에게 주어 맛보게 한다. 가족이나 친지 중의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날 때도 백식을 접대하여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다. 아들이나 손자 등의 생일 혹은

결혼 예식 때 집안의 웃어른이 신선한 우유를 배품으로써 축복을 기원한다.

홍식(紅食)은 몽고어로 “오란이덕(烏蘭伊德)”이라고 하는데 ‘붉은 음식’이라는 뜻이다.

홍식의 원료는 주로 소, 양 또는 낙타고기 등이다. 손으로 뜯어 먹든지 아니면 식탁에서 양을 통째로 구워서 먹기도 한다. 처녀가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삶은 양의 가슴고기를 먹음으로써 가족들과의 이별을 나타낸다.

몽고파오는 유목민족의 몽고족의 독특한 거주형식이다. 원형의 정점, 꼭대기에 구멍이 뚫려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하였다. 몽고파오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종류가 있다. 반농 반목 지역은 대부분 토목구조로 된 고정식 파오에서 거주하는데 곁에는 갈대를 엮어 두른다. 유목 지역은 대부분 이동식 파오인데 이사갈 때는 파오를 분리하여 살림과 함께 마차의 상자에 집어넣는다. 파오의 외부는 옹단으로 두르고 그 위에 다시 흰색 천을 덮는다. 내부에는 몇 겹의 카펫을 깔고 그 위에 무늬가 화려한 옹단을 깐다.

투족 [土族 Tu]

13세기 초 징기스칸의 서역정벌 때 몽고 대장군 일리특(日利特)의 군대가 투족의 조상 토곡휘가 살고 있던 청해성 동부 지역에 머물면서 오늘날의 투족을 이루었다. 이들은 문화, 종교 등

많은 면에서 몽고족과 유사하다. 종교는 몽고족과 마찬가지로 라마교를 신봉한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를 갖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데릴사위 제도를 갖고 있다. 본 민족과의 통혼을 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족(藏族)이나 한족(漢族)과의 통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때는 두 가지 면에서 형식의 제한을 받는다. 하나는 두족 남자가 외족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족 남자를 데릴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경우 이름은 개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족의 신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소위 '대천두(戴天頭)'라는 풍습이 유행했었다. 이 풍습에 따르면 13, 14세가 되는 여자아이가 부모의 결정에 따라 설날 그믐 밤에 하늘과 혼인 가약을 맺은 후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도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는다. 임신하면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

혼례는 가무형식으로 진행된다. 중매인이 예물을 갖고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집 옆에 신부의 친구와 친척들이 와서 예물을 받고 문 옆에서 서로 대구로 노래를 부른다. 대문을 들어서면 다시 대창(對唱)이 시작된다. 대화의 응답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한쪽에서 반문하면 상대방은 그에 응답하여 대답하고 다시 반문한다. 중매인은 화려

한 수식의 가사로 응답한다.

투족은 화아(花兒)라는 산가(山歌)를 비롯하여 서사시, 전설, 우언, 민요 등 매우 풍부한 구비 문학을 갖추고 있다. 남녀 노소 모두 산가를 즐겨 부르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의 매우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무용에 능숙한데, 주요 무용으로는 안소무(安昭舞)와 혼례무(婚禮舞)가 있다.

음식은 기장을 주식으로 하며 그 다음으로 밀을 즐겨 먹는다. 평상시에 더운물에 삶아 발효시킨 채소를 많이 먹고 생야채는 비교적 잘 먹지 않는다. 육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유차를 즐겨 마시고 양젖기름으로 볶은 국수를 즐겨 먹는다. 남자들은 술을 좋아한다.

농촌은 일반적으로 계곡에 모여 있으며 산골짜기의 물이 가까운 곳에 집을 짓는다. 각 가정마다 작은 정원이 있고 뜰 안에는 가축을 키우는 우리가 있다. 평평한 모양의 주택은 대들보와 창문이 모두 소, 양의 모습을 상징하는 장식이나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은 모양의 도안이 조각되어 있다.

남녀 모두 화려한 자수가 새겨지고 목둘레가 넓은 옷옷을 입는다. 남자는 흰 두루마기, 혹은 흰색의 짧은 윗도리를 입고 곁에 검정색이나 자홍색의 조끼를 입으며 밑에는 긴 바지를 입는다.

겨울에는 것이 없고 옷솜이 비스듬하고 털이 반들반들한 가

죽옷을 입은 후에 허리띠로 묶고 장화를 신는다. 여자들은 비스듬한 옷솜의 상의를 입는데 빨간색, 남색, 자주색, 황색, 흑색 5가지 색의 천을 두른 소매가 달려 있다. 곁에는 검정색의 조끼와 치마, 바지를 입는다. 머리에는 평평한 털 모자를 쓰고 모자 챙에 꽃으로 테를 두른다.

살라족 [撒拉族 Salar]

유유히 흐르는 황하 유역의 기름진 땅에서 풍부한 농작물과 각종 과일, 채소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살라족에게는 남국의 향기가 짙게 풍긴다. 이들은 비옥한 땅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탄생시켰다.

살라족 사회는 부계혈족을 기초로 형성된 사회이기에 가정의 모든 주권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사회조직에는 소위 '아격내(阿格乃; 형제라는 뜻)와 '공목산(孔木散; 하나의 가문, 문벌이라는 의미의 원친혈족조직)'라는 조직이 존재한다. 몇 가정 안에 하나의 아격내가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아격내 안에는 하나의 공목산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하나의 공목산에 하나의 공동묘지가 있다.

그들은 생산활동과 생활면에서 상부상조하여 대외적으로 어떤 중대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공동협의하여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살라족은 일부일처제 사회이지만 과거에는 일부다처제 사회였다. 남자들은 아내와 별거하



창문, 대들보, 기둥 등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기는 살라족 남자들

면 곧 이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으며 조혼과 씨족외혼이 성행하고 있다.

살라족의 남자는 7, 8세가 되면 할례를 받고 여자 아이는 8, 9세가 되면 머리에 수건을 쓴다.

성년이 되면 남녀 모두 종교적 임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며 또한 가장은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물색하기 시작한다. 15, 16세가 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

살라족은 손님대접을 매우 좋아하고 예의를 존중한다. 친한 친구를 만나면 상호 안부를 묻고 사회적으로 노인들은 매우 존경을 받는다. 친족들 가운데 시아버지는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남녀관계는 비교적 엄격하여 남녀간에 만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 한다.

밀을 주식으로 하며 기장, 메밀, 감자와 각종 채소를 부식으로 한다. 육식으로는 소, 양, 닭

등을 즐겨 먹지만 돼지고기, 당나귀 고기, 말고기와 죽은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친족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며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인 아적내와 공목산은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한다. 가옥은 나무와 진흙을 엮어 만든 평면식 건축양식이고, 가정의 뜰 안에는 각종 식물과 화분을 기른다. 동부의 맹달산지역의 가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위층은 침실이고 아래층은 주방이다. 가옥 내의 벽에는 아라비아 문자의 서화(書畵)가 붙어 있다.

살라족의 문학의 주류는 고사, 신화, 전설, 우언 속담과 유모어 등을 포함하는 구두문학(口頭文學)이다. 살라곡(撒羅曲) 연석곡(宴席曲)과 화아(花兒) 등 풍성한 민가가 있는데, 살라곡은 본 민족의 서정민가이고, 연석곡은 결혼식 때 부르는 전통가곡이다. 화아는 한어로 부

르는 산가(山歌)이다. 무용은 낙타무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춤은 일반적으로 결혼 피로연 때 추게 된다.

남녀 모두 자수와 전지(剪紙; 종이를 오려 여러 가지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종이공예)에 능숙하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베개, 신발, 양말 등에 모두 아름다운 꽃과 풀이 수놓아져 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벌목, 도금, 석탄캐기 등 대체로 강도가 센 노동을 하지만 이 외에도 뛰어난 목각기술을 갖고 있다. 창문, 대들보, 기둥 등에 민족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다.

남자는 흰색 또는 검은색의 챙 없는 작은 모자를 쓰고 곁에는 검정색 조끼를 입고 붉은색 띠로 허리를 묶는다. 노인들은 긴 두루마기를 입는데 겨울에는 털이 반들반들한 양털 저고리나 거칠게 짠 털옷을 입고 소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는다. 부녀자들은 울긋불긋한 원색의 큰 소매 옷을 입고 곁에 검정색 조끼를 덧입는다. 이마나 손등에 남색의 매화모양 문신을 새기며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머리수건을 쓴다.

위꾸족 [裕固族 Yugu]

14세기에 지금의 거주지인 감숙성 하서주랑 중부로 이주하여 온 위꾸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목에 종사해 왔는데 농업과 수렵을 겸하여 생활하며, 라마

교를 신봉한다.

위꾸족 가정은 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핵가족체제이다. 결혼한 자녀는 대부분 다른 천막으로 분가하여 생활한다. 그러나 몇 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도 존재한다.

혼인은 일부일처제이고 동성동족간에는 통혼을 엄금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의 결정 아래 이루어졌다. 이들의 혼인은 장방대두혼(帳房戴頭婚)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자가 성년이 되어 머리를 틀어올리는 의식을 갖춘 후에 신랑 집의 한쪽에서 다른 천막을 치고 살림을 차린다는 의미이다. 1949년 이후 청년남녀들은 혼인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또한 다른 종족들과도 통혼이 가능해졌다.

위꾸족은 본래 성(姓)이 없고 이름만 있었는데, 후에 부락 혹은 씨족의 명칭으로부터 성씨가 파생되어 나왔다. 위꾸족은 이름 부르는 것을 꺼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직접 불러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도 라마(喇嘛)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기시된다.

위꾸족은 말타기와 낙타타기에 모두 능하며, 수렵을 즐기는 민족이다. 그들은 또한 가무에도 뛰어나 각종 회합이나 모임에는 노래로써 감정을 표현한다. 이 외에도 신화와 전설, 우언, 민가, 서사시 등을 포함하는 다채롭고 풍성한 구두문학이 있다.

위꾸족은 각양각색의 공예 미술품 제조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 가방, 양탄자, 말고삐 등의 편직기술이 뛰어나다. 부녀자들의 자수솜씨는 유명한데 자수 도안이 생동감이 넘치고 특색 있는 개성미를 갖추고 있다. 위꾸족의 양탄자는 매우 유명하다. 부녀자들은 소, 양의 털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무늬의 양탄자를 짠다.

쌀과 밀, 잡곡 등을 주식으로 하며 부식으로 우유와 육류를 먹고, 하루에 세 차례 볶은 국수를 넣은 우유차를 마신다. 물고기, 뾰족한 부리와 둥근 발굽을 가진 동물(말, 노새 등)을 먹지 않는다. 담배와 술을 무척 즐긴다.

여름에는 지대가 비교적 높은 초원에서 방목을 행하기 때문에 텐트(帳篷)에서 거주한다.

겨울에는 지대가 비교적 낮은 초원에서 방목을 하므로 나무로 뼈대를 만든 집에서 산다.

비록 이들의 의복이 장족(藏族)과 몽고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또 민족 고유의 독특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옷깃이 높고 옷소매가 넓은 두루마기를 입고 붉은 색이나 남색의 허리띠로 묶는다. 여름과 가을에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털모자나 예모(禮帽)를 쓴다. 겨울에는 남녀 모두 호피로 만든 풍설모(風雪帽)를 쓰고 긴 장화를 신는다.

부녀자들도 옷깃이 높은 긴 두루마기를 입고 붉은색 또는

막 결혼한 위꾸족 신랑, 신부





머릿수건을 쓰고 나들이 가는 위꾸족 여인들의 모습

녹색, 자색(紫色)의 허리띠로 묶는다. 처녀들은 머리를 5~7갈래로 땋고 다니며 유부녀들은 3갈래로 머리를 땋는다.

■빠오안족 [保安族 Baoan]

칭해성 일대에 거주하는 빠오안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이다.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며 일부는 수공업과 부업을 겸하여 생활하고 있다.

빠오안족은 이슬람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생활습관은 모두 이슬람교 계율의 구속을 받는다.

비이슬람권 민족과는 통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종파의 사람들과의 결혼도 허락되지 않는다. 조혼의 풍습이 있어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바로 배우자를 결정하여 결혼할 수 있다.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허락뿐 아니라 교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혼례에 필요한 혼수의 규모가 무척 크다. 남자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물을 보내야만 혼인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부장제의 대가정을 이루어 3,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재산과 결혼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빠오안족은 레슬링과 말타기, 창 던지기 등에 뛰어난 점에서 몽고족과 유사하다. 음식은 쌀과 면을 주식으로 하고 양고기와 쇠고기를 먹는다.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는 금기된 음식이라 먹지 않는다.

빠오안족은 대체로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이들이 주거하는 집은 흙과 나무로 엮은 낮고 평평한 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집과 뜰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방에서 앉는 자리는 질서가

있다.

남자들은 대부분 호모를 쓰고 흰 윗도리를 입으며 그 위에 청색 조끼를 걸쳐 입는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예모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띠를 매고 칼을 찬다. 발에는 긴 말가죽 장화를 신는다. 자홍색, 녹색 등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털가죽 바지를 즐겨 입고 머릿 수건을 쓴다. 연령에 따라 다른 색의 머릿 수건을 쓴다. 처녀들은 녹색, 젊은 부녀자들은 검정색, 나이 많은 부인들은 흰색을 쓴다.

참고문헌

- 『中國少數民族風情錄』
-中國青年出版社, 1988
- 『中國少數民族風情』
-香港 和平圖書有限公司, 1991
- 『誰來關心我-中國少數民族概覽』
-世界華人福音事工聯絡中心, 1992

번역·정리/권수영·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간사

중국 천진시의 주요대학



박명수

남개대학 (南開大學) Nankai University

학교소개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인 남개(Nankai)대학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경제학, 법학 및 예술 등 22개 학부에 51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 경제학원, 성인교육학원과 14개의 연구소를 부설하고 있는 중국최대 대학의 하나이다.

남개대학은 유명한 교육자 엄범손(嚴范孫)과 장백령(張伯箒)에 의해 1919년에 설립 되었다. 처음에는 문과, 이과, 상과 등 3개의 학과를 개설한 4년제의 대학으로 설립된 남개대학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경제학, 법학 및 예술 등 22개 학부에 14개 연구소, 51개의 학과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주은래(周恩來)가 이 학교의 제1기 학생으로 문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유명하다.

1937년 7월 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공군의 폭격을 당한 남개대학은 수산당(秀山堂), 도서관, 제1, 2기숙사 등이 파괴되는 등 학교시설의 2/3가 파괴되었다.

항일전쟁이 격화되면서 한 달 후인 8월

장사(長沙)로 이전하면서 남개대학은 북경대학, 청화대학과 함께 장사임시대학(長沙臨時大學)으로 개편되었다.

항일전쟁의 종료 이후 1946년 남개대학은 천진으로 복귀하였다. 이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과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남개대학과 북경대학 등 중국의 주요 대학들이 연합하여 반국민당운동을 전래하면서 이 학교는 학생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1949년 1월 천진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해방되면서부터 남개대학은 새로운 발전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인 주은래 수상과 모택동 공산당 서기장이 3, 4차례에 걸쳐 이 학교를 다녀가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교사를 신축하는 등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52년 중국대학의 조정방침에 따라 남개대학은 문리과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14개 학부에 3개의 전문학과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이 학교 역시 다른 대학들과 같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간 교수와 학연구 활동이 정지 되었으며, 5년 간 학생모집 및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1976년 7월 발생한 당산(唐山) 대

지진으로 인해 교사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아픔을 당해야 했다.

현재 210만여 권의 장서가 소장되어있는 이 학교의 도서관에는 중국어 도서 170만 권을 비롯하여 잡지 25만 종, 50년 이상 발행된 계간지 60여 종 등이 있다.

또한 30만 평에 이르는 캠퍼스에 새로이 신축된 경제학원, 신도서관, 신화학빌딩, 체육관, 동방예술관 등 교육 연구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남개대학은 중국 최대 대학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History.
Sociology
Philosophy
Law

Economics
Management
International Economics
Finance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s
Touris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riental Arts
Mathematics
Physics
Computer and System Science
Electronics
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Biology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Basic Mathematics
Probability and Mathematical Statistics
Theoretical Physics
Solid State Physics
Optical Instruments



중국의 대학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자보. 무도회(舞會) 등 각종 모임을 알리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Physics of Semiconductor and
Semiconductor Devices
Organic Chemistry
Inorganic Chemistry
Physical Chemistry
Polymer Chemistry
Environmental Chemistry
Entomology
Dong-Tai Languages and Literatures
History of Chinese Literary Criticism
Ancient Chinese History
History of Specific Geographical Areas
and Countries in the World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History
History of Historiography
History of Chinese Economy
World Economy
Population Economics
Political Economy
International Finance
Enterprise Management
Logic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Dialectical Materialism and Historical
Materialism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南開區 衛津路
94號
南開大學 外事處

천진외국어학원 (天津外國語學院)
Tianjin foreign languages
Institute

학교소개

설립년도 : 1964년
재학생수 : 1,100여 명
교직원수 : 300여 명(교수, 부교수 46명 포함)
소속기관 : 천진시 고등교육국

개설학과

학부(Departments)

Dept. of English
Dept. of Japanese
Dept. of Other Western Languages
Dept. of Chinese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English
Japanese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河西區 馬場道
137號
天津外國語學院 外事處

천진재경학원 (天津財經學院)
Tianjin College of Finance and
Economics

학교소개

천진시(天津市)의 지도 감독을 받는 종합적인 경제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천진재경학원은 1958년 남개대학(南開大學)의 경제관련학부와 천진재경학교(天津財經學校) 그리고 천진외무간부학교(天津外貿幹部學校)를 통합하여 설립한 하북재경학원(河北財經學院)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7년 천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천진시 직속의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교명을 천진재경학원(天津財經學院)으로 개칭하였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기간 중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이 학교는 1979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였다.

특히, 1983년 영국의 맨체스터 경제대학과 교환교수 파견 등 학술 교류 협력을, 1984년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경영대학



대학의 수업 광경

과 합동으로 <중국,스웨덴 경영관리 연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86년에는 미국과 영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국제무역 연수반과 영어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교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근분(勤奮), 구실(求實), 단결(團結), 창신(創新)>을 교훈(學風)으로 삼고 고급 재정경영 관리,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현재 8개 학과에 12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정부교수 110여 명을 포함 5백60여명의 교수진과 8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Postgraduate Programs)

- International Business & Trade
- Banking
- Industrial Management
- Statistics
- Public Finance
- Accounting
- Auditing
- Business Economics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Accounting
- Statistics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河西區 珠江道
25號
天津財經學院 外事處

천진대학 (天津大學)
Tianjin University

학교소개

국가교육위원회 직속의 전국 중점대학의 하나인 천진대학은 공과중심에 이과, 문과, 경영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대학이다.

국가에서 천진에 설립한 최초의 신식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학교의 역사는 1895년 10월에 설립된 천진북양서학학당(天津北洋西學學堂)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년제의 대학으로 설립된 이 학교에는 당시 토목공정, 기계공정, 채광야금, 법과, 외국어, 수학, 지리, 역사 등 8개 학과가 개설되었다.

1903년 북양대학당(北洋大學堂)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청나라가 몰락한 1912년에는 북양대학학교로 개편되면서 중국교육부의 직속대학이 되었다. 또한 항일전쟁기간 중에는 북평대학(北平大學), 북평사범대학 등과 함께 서안(西安)으로 이전하면서 서북연합대학(西北聯合大學)으로 개편되었으며, 종전후인 1946년 11월 지금의 천진으로 복귀하였다.

1952년 정부의 대학조정 정책에 따라 합비(合肥)공과대학을 병합하여 지금의 천진대학으로 특성화되면서 공과중심의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문화대

혁명과 당산 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손실을 입었던 이 학교는 1979년에 기초과학, 컴퓨터 관련과학, 열물리학, 공업관리공정 등 새로운 학과를 설립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1982년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의 신설과 함께 천진대학은 공과 위주의 대학으로부터 이과, 문과, 관리과학 등이 포함된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천진대학은 21개 학과에 54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수, 부교수를 포함한 2,600여 명의 교수진, 대학원생 1,600여 명, 16개국 56명의 외국유학생을 포함한 총 등록학생수가 1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Machine Manufacturing Engineering
- Precision Instrument Engineering
- Thermophysics Engineering
- Electrical Power System and Its Automation
- Electronic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 Civil Engineering
- Architecture
- Hydraulic Engineering
- Marine and Shipping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 Applied Chemistry
- Chemistry
- Mathematics
- Physics
- Mechanics
- Foreign Language
- Management Engineering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Machine Manufacturing
- Welding
- Measuring Technology and Instrument
-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Engineering Thermophysics
- Electric Power System and Its Automation
- Construction Engineering
- Architecture Design
- Marine Engineering
- Liquid Mechanics
- Basic Mechanics
- Experimental Mechanics
- Organic Chemistry Engineering
- Chemical Engineering
- Systems Engineering
- Applied Chemistry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南開區 衛津路
92號
天津大學 留學生辦公室

천진의학원(天津醫學院) Tianjin Medical College

학교소개

중국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자치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천진의학원은 전중국에서 유일한 5년제 과정과 8년제 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의 역사는 1951년 9월 천진의학원이라는 교명으로 49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예과(豫科)과정을 남개대학(南開大學)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다음해인 1952년 10월 15일 독립교사에서 제2기 학생 100명을 입학 시킴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시작되

었다.

이후 매년 학교규모와 학생수가 확대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온 이 학교는 1958년 허북성(河北省)의 지도·감독을 받는 인류대학으로 지정되면서 교명을 천진외과대학(天津醫科大學)으로 개칭하였다가 1962년에 이르러 천진의학원이라는 예전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

1978년부터 5년제의 본과과정을 회복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였고 특히 1980년 남개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한 8년제의 의학연구 과정과 5년제 생물의학 과정 등 3개의 특별 프로그램은 특수한 의학 연구과정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현재 5개 학부에 37개의 석사학위와 7개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이 학교는 5개의 독립 연구소를 포함한 16개의 연구실을 비롯하여 2개 종합병원, 천진시 구강의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8개소의 임상 실습병원을 부설하고 있는 등 중

국의 주요 이과대학의 하나로 유명하다.

개설학과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Medicine
- Stomatology
- Public Health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Acute Abdominal Diseases Created With Intergr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 Internal Medicine (Cardiovascular)
- Obstetrics & Gynaecology
- Urosurgery
- Neurosurgery
- Radiodiagnosis
- Microbiology & Immunology
- Ophthalmology

학교주소

中國人民共和國 天津市 和平區 氣象台路 22號
天津醫學院 外事處

천진중의학원(天津中醫學院)

Tianjin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학교소개

천진중의학원의 역사는 한의사 연수과정으로 설치되었던 천진중의학고를 기초로 하여 1958년에 설립되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기간 중에는 허북성(河北省) 석가장(石家莊)지방으로 이전하여 합병되면서 허북외과대학으로 개편되었던 이 학교는 1978년 다시 천진으로 복귀하면서 허북외과대학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중의학(中醫學), 중약학(中藥學), 침구학(針灸學) 등 3개 학부를 개설한 이 학교에는 학부생 900여 명을 포함 1천 1백여 명의 재학생과 정·부교수 120여 명을 포함한 6백여 명의 교수진이 재직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에는 중의문학(中醫文學) 연구소, 부인학(婦人學) 연구소 등 6개소의 중의학관련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개설학과와 부

학부(5년과정)

- Dep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al Treatment
Traditional Chinese Medical Surgery
- Dep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aditional Chinese Medical
Orthopaedics
- Dept. of Traditional Materia Medica
Traditional Materia Medical

석사과정 (Postgraduate Programs)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Acupuncture and Moxibustion

박사과정 (Doctoral Programs)

- Acupuncture and Moxibustion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南開區 西湖村
天津中醫學院 外事處

천진체육학원 (天津體育學院)
Tianjin Institute of Physical Culture

학교소개

북경, 상해, 광주체육학원과 함께 중국 4

대 체육대학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천진 체육학원은 교사, 체육관리자, 코치 등 체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1958년에 설립 되었다.

현재 체육교육, 스포츠훈련, 운동관리 등 3개 학부에 정·부교수 59명 포함 230여 명의 교직원과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인 수준인 중국배구의 발전을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국내외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체육대학이다.

학교주소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河西區 李七莊
天津體育學院 外事處

천진사범대학(天津師範大學)
Tianjin Normal University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河西區 八里台
衛津路 241號
天津師範大學 外事辦公室

천진경공업학원(天津輕工業學院)
Tianjin Institute of Light Industry

中華人民共和國 天津市 河西區 大沽南路
1038號
天津京工業學院師範大學 外事辦公室

박명수/ 청와대 공보비서실 근무
『중국여행가이드』 저자
제성문화관광 대표(현)

편집자 주/지면 관계상 천진의국어학원과 천진중의학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개설학과에 학부과정을 신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원하거나 중국유학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는 분은 위 자료를 제공한 박명수 씨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Tel: 778-3773)



연길교회의 유두봉 목사

유두봉牧사는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연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1957년생(37세)으로 연길 태생이다. 그는 대대로 믿음을 지켜온 가정에서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를 거쳐 2년 전 전임목사이신 김성하 목사의 소천으로 연길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다.

1984년 남경신학교에 입학, 1988년에 졸업했으며, 1992년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현재 연변기독교협회 총

회장이며 연변종교학회 부이사장이고, 길림성 기독교협회의 부주석을 맡고있다.

연길교회는 1911년 애국지사인 김애보씨에 의해 시작, 서금찬 목사에 의해 현 예배당이 신축되었고 공산치하에서 교회 문을 닫았다가 1981년 다시 문을 열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길림성의 기독교인은 3만 5천여 명이 되는데 그 중 2만여 명이 연변, 1만여 명이 연길에 있다. 연길교회의 재적 교인수는 7천여 명이며, 주일 예배에 2천여

명이 모이는 등 크게 부흥하고 있다. 주일 예배를 4부로 드리고 있고 매 주일 수십 명씩 새신자가 늘어난다고 한다.

길림성 내에는 조선족 교회와 처소가 1천여 개나 되고 연길시에만도 1백여 개가 있는데 목사는 유두봉 목사 한 사람뿐이다. 유 목사는 그곳을 보살피면서 성찬식과 세례를 베풀며 야간에 연길성경학교를 개설하여 교회 지도자를 키우는 일도 하고있다.

유 목사가 담임을 맡은 후 교회가 부흥, 현 1백여 평의 교회로 비좁아 연길시 변두리 조용한 곳에 3천3백여 평의 신축교회 부지를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매입해 놓고 있었다. 50여 호 가구들과 공장 2개를 보상해 주면서까지 내보내고 순전히 교인들 자력으로 매입한 땅에는 좌석 3천5백석의 대규모 교회가 들어설 예정이다.

유 목사는 지난 7월에 남북나눔운동본부(상임의장 이문식 목사)의 초청으로 길림성 종교국 부국장(주진), 종교사무국 직원 등 중국기독교 관련 고위인사 8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7월 13일 서울영동교회에서 “중국교회의 현황과 중국의 종교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는 이 세미나에서 중국의 신도수는 5천만 명 정도이며, 신학교는 13개소, 목사는 3천여 명, 그 중 길림성의 목사는 15명이라고 말했다.

중국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 (I)

위치만 니(倪柝聲)는 20세기 中國 기독교 내에서 가장 이름 높았던 기독교 지도자이다. 그는 설교, 강해, 기도에 뛰어났으며, 교우들을 조직하여 教會를 건립하는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구원의 은혜', '영생' 등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표현하는 재능이 있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성도의 품위를 지켰다. 이러한 그의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은 동포들을 이끌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는데 좋은 점으로 작용하였고, 아울러 한 지역에서 빠르게 教會를 세워 단결심이 있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치만 니의 인도하에 성도들이 세운 교회(教會, 聚會所 혹은 地方教會)는 몇 가지 특색을 갖고 있다. 이들의 교회는 교파에서 파견하고 후원하여 세워진 교회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西方教會에서 받은 영향은 적고 中國본토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주적으로 세워져, 自給·自傳



위치만 니

(1903~1972)

북건성 북주시

自養하는 독립적 형태를 띤 교회였다. 그의 교회는 연안의 각 성, 특히 남방의 몇 개의 큰 도시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그 후에는 해외의 華僑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위치만 니가 인도하는 聚會所는 그야말로 20세기 이래 中國 지역에서 성립된 교회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中國獨立

教會였기에 중국 내외 각 지역의 주목을 한껏 받았던 교회였다.

위치만 니는 청나라 광서 29년(1903) 11월 4일, 광둥성 산두시(廣東省 汕頭市)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한 후 그의 부친은 가정의 전통에 따라서 그에게 '述祖'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祖'는 그들 형제들 사이의 항렬자로서 그의 형제들은 차례로 懷祖, 繩祖, 洪祖, 興祖라고 불리웠다.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새로운 거듭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대의 경계자, 권고자'라는 뜻에서 이름을 '更夫'라고 바꾸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는 매우 좋지만 약간 고상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 어머니의 건의에 따라서 '柝聲'이라고 고쳤다. '시대의 경종'으로 사람들을 일깨워 참 하나님을 알게 하자는 것이었다. 후에는 '柝聲'이라는 이름이 '述祖'라는 원래의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졌다.

또 위치만 니는 어렸을 때 약간 속되긴 하지만 '亨利'

(Henry)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신앙을 갖고 거듭난 후에 '守望者'(Watchman)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은 그의 中國이름과도 뜻이 통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깊기 때문에 그의 영어 저작은 모두 'Watchman Nee'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외국인에게는 이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워치만 니는 여섯 살 때부터 계몽교육을 받았다. 당시 아버지 예씨는 가족을 이끌고 소주로부터 본격적인 복주로 이사와서 집을 정돈한 후에, 바로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수재선생을 가정교사로 초빙하여 워치만 니 형제들의 붓글씨, 三字經(글을 처음 배우는 아동에게 글자를 깨우치기 위하여 사용했던 세 글자로 된 단어를 모아서 엮은 책으로 宋나라 王應麟이 지었다고 함 -역자 주), 百家姓(宋代 민간에서 만든 책으로 모든 가문의 姓字를 모아 '趙錢孫李 周吳鄭王'과 같은 四字句로 押韻하여 엮었다. 單姓408개 複姓 30개 수록. 옛날 마을의 서당에 다니는 소년들이 익혔음.-역자 주) 및 좀 더 어려운 四書등의 中國 전통 교육과정을 익히도록 하였다. 당시에 이미 과거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계몽 교육의 단계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것을 공부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찍 서양 교육을 받은 예씨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자녀들은

계몽교육에 있어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예씨 가정은 비교적 일찍 서양 교육의 영향을 받은 탓에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린 워치만 니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 모두 서양 음악을 연습하여 연주할 수 있었다. 또 예씨 가정에는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워치만 니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의 주일 학교에 다녔고, 주일학교 선생님과 어머니의 지도하에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다.

기억의 단편을 더듬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워치만 니는 교육을 받는 데 있어 형제들보다 훨씬 총명하였고 아이들과 노는데 있어서도 장난스럽고 활발한 개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일찍이 지도자적인 자질을 보여주었는데, 언제나 동년배 아이들을 앞장서 이끄는 아이였다. 워치만 니가 가정에서 계몽교육을 받은 후 다른 형제들보다 일찍 일반 소학교에 진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13살 되던 해, 곧 民國 5년(1916)에 복건(福建)의 삼일학원(Trinity College) 초중부에 입학한 것이다.

삼일서원은 영국의 성공회(Church Mission Society)가 창립하여 경영하던 학교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대학 및 신학원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복주시 남대도 창전산(福州市 南台

島 蒼前山) 경마장 부근에 자리 잡고 있던 이 학교는 건립한 지 오래지 않아 성공회 계통의 북아일랜드의 더블린대학 선교회(Dublin University Fukien Mission)가 교무행정과 교무일을 맡게 되었고 교사와 교직원 은 모두 북아일랜드에서 온 선교사였다. 교사의 자질이 우수하고 학교 건물이 웅장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명성은 높아서 이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려는 자제들은 매우 많았다.

워치만 니는 먼저 삼일서원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당시의 표준에서 볼 때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의 색채가 매우 농후한 전형적인 미션스쿨이었다. 학부는 창설되지 않았기에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은 상해로 추천하여 보내 성공회에서 주관하고 있던 '성요한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 신앙이 막 시작되던 때 학문을 탐구하는 청년시기의 과정을 보내면서 기독교 신앙은 워치만 니에게 별 매력을 주지 못했다. 목사의 후손으로 태어나 기독교인인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유아세례도 받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진정으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건립한 삼일서원에서 공부하면서 매주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내면에 과고 들지 않았고, 이러한 방면의 것

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다.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삼일서원의 환경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도리어 당시 일어나고 있던 반종교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民國 7년(1918) 북경에서 비기독교운동이 일어난 후 民國 11년(1922)까지 반기독교운동은 점차 북에서 남으로까지 뻗어나갔다. '애국, 배외'의 기치하에 기독교에 대한 배척 감정은 매우 쉽게 중국의 청년 학생들을 끌어당겼고 그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후일 『지난 일을 술회하면서(往事的述說)』라는 글에서 그는 회상하기를, 삼일서원에서 공부하던 기간 동안 교회의 다움과 같은 현상이 그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게 하였다고 말한다.

“나는 목사라는 자격이 가장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목사들은 사람들을 찾아와 기부금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평상시에 전혀 목사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신앙이 아직 부흥되기 전, 집에서 종종 몇 테이블에 걸쳐 도박판이 벌어지곤 하였다. 그 때마다 목사가 와서 기부금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때는 마작패가 벌어지고 있던 책상 위의 돈을 손에 잡히는 대로 가져다가 주면 목사들은 그것이 도박판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대강 알면서도 주머니에 집어넣곤 하였다. 때문에 나는 목사의 자격은 매우 천박하여 단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비록 교회 내에 많은 신도가 있다 하더라도 별것 아닌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워치만 니가 공부하던 기간,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감정까지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셨다.

民國 9년(1920) 여자도(余慈度)여사가 복주(福州)에 와서 열었던 “신년전도집회”에서 먼저 워치만 니의 모친인 임화평(林和平) 여사가 신앙 부흥의 체험을 하게 되고 곧이어 워치만 니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워치만 니의 모친과 여전도사인 여자도(余慈度) 여사는 본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 워치만 니의 어머니는 전도 대회 기간 중에 여자도(余慈度) 여사의 감격적인 초청을 받아들여 회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권위와 나



장승원 그림

이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였으며, 워치만 니에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어머니의 변화된 행동은 워치만 니를 깊이 감동시켰다. 도대체 무슨 힘이 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했는지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도 여자도 여사가 설교하는 전도집회에 참가해 보기로 하였다.

집회에 참석한 그는 그녀의 설교를 주의깊게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회 기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여 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앞길을 포기하고 일생토록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民國 25년(1936) 10월 하순경에 복건(福建), 하문(廈門), 고랑여(鼓浪嶼)에서 가진 제1차 집회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간증하였다. 그는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20년, 17세 되던 해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일평생 그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니는 그후 기독교 전

도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 마침 그 때 삼일서원은 내전의 혼란으로 인해 폐박을 받아 휴교하게 되었다. 휴교한 기회를 이용한 그는 혼자 상해에 가서 여자도 여사가 상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학교>에 입학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余 여사는 정중한 태도로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한다. 그가 성경학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는 그 때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좋은 음식 먹기를 탐하고, 새 옷을 입기를 좋아하였으며,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워치만 니는 그녀의 말에 따라 복주(福州)로 돌아왔다가 다시 삼일서원(三一書院)에 들어가 마치지 못한 학업을 계속하였다. 상해에서의 일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그에게는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은 귀중한 경험이었다. 후에 그는 간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사건은 주님을 섬기려는 나의 마음의 소원에 깊은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생명에는 비록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만 나의 생활은 아직도 실제에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

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삼일서원에 돌아와서 공부하게 된 워치만 니에게 학과 공부는 결코 압력이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성실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기회만 생기면 열심히 친구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였다. 친구들의 이름을 종이에 써 놓고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의 이러한 열정적인 태도는 친구들 사이의 웃음거리가 되어 ‘전도 선생’이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 결국 그의 친구들 70명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9명이 그에게 감화를 받았다.

워치만 니는 열심으로 기독교 교리를 힘써 실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겸손하여 교회 선배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았다. 나중에 워치만 니가 자기에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선교사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화수은(和受恩) 선교사이고 또 한 명은 빈로역(賓路易) 사모였다.

당시 복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화수은(和受恩) 선교사(Miss M. E. Barber)의 도움이 가장 컸다. 그녀는 원래 영국 성공회로부터 복건성 고전(古田)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였는데, 이후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장승원 그림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는 이미 성공회를 탈퇴하고 자유 전도자로 복주에 머무르면서 전도하고 있었다.

화수은 선교사는 개인적 신앙적 경륜이 매우 심오한 사람으로서, 후에 여자도 여사의 소개로 워치만 니를 알게 되었다. 그와 알게 된 후 각 방면에 대하여 그를 지도하였으며, 책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또한 워치만 니가 신앙의 성숙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는 등 초신자인 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워치만 니가 나중에 강론 가운데서 자주 화 선교사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그가 화 선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좋은 증거이다.

삼일서원을 졸업한 워치만 니는 좋은 성적으로 인하여 충분히 상해의 성요한대학에 입학, 계속 공부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에 대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다. 비록 부모는 계속 공부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졸업 후 진학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채 의연히 헌신의 길을 택하여 정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民國 15년(1926) 상반기에 워치만 니는 초청을 받아들여 廈門, 鼓浪嶼, 漳州, 同安 등지에서 전도하였는데 그 성과가 매우

컸다. 이 해 하반기, 다시 위의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던 그는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 체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동역자 잠대(暫代)를 자기 대신 초청하고, 자기는 의사의 당부를 받아들여 요양하며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장기간 요양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는, 교회의 진리 혹은 신도들의 생활에 관련된 저술서를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lford나 Westcott 등이 지은 죄론과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책, 또 서양교회에서 유명한 빈로역 사모가 지은 영혼에 대한 저술 및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쓴 서적 등을 읽었다. 이러한 책들

은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폐병을 앓으면서 그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인도받은 경험과 사상들을 책으로 써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그의 첫 번째 대작인 [영에 속한 사람: 屬靈人]의 저작이 나오게 된다. 이 책은 유일하게 위치만 니가 자원하여 출판하였고 체계를 갖춰 연작으로 쓰여진 저서였다. 무석(無錫) 마을에서 전4권을 썼으며, 이어서 상해에서 전권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연여(李淵如) 자매에게 맡겨 교정을 본 후 순조롭게 출판되어 신도들에게 공급되어 읽혀짐으로써 그의 신앙적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民國 17년(1928) 6월 이후로부터 대략 일 년여의 요양 기간을 지나면서 차츰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 요양 기간 동안 비교적 많은 시간을 묵상하는 데 보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 이 기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가지의 사역들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공개적인 간증에서 그는 이 사역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문서 사역

“병이 완쾌된 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부탁하셨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을 풀이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승리를 얻은 자들의 집회를 여는 것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여시어 나로 하여금 각지에 있는 교회에서 승리를 얻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매년 승리를 얻은 자들의 집회를 열어 집회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소식을 전하자.”

지방교회를 건립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부흥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성경의 진리를 듣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은 지역 지역마다 그의 교회를 건립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지방에서 교회의 사상과 실천이 일치함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매년 한 명의 성도로 하여금 교회에서 직분을 다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다.”

청년 교육 사역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면 주님께서서는 일단의 청년들이 일어나 계속하여 젊은 세대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요

구하실 것이다. 나의 이상은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에 속하는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을 받고, 성경읽기와 기도를 연습하고, 좋은 인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 한편으로는 죄와 세상과 육체에 대하여 대적하는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각지의 교회로 돌아가 성도들과 일치하여 함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中國基督教人物小傳』 중에서

번역/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小 群 會

방지일



뛰어나고 지식이 박학한 듯 하며, 커다란 신앙운동을 일으켜 중국 국내는 물론 구미 각국에서도 그분의 이름은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영국 형제회의 영향을 받았다 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근거는 그를 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는 화학공장으로 거금을 모은 사람이다.

소군회란 글자 그대로 ‘적은 무리들의 모임’이란 뜻이다. 이들도 몇몇 동지들끼리 성경연구를 하고자 시작한 성격의 모임이었다.

창설자는 倪柝聲, 영어로는 Wachman Nee로 구미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 나온 많은 역서에도 위치만 니로 되어 있다. 그는 본래 한의학자로서 페니실린 공장을 경영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영국에 유학생으로 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다. 원어에 능하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가로 일본의 우찌무라 보다 훨씬 더 두뇌가

신앙운동의 시작

위치만 니는 ‘소군회’란 모임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모아 성경연구를 하였다. 속죄 구원관이 확실하여 이 구원관을 성경적으로 배우는 연구회라 깊은 성경 진리를 근거로 모이게 되었다. 모이는 회원이다 수준높은 사람들이기에 성경에 대해 깊은 경지의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이 모임에 한번 들어가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찬사를 외치며 성경의 진수에 심취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모임이 차차 상해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퍼져나

갔다. 대부분 처음에는 <소군회>라는 간판을 달고 작은 집에서 모이던 것이 도시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퍼지기 시작했다.

소군회가 취회소로

적은 무리들이 모이던 것이 차츰 커짐에 따라 더이상 작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 힘들어져 큰 집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아직 교회란 용어는 쓰지 않고 취회소(聚會所)라 하고 모이게 되니 일약 대발전을 이루게 된다. 얼마후에는 취회소란 이름을 가지고도 감당을 못하게 되었다.

취회소로부터 교회로

날로 불어나는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을 세워야만 했다. 조직도 있어야 했고 행정도 필요하게 됐다. 그 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성경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인 만큼 한 곳에 교회 하나를 세우기로 했다. 교회 이름은 그 지방의 이름에 근거하여 정하기로 했다. 에베소교회, 갈라디아교회 하듯이 상해교회, 청도교회가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이다. 체일교회니 중앙교회니 이런 이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하면 그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분회 혹은 지회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직으로 말하자면 전에는 상호 '형제' 칭호를 사용했지만

장로제로 발전하면서 수에 따라 장로를 세우되 목사의 칭호는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이름은 은사로 주신 이름인데 '내가 목사요' 하는 식의 그런 칭호를 어떻게 쓰냐는 것이었다. 장로 혹은 장로장이 있어 이 분이 설교도 하는 등 말하자면 목사의 대행이었다. 성찬 세례는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베풀다.

생활양식

이 모임의 생활양식은 예수가 정과는 정반대이다. 금욕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렇다고 향락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들 주장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형제가 상업에 실패라도 하면 그들은 힘껏 도와서 일으켜 준다. 그 상호협조심이 아주 두터워서 못 살 수가 없었다.

도처에 큰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라 하여 전도인이 되었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신사 숙녀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들의 전도하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출판사업의 극치

이들의 모임이 점차 호황기를 이루게 되자 출판사업에도 열심을 발휘하였다. 워치만 니 선생의 기초문헌인 「屬靈的人(영에 속한 사람)」은 상·중·하 세권으로 된 책이다. 이 책을 바로 이해하면 그 신앙의 기본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각 모임의 성경연구물들이 대부분 출판되어 교계에 퍼지자 신속하게 그 힘이 확장되었다.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가서도 '복음서방(福音書房)'이란 출판사는 대륙에서 강의된 모든 원고를 출판하였다. 중국 교회 사상 그만큼 많은 문서들이 출판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 미국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으며, 한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원관은 확실하나 교회관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근래 한국교인들은 구원관이 확실치 못한 탓인지 이 구원관에 도취하는 듯 하다. 그러나 교회관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워치만 니 선생은 상해에서 처참한 일을 당했고, 대만에서 그렇게 기세를 올리던 후계자들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도미하여 결국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한국에서 그 기세를 올리는 것 같다.◇

『福音歷史半百年』중에서

방지일/ 중국어문선교회 교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

허드슨 테일러

지금부터 나는 생활에 두 가지 목표를 잡고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였다.

첫째는 내 자신이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근검절약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방식으로 바꾸자마자 나는 금새 깨달았다. 전보다 훨씬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버터, 우유 그리고 그 외의 비싼 음식을 더이상 먹지 않았다. 주식은 압맥(납작한 보리)을 섞은 쌀밥이다. 가끔 다른 반찬을 같이 먹음으로 맛을 돌구기도 하였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적은 돈을 갖고도 나의 필요를 모두 채울 수 있었다. 월수입의 1/3을 절약하여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돈을 적게 쓰면 쓸수록 남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마음 속에 넘치는 기쁨과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삶이 더욱 풍성해졌고 나는 날마다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며 생활해 갔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의 참된 소원은 바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졌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객지에 가서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원조를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필요한 영적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믿음을 잃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일이 잘못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 그 당시 나는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나의 앞에 놓인 사명을 담대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했다.

나는 스스로 다짐하였다. “중국에 가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에게서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해야 하리라. 그렇다면 영국을 떠나기 전에 미리, 기도만으로 하

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도우시는 체험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시 나는 의사인 로버트 하디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때를 맞춰 내게 월급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싶어 미리 나에게 봉급날이 다가오면 좀 알려 달라고 말했었다. 나는 그에게 직접 월급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구했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걱려를 얻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어느 날 월급날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 나는 전처럼 이 일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날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디는 월급에 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루하루 날짜는 지나가는데 그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일주일 동안의 장부를 결산하고 나니 남은 돈이라곤 겨우 반 크라운짜리 동전 하나(반 크라운은 2실링 6펜스)뿐이었다. 하지만 아직 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다.

주일 아침, 예전과 같은 기쁨이 마음에 넘쳤다. 예배를 드린 뒤 오후에는 내가 항상 방문하는 부둣가의 슬럼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달랑 남을 전재산인 반 크라운짜리 동전이 떠올랐다. 동전 하나를 그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곳에서 나는 마치 낮은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 기쁨을 체험하였다. 더 바랄 것이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더욱 충만케 채우는 일 뿐이었다.

저녁 10시쯤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집회를 끝내고 어떤 초라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자기 아내가 죽어 가고 있으니 와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그의 요청에 응했다. 가는 도중에 그에게 왜 신부님을 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말씨로 보아 그는 카톨릭계인 아일랜드인이었다).

“이미 가서 부탁을 드려 보았지만 신부님은 18펜스를 줘야만 오신답니다. 제겐 그런 돈이 없어요. 더욱이 가족들은 밥을 굶고 있어요.”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달랑 남을 전재산인 반 크라운짜리 동전이 떠올랐다. 동전 하나를 그에게 나누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집에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까지 먹을 보리죽이 남아 있지만 내일 점심부터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자 방금 전까지 흘러 넘쳤던 마음 속의 기쁨이 금방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가

난한 사람을 꾸짖었다. 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야 내게 도움을 요청하느냐고 그를 원망했다. 조금 더 일찍이 빈민구제소(local doctor)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갔었죠. 하지만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아이 엄마가 살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 만약 내게 반 크라운짜리 동전이 아니라 2실링 6펜스가 있다면 기꺼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1실링을 나누어줄 텐데.’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그 당시의 나는, 무일푼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갔다. 난 조금 불안하고 두려워졌다. 전에 왔을 때 이곳의 주민들이 난폭하게 전도지를 찢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이왕 책임을 지고 온 이상 그를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낡아빠진 계단을 올라가더니 아주 허름하고 더러운 작

은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양 볼이 움푹 들어간 다섯 명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아하니 아마도 오랫동안 굶주렸던 것 같다. 허름한 침대 위에 힘이 다 빠져 버린 아기엄마가 누워 있고 그 옆에 태어난 지 이틀도 안되어 보이는 갓난아기가 울 기력도 없어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내게 조금만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눠줄 텐데…… 이 돈이 1실링 동전 두 개와 6펜스 동전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 때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

신들의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지만 하늘에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런 말을 건네주었을 때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넌 위선자다. 이들에게는 하늘에 자비로운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반 크라운도 내놓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나에게 잔돈 1실링과 6펜스가 있다면 이 양심의 소리에 따라 그들에게 1실링을 주고 6펜스는 남겨 두었겠지.’ 여전히 그 돈을 포기하지 못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꺼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그 무렵 내게 있어 기도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피곤을 느끼지도 않았고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었다. 그 당시에도 무릎꿇고 기도만 하면 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내게 병든 부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죠? 우리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입을 열자마자 내 양심이 즉시 내게 말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주머니 속에 여전히 돈을 숨겨 놓고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 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전쟁은 생전 한 번도 경험한 바 없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어떻게 그 기도를 끝냈는지 기억 나



지 않는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않았다.

그 불쌍한 남자는 돌아서서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직접 보셨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릴 좀 도와주세요.” 바로 이 때 성경말씀 한 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천천히 반 크라운짜리 동전을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왜냐면 겉보기에 내 형편이 그보다 훨씬 좋아보이니까). 하지만 저는 저의 모든 소유를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모두 진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때 기쁨이 파도처럼 내 마음 속에 몰려 왔다. 더이상 나는 이 불쌍한 자 앞에서 위선자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영적 축복을 막는 장애물들은 이미 모두 사라졌다. 그 불쌍한 여인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날 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 못하였다면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빈 주머니처럼 가벼웠다. 한적한 길거리에 나의 끊임없는 찬양이 메아리쳤다.

잠들기 전에, 남아 있는 보리 죽을 꺼내어 먹었다.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는다 한들 이 보리 죽만큼 맛이 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날 침대 옆에 무릎꿇고 기도하였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곧 여호와에게 빌려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질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점심은 굶어야 합니다.” 나는 평안을 만끽하면서 조용하고 기쁜 밤을 누렸다.

다음날 아침, 조금 남겨 두었던 죽을 먹고 있을 때 우체부가 하숙집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보통 부모님과 친구들은 토요일에 편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편지를 받는 적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하숙집 여주인이 물에 적신 손에 천을 덮어서 소포 같기도 하고 편지 같기도 한 물건을 갖고 내 방으로 들어 왔을 때 조금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편지를 살펴보았지만 누가 쓴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쓰지 않았다면 아마 누군가 일부러 필체를 숨기려고 한 듯했

다. 편지를 뜯어보니 양가죽 장갑 한 켤레가 흰 종이에 싸여져 있었다. 장갑을 들추자 그 속에서 반 파운드짜리 지폐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다.

“주님! 투자한 지 12시간만에 400%의 수익을 돌려주셨으니 이자가 참 괜찮군요.” 호어市的 상인들이 이런 이윤으로 돈놀이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야단이 날까?

나는 이 사건 이후, 절약하여 모은 돈과 번 돈을 영원히 부도나지 않는 이 은행에 적금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 한 적이 없다. 생활에 매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사건을 회상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獻身中華』 허드슨 테일러 중에서
번역/ 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중국어 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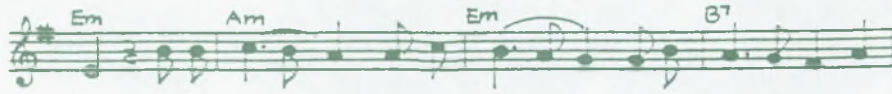
當聖靈在我的心 우리 주의 성령이



當聖靈在我的心 我要歌頌主, 象當年的大衛



王 當聖靈在我的心我要歌頌主, 象當年的大衛



王 我要歌 唱, 我要歌 唱, 象當年的大衛



王 我要歌 唱, 我要歌 唱, 象當年的大衛 王

우리말 가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발음:

Dāng Shèng líng zài wǒ dì xīn wǒ yào gē sòng zhǔ,
xiàng dāng nián dì Dà wèi wáng
dāng Shèng líng zài wǒ dì xīn wǒ yào gē sòng zhǔ,
xiàng dāng nián dì Dà wèi wáng
wǒ yào gē chàng wǒ yào gē chàng, xiàng dāng nián dì Dà wèi wáng
wǒ yào gē chàng wǒ yào gē chàng, xiàng dāng nián dì Dà wèi wáng

도전 !!

填字遊戲

독자들의 중국어 낱말 실력향상을 꾀하는 뜻에서 중국어 십자낱말맞추기란을 마련하였습니다. 친구약 성경상의 용어, 생활상의 실용용어, 시사용어 등 다양한 낱말을 익힐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답은 Page 122에)

가로열쇠

- (1) 로봇. 인조인간
- (4) 남의 집의 존칭(댁). 맥의 가족
- (7) 나쁜짓을 배우다.
- (9) 계란 볶음밥
- (11) 누룽지
- (13) 여명, 새벽
- (15) 벌
- (17) 하마(동물)
- (19) 덧니. 송곳니
- (21) 종기나 상처에 붙이는 약(고약)
- (22) 뜻. 의미. 의의
- (24) 일. 작업. 업무
- (26) 법률

세로열쇠

- (2) 도량. 국량.
- (3) 정부. 관청.
- (5) 출근하다.
- (6) 사범대학교
- (8) 나쁜 놈. 악당
- (10) 밥술. 술
- (12) 파리(프랑스의 수도)
- (14) 인기있는 배우나 가수. 스타(Star)
- (16) 성하. 은하. 은하수
- (18) 소홀하다. 경히 여기다. 아무렇게나 하다.
- (20) 치약
- (23) 자원봉사자
- (25) a. 도사가 술법을 행하다
b. 일처리 하는 방법. 만드는 법
- (27) 변호사

		1	2			3	
						4	5
6		12		22	23		
		13	14		24	25	
			15	16		26	27
7	8			17	18		
	9		10		19	20	
			11			21	

七十個七次

太十八1-14, 21, 22 ; 約七11-52, 八2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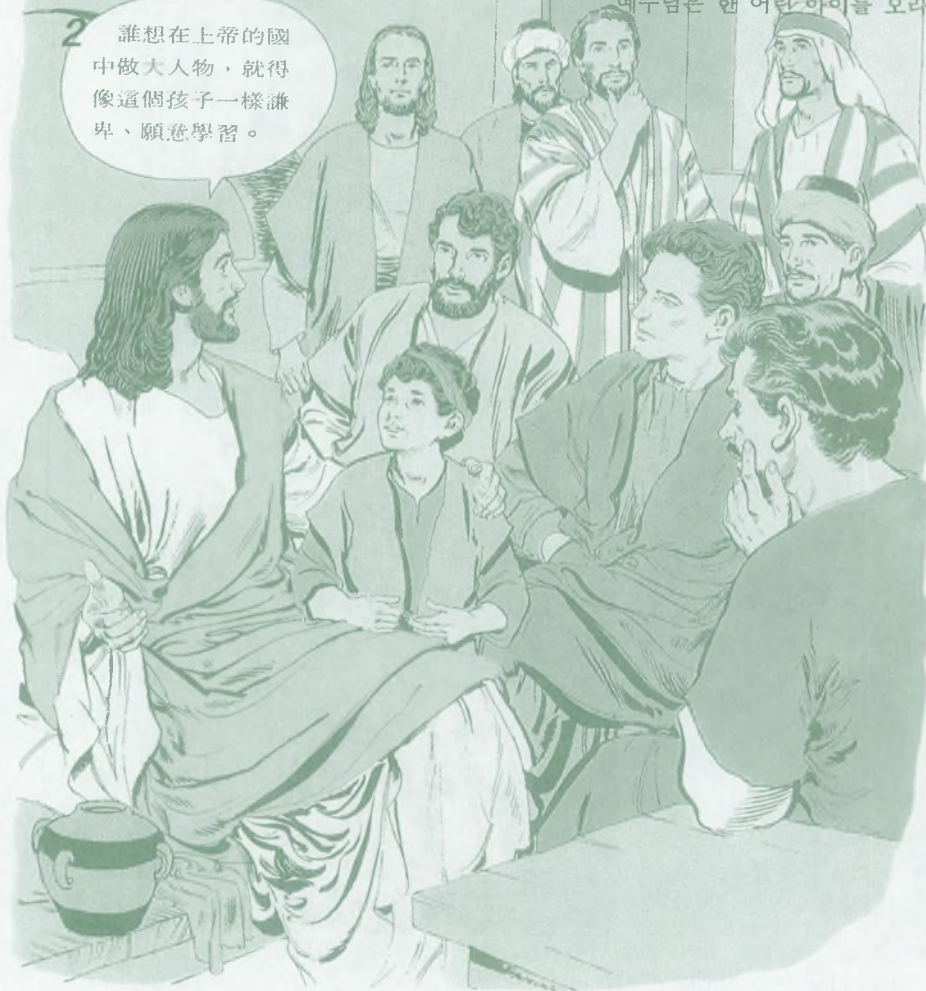
일흔 일곱번

(마 18:1~14, 21, 22, 요7:11~52, 8:21~59)

往迦百農途中，門徒開始爭論，個個都希望耶蘇要建立的王國中做個顯要人物。到達迦百農後，耶蘇問他們為甚麼爭吵，他們都不好意思說出來。耶蘇叫了一個小孩子來。

1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논쟁을 시작했다. 사람마다 모두 예수님이 세울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가버나움에 도착한 후,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말다툼을 하는지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것에 대해 개변적이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오라고 부르셨다.

2 誰想在上帝的國中做大人物，就得像這個孩子一樣謙卑、願意學習。



2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길 원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배우길 원해야 한다.”

3 要是你們和誰發生衝突，立刻與他把話說清楚。要是他聽你的話，就得回了一個朋友。



4 有人得罪我，我應該饒恕他幾次呢？七次夠嗎？

5 不夠，彼得。應該是七十個七次。你要上帝饒恕你多少，你就該饒恕人多少。

4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마땅히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충분합니까?”



3 “만약 너희가 누구와 충돌했다면, 즉시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하라. 만약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곧 한 명의 친구가 될 것이다.”

5 “부족하다, 베드로야. 일흔 번씩 일곱 번은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6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남쪽으로 가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다. 마침 유대인의 대절기를 맞았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군중들이 생각하길……

6 耶穌離開迦百農，往南方到猶大地傳道，一直到耶路撒冷。正逢猶太人的大節期。他講道時，衆人在想——



耶穌可能就是彌賽亞？

7 誰能作這些事？

8 我見他作人不能作的事。8”

나의 사랑, 나의 조국 (II)

왕에스터

나의 살던 고향은

6월 말 우리는 드디어 북쪽의 한 마을, 나의 고향에 도착했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생애의 초기 14년을 지냈으며 부모님은 묵묵히 50년 간 주님을 위해 봉사해 오셨다. 이 마을은 마치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천년 이래의 생활양식으로 바뀐 것 없는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다. 현대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에서는 황소가 쟁기질을 하고 길에는 당나귀 달구지가 덜컹거리는 풍경은 여전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쁜 사실은 마을마다 거리마다 복음이 왕성한 기세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60년대 말) 우리 마을에는 약 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과 두 이모, 그리고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모두 다섯 명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이미 몇만 명을 넘어섰다.

성 중에 몇 개의 집회 장소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 금요일과 일요일에 집회로 모인다(대륙의 성도들은 주일예배, 성경공부 그리고 기도회를 모두 “집회” 혹은 “예배”라고 부른다).우리가 도착한 그 날, 바로 그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우리는 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는 어느 작은 골목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가의 뜰에서 열리고 있었다. 골목을 막 들어서자 은은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 왔고, 무더운 여름밤을 식혀 줄 시원한 바람이 서서히 골목 안으로 불어왔다. 모인 형제자매들은 백 명 가량 되었는데 이들로 방안이 꽉 들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뜰에 나가 앉아야 했다. 집회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다. 어떤 때는 성경공부를 인도하신다고 한다. 이곳은 마치 광주(廣州)에 있는 임헌고 목사의 교회와 비슷하다. 그들도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었다. 대

룩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우선해야 할 일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시간쯤 되는 성경공부가 끝났는데도 모두들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참석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의 삼촌, 이모들이다. 옛날의 “짚구(나의 어릴 적 별명)”가 신학교부를 마치고 왔다고 하니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장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저것 물어 오는 그들에게, 내가 이 다음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세울 거라고 하니 모두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웃음소리가 온 방에 가득차고 모든 이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쳐흘렀다. 의사인 몇몇 이모들은 서로 다투어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지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었다.

한 아저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내 이름을 부르더니 “나 알겠니?”하고 물었다. 나는 “W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모를 리 있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라고 대답했다. 그는 본래 아버지의 제자였는데 49년 공산혁명 이후 하나님을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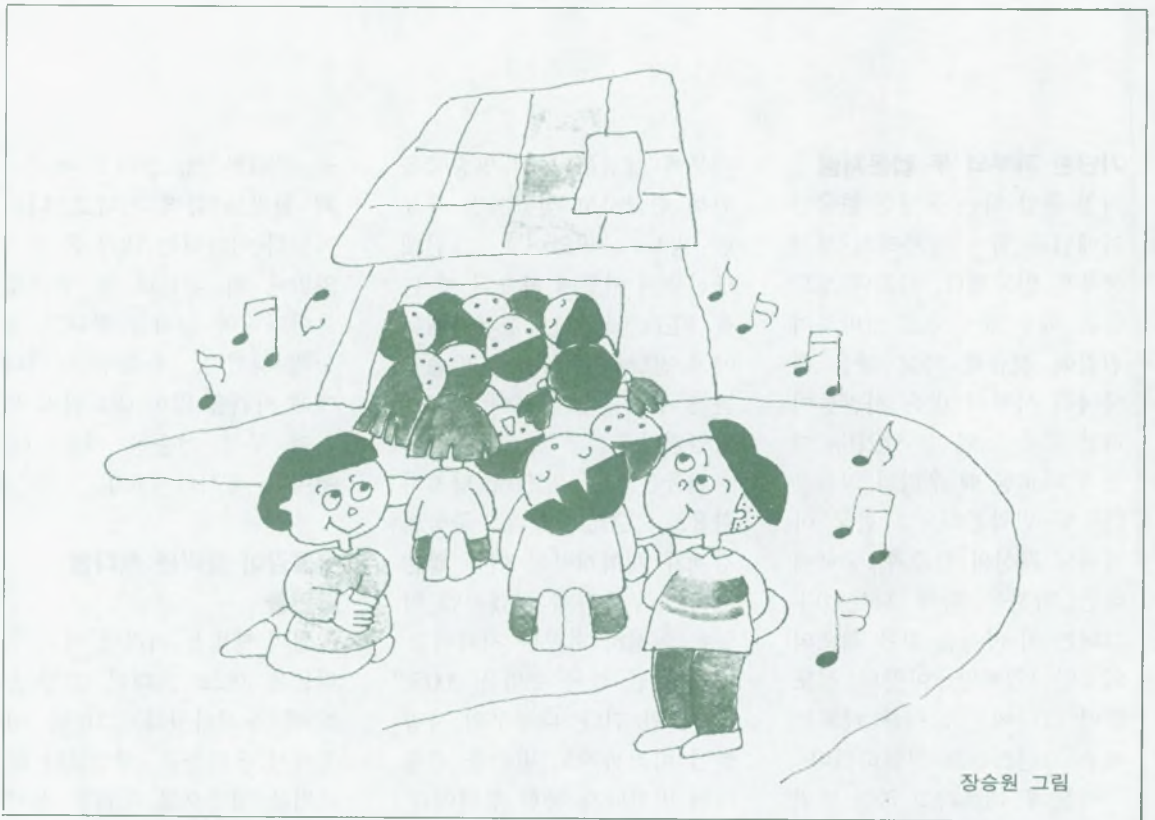
났다. 아버지가 핍박받고 투쟁 당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동참했다.

한번은 아버지가 왕명도(王明道)에게 보낸 편지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물어 본 내용이 있었는데, 정부측에서 이 편지를 중간에서 압수하였다. 아버지를 심문하는 당 간부가 W 아저씨에게 편지 속에 있는 오병이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자 그는 그것이 아버지가 왕명도에게 전해 주는 비밀암호라고 했다. “五餅”은 그곳에 5백 명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二魚”는 2백 자루의 총이 있다는 의미라고 귀띔하였다. 그 후 아버지는 W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매우 괴로워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이시……

40년 동안 주님을 배역했던 이 탕자를 결국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다. 40년 만에 돌아온 W아저씨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어릴 적 나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언제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내게 한 마디 말도 건네 준 적이 없었으나 지금 그의 모습은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지 모른다. 그는 아버지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마다 찬송을 인도하신다. 그날의 집회는 밤늦게 마쳤다.

주일에 우리는 이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당은 일찍이 한 캐나다 목사가 증축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50년은 된 것같이 보였다. 나는 이 예배당이 나의 고향 마을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산 증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건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시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간 연유와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향과 교회를 떠나 이 교회가 텅텅 비게 된 사실, 그리고 공산당이 성에 들어와 각 인민대표를 모아 놓고 대회를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회의 중에서 큰 소리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 모든 사실을 생생히 증명할 것이다.

이 예배당은 또한 패역한 군중들이 아버지를 욕하며 그를 강대상에서 끌어 내렸던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이후 몇십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해야 할 성스러운 곳이 계급투쟁의 현장과 정치전쟁의 전쟁터로 변해 버린 것에 대해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건물은 다시 예배당으로 회복되어 아름다운 찬송가 소리가 그 끔찍한 살인 현장의 구호를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 이 예배당은 낡고 오래되어 허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벽의 칠은 다 벗겨지고 창문도



다 부숴졌다. 그 웅장한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거대한 아치형 창문의 스테인드 글래스도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정문 위쪽에 쓰여있는 “上帝臨汝”(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네 글자는 아직도 뚜렷하다.

겨울철 농한기에는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1천8백 명에 달한다. 평소에는 1천여 명 가량 참석한다고 한다. 이 건물이 처음 완공될 때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몇 배나 늘어났는지 모른다. 우리가 도착한 그 날은 농한기가 아닌데도 본당은 성도들로 꽉 들어찼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30리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온다. 심지어는 50리 밖에서 자전거

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

주일예배의 형식은 매우 간단하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한다. 예배가 시작되자 바로 사회자가 “지금부터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하세요.”라고 광고를 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일어나 강단 앞에 있는 마이크 옆에 일렬로 줄을 섰다. 간증하는 이들마다 첫 마디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였다. 비록 마이크 시설이 변변치 않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경건했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했다.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려는 모습이였다.

주님을 위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특별한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간증이 끝난 뒤 다시 찬송이 시작되었다. 기쁘게도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풍금 한 대가 생겼고, 한 청년이 봉사하기 위해 반주를 배웠다. 그들의 애창곡은 시편 23편이었다. 은은하면서도 맑은 그 찬송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다. 환난에서 살아 남은 이 성도들, 혹은 고난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이라는 시구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기난한 과부의 두 헛돈처럼

며칠 동안 나는 동행한 한국인 자매님과 함께 몇차례의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이곳의 성도들은 매우 순수하고 소박하며 진리에 갈급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빈약했다. 그 한국 아가씨도 자신의 간증과 중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었다. 그녀는 이 마을을 찾은 최초의 외국인이었지만, 이곳의 성도들이 그녀에게 보여준 태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진실하였다.

며칠 후 대표라고 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자신들의 헌금을 받아 달라며 가져 왔다. 내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멀리서 온 한국 아가씨를 위해서 꼭 헌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기에 마지못해 그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받았다. 나는 그분들에게 시카고에 있는 FEBC(극동방송국)의 사역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 돈을 그곳에 헌금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분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의아해 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그곳을 위해 헌금하고 싶어하고 또 그럴 능력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良友, 益友』(극동방송의 프로그램 제목)를 듣습니다. 이 방송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방송국을 위해 헌금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곳에 왔으니 이 돈을 FEBC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방송을 듣는 우리들의 감사의 표시로 말입니다."

헌금은 모두 2,150元(당시의 환율로 220\$)이었다. 중국의 경제가 개혁개방된 이후 많은 지역이 부유하게 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빈곤한 지역이고 주민의 월 평균 수입은 200元도 채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다. 내가 아는 한 가정은 4식구가 월 100원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데 가장인 남편은 병석에 누워 있다. 물가가 오르는 요즘 100원으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이번에 FEBC를 위해서 이 가정은 30원을 헌금하였다.

미국인들의 두 끼 음식값밖에 안 되는 220달러지만 나는 마치 이 돈이 성경에 기록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처럼 생각되었다. 알알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갈급한 심령들의 차고 넘치는 사랑의 표시이며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짧은 7일이 지나고 드디어 이 땅을 떠날 날이 되었다. 고향 친구들과의 소망과 형제자매들의 사랑

을 간직한 채, 그리고 어머니의 원망도 함께 지니고, 나는 떠났다(어머니는 내가 온 지 7일밖에 안 됐는데 또 밖으로 돌아다니며 집회를 한다고 속상해 하셨다. 그 동안 어머니에게 시간을 많이 내드리지 못하여 무척 죄송한 마음이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종인들

칠월의 땀별을 머리에 이고 우리들은 어느 오래된 고성(古城)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들은, 땀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섬기려는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 자매는 나와 비슷한 세대에 태어나 나와 비슷한 체험을 했지만, 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엔 마음이 강박하여 주님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녀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

12살 때 그녀는 불치의 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마치 소설 속의 주인공 공이나 걸리는 줄 알았던 희귀한 병 백혈병에 걸렸던 것이다. 의사는 그녀가 며칠 못가 죽을 것이라고 했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했고 결국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그녀는 병이 나

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 하며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사건
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백혈
병이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숨이 곧 끊어질 듯했고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다. 어느
북서 지방의 허허벌판에 있는
농가의 방에 누워 있던 그녀를
위해 한 자매가 기도를 해주고
그냥 떠났다.

어두컴컴한 석유 램프 빛 밑
에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육
체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느꼈다. 몸 하나는 그대로 방
에 누워 있고 다른 하나는 하
늘로 올라가서 자기를 뺀히 내
려다보았다. 그 때 갑자기 푸
른색 옷을 입은 네 명의 사람
이 걸어 들어와 그녀를 구조침
대 위에 눕어 놓고 방을 나갔
다. 문 앞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손에 커
다란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 서류를 열어 보더니,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그
녀를 다시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
워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
이 그녀의 인종을 꼬집으며 이
렇게 말하였다.

“네 병은 다 나았다. 이제 다
시는 약 먹을 필요가 없다.” 이
후 모든 화면이 사라지고 눈을
떠보니 여전히 석유램프가 켜
져 있었고, 그녀 곁에는 아무
도 없었다. 갑자기 그녀는 갈
증이 나서 물을 마셨다(이전에
암세포가 그녀의 목구멍을 막



장승원 그림

고 있어서 물을 전혀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병은 완
쾌되었으나 마음 속에는 여전
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것
은 일전에 꾸었던 꿈 때문이었
다. 꿈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녀가 일생동안 지
은 죄를 열거하면서 분노에 찬
말투로 꾸짖었다. “너같이 죄
많은 인간은 예수님도 원치 않
는다!” 그녀는 이 꿈이 사탄의
공격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받아 주지 않는다
고 믿었던 것이다.

그 후 그녀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이 많고 친
절한 이 목사님은 전에 한 번
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기도를
마치자 그녀에게 고개를 들라
고 말하면서 그녀를 주시하였
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자신
이 받은 방언을 통역해 주었다.
주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나
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
고 했다. 그녀는 이 말을 주님
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것
을 굳게 믿었다.

주님이 자신을 열납했다는
것을 깨닫자 그토록 완악하고
목이 곧았던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그녀의 마음 속
깊이 새겨졌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뒤부터 그녀는 매일 새
벽 3시 30분에 일어나 빨래판

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변화해 갔다. 당시 그녀와 교제중이던 애인은 그녀와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두 사람의 생일을 결혼 날짜로 정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죄명은 “불법적인 종교 활동”이었다. 감옥에서 19개월을 지낸 후 출감하자마자 또 19개월의 감옥 생활비를 내야 했다. 정부측에 호소를 했지만 대답하기를 심문을 받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며 당신들은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시 받는 와중에서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친해졌다. 과거에 겪었던 경험, 장래의 비전, 계획,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과 열정적인 봉사에 깊이 탄복했으나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매우 바쁘고 피곤하며 책임져야 할 사역과 봉사가 너무 많다. 이런 가운데 누가 그녀에게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는가? 그녀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사실 중국에는 이 자매처럼 자신의 몸과 시간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종종 자신의 종들을 통해 역사 하신다. 그 유명한 임헌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무명의 전도자들까지 모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7, 8 명의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모두 내 아버지뻘 되는 70세 안팎인 분들이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그들의 업무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우리 아버지도 하루 24시간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다가 심장병으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진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북서 지방에 사시는 ‘에바브로’라는 할아버지가 손수 쓰셨다는 복음 간행물을 보았는데 비록 그분을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신학저서를 읽어 보니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 종일 밖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전도사는 부인이 해산할 때에 이르러 급히 돌아가 병상 옆을 지키다가 경찰에게 연행당해 수감에 채워져 끌려갔다.

나와 동기인 한 지체를 통해 나는 큰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외국에서 신학교육을 마친 그는 중국에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고, 아마 지금은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린 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왔다.

이 수많은 주의 종들의 노력과 수고가 없었다면 중국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천국의 영화와 상급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들과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해외의 지체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사역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활을 위해 기도하자. 그들은 줄곧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본으로 삼고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자. 우리 모두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자.

“주여!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소서.” ◇

왕에스터/재미 중국유학생

번역/ 차이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혜돈

이 책은 국제예수전도단의 총재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저서로서, 저자의 말대로 두 부류의 독자, 그것도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로 이 책을 읽는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한 책이다. 한 부류는 전임으로 일하는 선교사나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정문제에 관해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독자층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평신도들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는가의 문제이다. 이 책에는 오로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전임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재정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또한 정확하게 공급하는 것을 많은 사역자들의 간증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구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한 흥분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믿음으로 베푸는 삶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 그리고 베푸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지에 관련하여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과거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사는 삶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처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아뢰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을 통해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줄타기 밧줄 위로 발걸음을 내딛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 처음이든 나중이든, 언제나 기쁨과 힘이 솟아나게 된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재정원칙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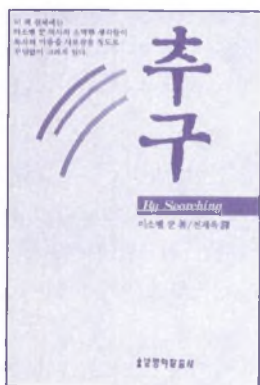
이혜돈/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직장부 대표간사



추구

-중국의 리쑤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소벨 쿤의 자서전

이소벨쿤 著 / 전재옥 譯 / 생명의 말씀사 刊
/ 181 쪽 / 3,300원



이 책은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리쑤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소벨 쿤이 선교사로 부름받아 중국에 가기 이전의 젊은 시절을 기록한 책으로 “이소벨 쿤의 자서전”의 전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소벨 쿤 여사는 20년 간 중국내륙선교회 선교사로서 역시 선교사였던 그의 남편과 함께 리쑤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1950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자 인접국인 태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 책 전체에는 저자의 소박한 생각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꾸밈없이 그려져 있다. 쿤 여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파고드는 신앙적인 갈등을 숨김없이 고백했으며 자신의 사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소벨 쿤은 어려운 상황을 아름답게 극복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을 배경으로 해서 그는 결국 중국 선교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중국 선교사로 보낸다.

이 책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것도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사 후보생이나 헌신자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9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을 이해하는 중국 입문서

이벤허 著 / 김영사 刊 / 313쪽 / 5,500원



기존에 나온 일반인을 위한 중국관련 서적들이 대부분 단편적인 여행 체험기나 상식적인 문화풍습 소개에 불과했다

면, 이 책은 1차적인 중국어 자료와 몇년 동안 중국 대륙을 살살이 돌아다닌 저자의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본격적인 중국 개론서라 할 수 있다.

저자인 이벤히 씨는 우리 나라 최초의 중국 유학생으로 현재 중국의 사상사와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현대 중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거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한국인의 관점에서 본 현대 중국에 관한 개론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 작업에 착수하였다.”라고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밝혔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대 중국의 경제, 문화, 풍속, 예술, 교육, 사회문제 및 현대 중국의 고민과 갈등 등 9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 중국의 오늘을 보다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대륙의 딸

-험난한 역사를 헤쳐 온 중국
여인 3대의 이야기

장영(張戎) 著 / 노혜숙 譯 / 대홍 刊 / 상하 각
390쪽 / 각권 5,000원



이 책은 청조 말기부터 일본의 만주 점령, 모택동의 공산혁명과 문화 대혁명에 이르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저자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자 자신에 이르는 중국여인 3대의 파란만장한 삶의 기록이다.

이 이야기는 봉건 말기 일본의 점령하의 만주에서 시작한다. 전족을 한 외할머니는 입신출세를 꿈꾸는 아버지에게 의해 지방군벌의 첩이 되어 저자의 어머니를 낳게 된다.

어머니는 용기 있고 도전적인 여성으로 성장하여 공산당 혁명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게 되고 혁명열에 불타는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저자는 공산당의 고위관리인 부모 밑에서 특권층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지만, 청소년기에 문화대혁명을 만나면서 홍위병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시련과 고통을 겪는 부모의 좌절을 목격하면서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현대 중국이 겪은 역사의 질풍노도 속에서 상실되는 인간성의 비극, 그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중국 여성들의 용감하고 끈질긴 삶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있었던 저자는, 모택동의 독재 정치가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파멸하게 만들었으므로 중국을 무지와 증오로 가득 찬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거친 중국인 본연의 인간성뿐 아니라 그 역사의 산물인 오늘의 중국인들의 인격 속에 깊이 각인된 쓰라림과 고통 또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물에 나타난 중국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종교

● 종교사무국의 관리가 성도(成都)수도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다.

사천성 종교사무국의 관리가 성도 지역의 한 수도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자 수도원측의 불만을 사 대부분의 원생들이 잇달아 수도원을 떠나 자기가 속한 교구로 돌아갔다. 이번 원생들의 거부사건은 1982년 중국에 수도원이 창립된 이래 처음 일어난 시위이다. 이 수도원은 중국 남서부 귀주, 사천, 운남 3성의 정부 공인을 받은 천주교회신학원이며 1984년에 창립됐다. 이 수도원의 명예원장인 진적중(陳適中) 주교도 학생들이 떠난 이유는 종교사무국의 간섭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수도원이 무신론자인 정부관원에 의해 관리된다면 수도원은 아예 해체해 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公教報 94. 5. 13)

● 중, 기독교 급속 확산

정부의 탄압과 각종 교파의 난립과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 수가 5천만에서 7천만을 기록하는 등 중국이 기독교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중국의 개종물결은 현 중국의 종교적 상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최근 '뉴스위크'는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복음화 열기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과 최근의 광적인 돈벌기 열풍으로 생긴 도덕적 공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대(對) 바티칸 단교 지지로 공인된 중국천주교애국회는 신도 수를 4백만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하 카톨릭 신도 수는 6백만으로 추정된다. 또 공인된 중국기독교 삼자애국 운동위원회는 신도수가 1천1백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의 개신교도는 3천~6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기독신보 94. 6. 4)

● 중국의 성경 반포 현황

애덕인쇄소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가 기증한 용지를 이용하여 중국의 천주교인을 위해 5만부의 성경을 인쇄한다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총무 쟈-리 짜이 목사는 전했다. 1987년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전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가동하기 시작한 애덕인쇄소는, 1993년 10월 16일에 6백만 부의 성경을 인쇄하여 중국 전 대륙에 반포하였다.

지금까지 애덕인쇄소를 통해 반포된 성서는 88년 50만여 권으로 시작해 89년 75만여 권, 90년 1백 38만여 권, 91년 1백24만여 권, 92년 96만여 권, 93년 1백65만여 권을 발행했으며 올해 2월까지 24만여 권을 발간, 이제까지 총 6백76만4천여 권이 출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찬송가는 성서보다 적어 89년 39만 권을 발간한 것로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총 3백99만여 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음신문 94. 6. 5)

● 동북신학원 명성 찾는다

지금으로부터 1백년 전에 세워졌으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존폐위기에 있는 중국 「동북신학원」이 한국교회의 활발한 후원으로 전통과 명성을 되찾게 됐다.

동북신학원은 중국정부 및 중국기독교협회로부터 공인받은 13개 신학대학 가운데 조선족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심양에 위치한 유일한 신학대학이다.

동북신학원 후원사업회는 지난해 7월 각 교단 30여 명의 목회자들로 준비위를 구성했으며 특히 중국의 10억 인구에 효과적인 선교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동북신학원 후원사업을 이에 대한 모델로 삼고 중국정부 및 중국기독교협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북신학원(원장 구경관)은 1894년 영국선교사 존 로스 박사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 조선족반(2년제) 24명, 한족반(1년제) 54명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94. 6. 28)

● 중국 새 종교등록법 초안 완성

중국기독교협회(CCC 회장 丁光訓) 부회장 한문조 목사는 최근 CCC가 발행하는 회보 『애덕통신(Amity News Service)』과의 회견을 통해 종교활동과 집회장소 등록법안의 초안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동 법안의 초안은 지난 3월 새 종교법규가 발표된 이래 정부 당국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듭해 온 것으로서 중국기독교협회뿐 아니라 삼자애국위원회 상임위원회 임원들도 법안 검토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공보 94. 7. 9)



주보가 따로 없는 중국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판. 예배 때에 봉독하는 성경 본문과 설교제목이 써여있다.

한 중 관계

● “중국, 아직도 먼 나라”

중국과 러시아대사관에서 비자(입국사증)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나 접수창구가 적고 직원들이 불친절해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신청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중국대사관의 경우,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하루 3백~4백 명(1천여건)의 비자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대사관 영사부의 접수창구가 3개뿐인데다 오전 9시에서 11시 30분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어 하루 1백명 정도의 신청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섰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가곤 했다.

(동아일보 94. 5. 24)

● 강택민 11월 방한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한국을 공식방문하게 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이 될 강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교류사상 중국 국가원수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다.

지난 92년 양국수교와 노태우 전대통령의 방중 이래 한중 양국정부 사이에 끊임없이 논의돼 온 강주석의 방한협상은 최근 급진전을 보여 양국정부간에 11월 중 방한원칙에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4. 5. 27)

● 한국 기자 4명 강제 출국

중국당국은 기자 활동중 중국측의 외국기자에 관련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명의 한국 기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다. 한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강제출국이 6·4사태 5주년 기간에 외국기자의 수(數)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강력히 밝혔다. 강제 출국당한 대전문화방송 TV 기자들은 山東에서 만 인터뷰하라는 정부당국의 규칙을 어기고 몰래 남경에 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6·4사태 5주년이 다가오기 전 2번 제로 기자를 강제 출국시킨 예이다. 전에 미국의 TV 기자가 운동권 인사인 왕단(王丹)의 집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공안국 직원에게 들켜 제재를 당하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明報 94. 5. 28)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로자 2만명 현장배치**

빠르면 30일 네팔인 80명이 입국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연수형식을 빌린 외국인 근로자 2만 명이 입국, 산업현장에 배치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천명, 베트남 2천4백 명, 방글라데시 1천6백 명, 미얀마·스리랑카 각 1천 명, 파키스탄·인도네시아·네팔 각 8백 명, 이란·태국 각 3백명 순이다. 이 중 여자는 17%인 3천4백3 명이다. (조선일보 94. 5. 30)

● **한-중합작 油化단지 연내 착공**

대륙종합개발(회장 장덕진)이 중국 최대 유전인 후룡강성 대경(大慶)유전지역에 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한다.

만주벌판의 황무지 1억 1천 4백만 평을 옥토로 가꾸기 위한 삼강평원 농업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한 대륙종합개발의 장 회장은 5일 오전 부근시에서 북경주재 한국특파원들과 회견을 갖고 “중국측의 요청으로 중국전체 원유생산량의 49%를 차지하는 대경지역에 총투자규모 10억 달러의 석유종합화학단지를 건설키로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9월 중 1차로 5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가계약을 중국측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94. 7. 6)



● **중국 “김정일 중심 단결을”**

중국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은 9일 북한 주석 김일성의 사망에 조전을 보내 최고의 애도를 표했다고 중국관영 중앙 TV가 보도했다. 등소평은 이 조전에서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영수를 잃었고 본인은 가장 친밀한 전우이자 동지를 잃었다”고 말했다. 등(鄧)이 김일성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다. 등에 이어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겸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李鵬 총리, 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3명도 공동명의로 조전을 보내 최고의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강택민 등 3인의 중국 지도자들은 이 조전에서 “조선인민들은 김일성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김정일 동지를 지도자로 하는 조선 노동당 주위에 단결, 조선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 7. 10)

● **중, 국경수비대에 특별경계령 하달**

중국은 김일성 북한주석의 사망 후 조선족 자치지역인 길림성 주둔군에 특별 경계령을 내렸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9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 연길의 소식통들을 인용, 길림성 주둔 인민해방군 국경수비대에 북한에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경계령이 하달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한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6개 국경 관문을 한시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동북북 길림성과 요령성은 북한과 9백60 km의 국경을 공유한다. (국민일보 94. 7. 11)

● **중국, 한국여행 자유화**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13일 중국 국가여행국(旅遊局)과 북경시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한국 및 러시아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월부터는 중국인의 한국 및 러시아여행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하고 시행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작년 대전 엑스포의 개막을 앞두고 국내 여행업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지난 6월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업에 참여하고 있는 23개 여행사가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은 1백73개 단체, 2천9백20 명이다. (국민일보 94. 7. 13)

● **중국 교포 26명 밀입국**

16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통영군 사랑면 수우도 동쪽 1백 미터 해상에서 광태환(郭泰煥) 씨 등 중국 교포 26명이 59톤 급 중국 화물선 제831 요장호에서 삼천포선적 유람선 뉴 엔젤호(선장 신호철)에 옮겨 타고 삼천포항으로 밀입국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검거돼 충무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소학교 교사 2명을 포함, 주로 길림성에서 농업에 종사해온 교포 2세대인 광 씨 등은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요장호 선장 石 씨에게 1만~3만 원의 중국돈을 지불하고 지난 14일 정오쯤 요령성 대련항을 출발했으며 우황청심환 등 중국 한약재를 많이 갖고 있었다. 중국교포들이 선박을 이용, 단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 94. 7. 17)

정치, 외교

● 중-미 관계개선. 중 환원성명 발표

중국은 27일 미국이 인권과 무역 연계 정책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지위를 갱신키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결정이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4. 5. 28)

● 萬里등 원로 6人 등소평 사후 권력 주도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은 최근 중앙 정치국에서 자신의 사후 중대문제 발생시 萬里 前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6명의 원로와 상의하고 지난 92년 제14차 공산당전국대표에서 폐지된 중앙고문위를 다시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홍콩의 星島日報가 北京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鄧小平이 萬里, 薄一波, 谷牧, 秦基偉, 楊得志, 余秋里와 상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은 오는 8월 90세가 되는 鄧小平의 건강상태를 볼때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 6. 16)

● 중국 부패척결 가속화

중국 공산당은 부패의 척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0개의 부패 調查組를 파견한다고 홍콩언론들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이미 구성된 조사조가 국무원의 24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파견돼 전국적으로 만연된 부패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조사조 파견은 18일 북경에서 열린 조사조 전체회의에서 공개됐으며 이들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전국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말했다.

(동아일보 94. 6. 21)

● 鄧小平 개혁개방 변경불가

중국 최고지도자 등소평은 최근 劉華清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대동하고 山東省 靑島를 둘러보며 국가발전의 세 가지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 홍콩의 중국계 신문 文匯報가 '북경의 권위 있는 소식통'을 인용, 23일 보도했다.

등소평의 건강악화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그의 행방과 지시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지난 2월 상해에서 중국 국영TV인 中央電視臺(CCTV)에 모습을 드러낸 후 처음이다.

(동아일보 94. 6. 24)

● 江澤民 권력 계승

중국 최고 지도자 등소평(89)은 20여명의 최고위급 장군들과 올 초 「비밀회담」을 갖고 강택민(67)을 중심으로 한 "질서있는 권력계승"을 지시해 줄 것과 자신의 사후 발생할 불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4일 정통한 군사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주요기사로 비밀회담에는 인민 해방군대 大軍區의 사령관과 정치위원 등 중국의 최고위급 장군들과 강택민의 주요 라이벌 중 한 명인 양상곤 전 국가주석(86)도 참석했으며, 등은 이 자리에서 '문제 없는 권력계승'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밝혔다.

(국민일보 94. 6. 25)

● 知財權 보호규정 중국 全人大 통과

중국은 5일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요구와 관련, 저작권 위반자들을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통과시켰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는 이날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고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 항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통과시켰다고 광명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94. 7. 6)

● 대만 對中 직항로 허용

대만 관광객 24명을 몰살시킨 千島號 사건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됨에 따라 대만정부는 중국과 통신 항공 및 선박 운항에 있어서의 직교류를 허용키로 했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MCA) 高孔廉 부주임위원이 7일 밝혔다.

高 부주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대중국 대륙정책 검토를 위한 지난 이틀 간의 고위당국자회의에서 교통부의 직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했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에 대해 항공 및 해양에서의 대만의 법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94. 7. 6)

● 중국은 26명의 기자를 구속했다.

미국 외신기자클럽의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 32개 국가에서 최소한 148명의 신문 종사자가 구속당했다. 그 중 중국이 구속한 기자는 26명이나 되어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에 구속된 신문 종사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고 2위가 쿠웨이트 22명, 그 다음은 이디오피아 18명, 그리고는 터키와 시리아 각각 12명이었다. 미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들 나라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해서 이들 구금된 기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왜냐 하면 이는 UN 인권 헌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이다.

(明報 1994. 4. 29)

● 중국 긴급물가 통제

중국정부는 연 2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물가통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 중 전국 각지에 물가단속반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같은 당국의 방침은 천안문 사태 5주년에 때맞춰 발표돼 주목된다. (조선일보 94. 6. 4)

● 중국 신 노동법 발표

중국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의 고용 금지와 외국기업의 중국인 노동자 학대,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법을 발표했다.

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런던무역관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인 이 노동법은 하루 8시간 노동, 최저 임금제, 주 1일 휴무,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에 대한 노동 강요 금지, 90일 간의 출산 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노동법은 또 중국노동자에 대한 외국기업가들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94. 7. 13)

● 북경시 국영기업에서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관보인 청년일보에 의하면 북경시에서 올 7월부터 국가기업의 실업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주기로 했다. 북경시 노동청 국장 유지화(劉志華)는 7월부터 실업노동자들은 수입문제로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 기업은 49.5%가 돈을 못버는 상태이고 3분의 1의 국가 공무원은 모두 남아도는 인원들이다.

청년일보에 의하면, 7월에 실시한 북경시 사회복지망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실업수당은 최저 매달 일 인당 145원에서 최고 172.5원이다. 이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들이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기 전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香港 聯合報 94. 6. 8)

● 중국 "자동차 기간산업 육성"

중국은 4일,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자동차산업을 21세기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국산화 등을 골자로한 새 자동차 산업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인민일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중국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3~4개의 국내 자동차 기업을 설립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일보 94. 7. 6)

● 선진국 「중국시장 진출」 경쟁

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의 중국 시장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과의 상호방문외교를 통해 모두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각종 협정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은 중국 자동차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독일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앞세우지 않는 경제협력력을 다짐했다.

(동아일보 94. 7. 6)



많은 외자(외국자본가) 기업들, 특히 홍콩기업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외부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 안전 조건을 전혀 무시함으로 인해 화재, 건물와해 등 각종 사고로 외지(다른 성)에서 온 꽃다운 중국 노동자 아가씨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생명을 잃기도 한다.

● 중국, 대기오염 심각

중국은 93년 현재 급속한 산업화로 지난 92년보다 매년과 황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해 호흡질환이 크게 늘었다고 중국 신문들이 4일 국가 환경보호국 연례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대기오염이 폐암, 기관지염, 폐렴과 다른 호흡기 질환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 도시의 폐암 사망률이 지난 88년 10만명 당 18.5명에서 93년 34명으로 증가해 총 11만 6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94. 6. 5)

● 중국 남서부 대홍수, 이재민 4천8백만 명

중국은 20일 남서부 베트남 접경지역인 광서장족자치구와 후난성, 광둥성 등 6개 성에 지난 6주간 몰아닥친 폭우로 4백38명이 숨지고 6천4백70명이 다치는 것을 비롯해 4천8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세기 최악의 홍수피해를 맞아 중국은 이날 국제 원조를 요청했다.

리펑 중국총리는 이날 국무위원회와 국무원 비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했으며 쉰우자화 부총리가 중앙대표단을 인솔해 인명구조, 식량공급 확보와 전염병 방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호남성, 장시성의 구조작업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현지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94. 6. 21)

● 중국, 어린이 여성납치 성행

최근 중국에서는 어린이 유괴사건이 부쩍 늘고있다. 관영 법률신보에 따르면 지난 91~92년 1년 사이 전국적으로 무려 5만명 이상의 여자와 어린이들이 납치 또는 유괴되었다. 광둥성에서만도 93년 한 해 동안 4백 명이 유괴·납치됐으며 이같은 추세는 해마다 50%씩 늘어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범죄가 늘게 마련이고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되면서 인명경시 풍조도 확산되는 법. 그러나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중국의 납치·유괴사태는 단순히 돈 때문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자납치는 「성의 상품화」란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어린이 유괴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 지나친 인구억제정책에 따른 생각치 못한 부작용인 것이다.

(국민일보 94. 6. 25)

● 회복해 가는 중국의 자선사업.

오랜 기간 동안 금지되어 왔던 자선사업이 중국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최근 상해자선기금회가 비영리단체로 탄생한 데 이어 중국 요녕성자선사업 총회도 이미 심양시에서 창립되었다. 이 밖에도 광주(廣州)시 자선회 그리고 중국 자선기금총회도 준비중이다. 상해 자선기금회는 “人人爲我, 我爲人人”라는 구호로 사회공동도덕을 선도하여 중국 내외 각처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각종 자선모임을 주최할 것이다.

창립한 지 일 주일 만에 국내외 자 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 6백만 원이 모금되었다. 天津, 南京, 福州, 廣州 등 대도시에서도 고아, 과부, 장애자 및 극 빈자를 위한 사랑의 기금 활동을 했다.

관계인사의 말에 의하면 중국같이 실수익 인구가 있는 나라에서 자선사업의 영역은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星島日報 94. 5. 14)

● 휴가와 여가시간을 이용한 군인들의 “한탕벌기”

중국 군대 某 사단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역 군인의 직업선택, 시장경쟁의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군인들이 몰래 장사하고 “한탕벌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종사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황이 있다.

첫째는 휴가를 이용하여 직장을 나가는 것이다.

둘째는 병가(病假)를 신청해서 직장을 나가는 것이다.

셋째는 여가를 이용해서 부업을 갖는 것이다.

제대 후의 취업문제는 현역군인들의 보편적 관심사다. 근래에 적지않은 성시(省市)에서 제대를 앞둔 군인들에게 경제실체와 제3의 산업 및 개인사업 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역 군인들이 모두 군복무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적극적으로 기술, 예능을 습득하려고 한다.

(明報 1994. 5. 12)



중국 해방군의 고위급 장성들

● 「독서무용론」의 영향을 받아 작년 중국에서 약 7백 개의 서점이 사라졌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사회의 오락 장소가 많아짐에 따라 중국에 도서를 구입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서점이 매년 378개가 위축되어 작년 한 해 동안 최소한 7백 개의 서점이 없어졌다. 중국은 60년대에 “독서무용론”의 물결로 인해 서점의 장사가 크게 영향을 받았었는데 90년대로 들어서자 경제조류의 물결로 인해 독서 열기가 다시금 위축되고 있다.

중국 주민이 책을 사지 않는 이유는 첫째, 중화사회에는 원래 머리가 비상한 지식인이 노동자보다 수입이 더 적다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공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팽배하다. 더욱이 지금 중국사회에 비디오, 디스코, 전자오락, 가라오케 등 유희, 오락 장소가 증가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니 요즘 청년들이 돈을 써서 따분한 책을 살 리가 없는 것이다.

중장년, 노년층들은 사고 싶어도 책값이 워낙 비싸서 구경만 하고 사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도서 구입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따라 서점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가고 큰 도시나 작은 도시를 막론하고 서점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香港 聯合報 94. 5. 10)

● 중국은 47개 縣 市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다.

공안국 신문 대변인은 국무원의 허락을 받아 중국 내의 47개 현,시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개방이 허락된 현시는 모두 1,747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국의 제4장 20조에서 외국사람으로서 유효비자와 거류증만 소지하면 다시 여행증을 신청할 필요없이 이곳들을 여행다닐 수 있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곳은 다음과 같다.

山西省

삭주시(朔州市), 훈주시(忻州市), 유차시(榆次市), 원평시(原平市), 광주시(廣州市), 번치현(繁峙縣), 정양현(定襄縣), 기현(祁縣), 석양현(昔陽縣), 교성현(交城縣), 이석현(離石縣), 류임현(柳林縣), 방산현(方山縣), 임현(臨縣), 흥현(興縣), 습현(隰縣), 포현(蒲縣), 곡옥현(曲沃縣), 신강현(新絳縣), 직산현(稷山縣), 하진현(河津縣), 임의현(臨猗縣), 윈현(垣縣), 강현(絳縣), 하현(夏縣), 평륙현(平陸縣), 영제현(永濟縣)

江西省

파양현(波陽縣), 횡봉현(橫峰縣), 만년현(萬年縣), 여간현(余干縣), 광풍현(廣豐縣), 옥산현(玉山縣), 안의현(安義縣), 연화현(蓮花縣), 무녕현(武寧縣), 수수현(修水縣), 분의현(分宜縣), 임천현(臨川縣), 자계현(資溪縣), 협강현(峽江縣), 길수현(吉水縣), 만안현(萬安縣), 안복현(安福縣), 신평현(信豐縣)

安徽省

귀지시(貴池市)

雲南省

맹랍현(勐臘縣)

(文匯報 94. 6. 14)

填字遊戲(퍼즐)정답

		機	器	人	政	
			量		府	上
師		巴		意	義	班
範		黎	明		工	作
大			星	星		法
學	壤			河	馬	師
		蛋	炒	飯		虎
				鍋	巴	膏
						藥

중국을 주께로

기도 캘린더

**“형제여! 당신이 만일 그 지역을 얻고자
한다면 그 땅은 먼저 당신의 무릎으로
가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는 ‘기도’입니다. 매일 중국을
위해 무릎꿇는 기도가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영적
상황과 경제, 정치, 사회 전 영역에 관
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위해 매일 기
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광활한
땅 중국은 변할 것입니다 !!!

주일

중국의 교회를 위하여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돈의 유혹을 견디다 못해 고향과 교회를 버리고 도시로 돈 벌러 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 어떤 지도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업을 차려 돈벌이를 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또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풍토 속에서 교회가 종교사무국과 기독교 협회에게 돈을 줌으로써 인위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한다.

● 지도자들이 돈에 의지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 경제의 개방과 개혁, 배금사상의 충격 속에서 중국의 교회들이 순결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지도자와 신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중국의 지체들을 위하여

중국 전역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영혼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삶을 헌신하고 있다.

● 중국의 사역자들이 늘 성령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과 동행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들의 생활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도록

월

중국의 신학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중국 전역에 총 13개의 인가받은 신학교가 있고 이 외에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육기관이 각 지역에 있다. 현재 기독교 열풍이 부는 중국에서 영적 양식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만한 지도자의 부족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 장차 중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들이 진리의 성경을 기초로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 신학교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신학원의 학생모집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목자로서 소명받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모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국의 종교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주일학교가 없는 중국의 교회에서 몇몇 선교사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주일학교를 추진중이다.

● 중국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준비중인 주일학교의 운영, 교사 강습회의 장소와 시기에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화

중국의 여성들을 위하여

자본주의 개방의 물결 속에서 중국의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성적 억압을 받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적 도구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개방에 따라 각종 향락업소와 퇴폐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또 어린이 유괴, 납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하나님께서 중국의 여성들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들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변화되어 진리를 갈구할 수 있도록.

● 날로 흉포해져가는 중국 사회의 범죄가 소탕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고 중국정부가 어린이, 여성 납치범들에 대해 엄중히 다스릴 수 있도록.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중국 전역의 농촌에서 초음파검사로 딸을 낙태하거나, 낳고 난 후에 아이를 버리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한 집안에서는 자기 자녀 심지어는 아내까지 팔아먹고 있다고 한다.

●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국인의 생명경시 풍조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며 무고한 피를 흘리는 범죄가 더이상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수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의 기독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새로운 선교전략으로써 전문인선교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여러가지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필요로 하는 중국의 상황을 빠르게 깨닫고 한국교회가 이 사역에 관심을 갖고 보다 지혜롭게 중국선교를 해야할 때이다.

● 비즈니스 및 전문 기술을 가진 크리스천 중에서 중국선교에 헌신되고 훈련된 전문인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들이 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어서(선교적 소명, 언어, 무역실무 등) 중국에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현재 중국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현지 중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국인의 중국 여행 자유화에 이어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자유화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 같다. 지금도 기술연수의 목적으로 들어와 각 지역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 한족 등이 많이 있다.

● 한국교회가 성큼 우리 곁으로 찾아온 중국인들을 추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이 정당한 대우(임금, 복지)를 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도록

목

방향을 중국과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강제출국을 기다리며 수용되어 있는 조선족 교포들의 수가 400여 명 가까이 되며, 많은 중국교포들이 마산 등지로 배를 통해 계속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다시 추방되고 있다.

- 하나님께서 불법체류로 인해 수용되어 있는 중국교포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가 개선되며 불법체류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 조선족들의 물질중시주의가 중지되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한국에서 경험한 많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현재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동포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연변에만 1,000여 명의 북한동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숨어서 망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렘22:3) 우리의 형제들의 안전을 보호하셔서 이들이 무사히 망명할 수 있도록.
-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한국 정부가 인권을 우선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줄 준비를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금

선교사를 위한 기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P선교사를 위해

- 한국의 가정들(남편과 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 한국에서 제자양육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간 조선족 지체들이 환경에 의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순전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홍콩에서 사역하는 K선교사를 위해

- 섬기고 있는 홍콩 다이포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 사모와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언어(한국어, 중국어, 광둥어, 영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는 Y 선교사를 위하여

- 중국 유학생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섬기는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도록.

중국에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J 선교사를 위하여

-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 주일학교 교사 감승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장소와 시간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도우사 참석하는 모든 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토

중국의 미전도족속을 위해 어룬춘족(鄂倫春族)

(거주지:내몽고자치구 흑룡강성, 종교:원시무속이 혼합된 자연숭배 조상숭배, 선교기록이 없는 미전도족속)

-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삶의 소망이 없는 이들이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지 않고 이 민족 가운데 효과적인 산업개발의 문이 열리도록.
- 문자가 없는 이들에게 매스 미디어 등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성경과 문서 등이 전달되어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허쩌족(赫哲族)

(거주지:흑룡강성, 종교:조상숭배, 샤머니즘)

- 문자가 없는 이 민족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본족의 문자가 창제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허쩌족으로 들어가도록.
-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음전파로 우상숭배로부터 바른 지각을 가지고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일 저런일

“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에 대한 중국선교 세미나 개최

지난 6월 27일 중국어문선교회 주최로 “중국에서의 전문인 사역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HOPE(전문인협력기구)의 민요셉 총무를 감사로 이수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이 세미나에는 9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기독교정책 및 조선족 교회 현황”에 대한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13일 남북나눔운동본부(상임의장 이문식 목사)의 초청으로 방한한 중국 길림성 종교사무국 관계자 8명이 서울영동교회에서 “중국 기독교정책 및 조선족교회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연길교회 담임목사이며 길림성 기독교협회 부주석인 유두봉 목사의 조선족교회 현황 설명에 이어, 지난 1월 30일에 제정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과 <종교활동장소 관리조례>에 관한 설명을 길림성 종교국 부국장인 주진 씨가 하였습니다.

제4기 중국선교훈련원 수료예배

지난 7월 15일 인천성광교회에서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의 제4기 훈련생 수료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4기 훈련원에서 집중과정, 기초과정, 계속과정의 총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제5기 중국선교훈련생을 모집중이며, 오는 9월에 개강합니다.

알립니다.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돕기 위한 중국선교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8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1994년 8월 22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중국미전도족속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사: 한정국 선교사 (한국 OMF 대표)

장소: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 10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1994년 10월 24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방한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 국가가 곧 중국선교 현장

강사: 전호진 박사 (ACTS 교수)

장소: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중국을 주께로” 기도합주회

중국을 주께로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주관으로 기도합주회를 갖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 및 선교 헌신자,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통해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현지 선교사들의 생생한 사역보고를 통해 최근 중국의 상황과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로.

Tel: 594-8038, 533-5497

'94 중국지역 선교대회

(China Cluster Conference) 참가자 모집

'94 선교한국 대회 이후, 중국선교 헌신자들과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인 <'94 중국지역 선교대회>가 1994. 8. 18(목) ~ 8. 20(토)까지 3일 간 중국복음선교회 주최로 열립니다.

“중국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대회의 주강사는 홍콩 FEBC Director인 노가문(盧家敦) 목사이며 참가예상 인원은 약 15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복음선교회로.

Tel: 778-3626 Fax: 773-6278

갈릴리세계선교회 제자학교 및

선교훈련원 2학기 개강

갈릴리세계선교회(GWM)의 화요제자학교가 개강합니다. 1994년 8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질 이번 제자학교에 대학생, 직장인 및 제자훈련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선교사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릴리세계선교회 선교훈련(제 2학기)이 1994년 8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매주 월·화·목 저녁 7:00~10:00)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 사무실로.

Tel: 424-1144, 424-1244

중국선교사훈련원 훈련생 모집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에서는 내년도 중국선교사역전문과정 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년(평일 주간)으로 국내교육(18개월)과 해외실습(6개월)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중국선교의 소명이 확실하며 중국선교사역에 평생 헌신할 사람으로 일반 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특정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특정 업무 5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선교사훈련원으로.

우)100-129 서울시 중구 정동 25

Tel: 318-3956, Fax: 773-6278

전문인국제협력단(Inter-Coop)

네트워크 선교훈련

네트워크 선교훈련은 유라시아 대륙의 창의적 접근지역에 있는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 연구하고 있는 Inter-Coop이 전문인 사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1991년 시작한 훈련프로그램입니다.

개척지역 선교이론, 개척지역 연구세미나, 현장사역훈련의 내용으로 진행될 이 훈련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 9개월 간 서울, 대전, 부산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본 훈련의 참가자격은, 대학 3,4학년생 혹은 졸업자, 이에 준하는 동등 학력 소지자로서 선교단체나 지역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문화권선교 헌신자나 중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문화권선교 헌신자입니다.

모집인원은 각 지역별 15명이며 접수는

1994년 8월 31일. 서류제출기한은 94년 9월 10일(토)까지(서울 관악 우체국 사서함 55호 151-600)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Inter-Coop 네트워크 훈련 담당자에게로.

Tel: 585-3142~2, Fax: 585-3543

제5회 HOPE CAN SCHOOL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학교) 개강

주로 이슬람권과 공산권인 창의적 접근지역(Creative Access Nation)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HOPE는 급증하는 선교 관심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수준 높은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2회에 걸쳐 HOPE CAN SCHOOL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1994년 9월 5일~12월 5일(매주 월요일 저녁 7:00~9:30)까지이며, 창의적 접근 지역의 소개 및 선교의 필요성, 전문인 선교, 선교전략, 선교사의 자질과 갖추어야 할 부분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조별 토의, 발표 및 선교지를 위한 기도, 선교사와의 교제)이 진행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994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HOPE 사무실로.

Tel: 533-6057, Fax: 595-7809

제 3회 PWM 하기선교훈련원 개설

PWM(해외협력선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발굴,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기선교훈련원을 개설합니다. 1994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김화수양관에서 열리는 이번 선교훈련의 강사는 싱가포르 AFC 책임자인 Dr. Joseph Tan 및 PWM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대학 2년 수

료 이상 학력의 남녀면 참여할 수 있으며 8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등록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Tel: 565-3431~2, Fax: 564-8462

『성서의 발자취를 찾아서』

중동지역 선교여행

중동선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성서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중동지역 선교여행을 실시합니다. 199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리고 1995년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등을 여행합니다. 비용은 2,050,000 원이고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동선교회 사무실로.

Tel: 216-4947 Fax: 216-4948

일꾼을 찾습니다.

해외협력선교회(PWM) 선교사 모집

PWM 선교회는 평생 또는 단기 선교사로 선교지 개척을 하기 위한 유능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일반대학이나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40세 미만의 남녀로서 선교의 소명이 투철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이면 됩니다. 선교지는 남미 수리남,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이곳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대상 지역), 태국, 필리핀 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PWM 선교회 서울사무실로 (총무:김병선 선교사).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42호

Tel: 565-3431~2, Fax: 564-8462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장기, 단기 사역자 모집**

선교현장을 개척하여 사역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아프리카 및 동북아시아에서 사역할 신실하고 헌신된 선교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피아노, 바이올린 교사, 유치원 교사, 어학원 국어교사, 치과 기공사, 위생사, 행정관리자, 가전제품수리 기술자, 전동기 기술자.

자격: 소속교회 후원 또는 추천이 가능한 선교 헌신자로서 적절한 훈련을 필한 독신 또는 기혼자

기간: 장기 또는 단기사역 (최소 6개월)

자세한 문의는 두란노해외선교회로.

Tel: 749-5497, 797-3548, Fax: 749-5498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는 우편물 발송을 함께 도울 자원봉사자를 긴급히 찾습니다.

매달 약 80,000여 통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도울 봉사자와 운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별로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사무실로. Tel: 544-9544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간사 및 자원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중국어 주께로>에 함께 동역할 일꾼을 찾습니다. 타자, 교정, 번역, 발송 작업에 특히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중국선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Tel: 533-5497 (석은혜 간사)

중국 기독교 양회·전국 기독교 신학원 및 삼자교회 주소록

전국 성, 직할시, 자치구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협회(교무위원회)
(이하 양회(兩會)) 연락처

名 称	通 讯 处
中国基督教两会	上海市圆明园路 169 号三楼 邮政编码:200002 电话:3210806 传真:3232605 3213396
中国基督教两会 南京办事处	江苏南京市大铜银巷 13 号 邮政编码:210029 电话:410835 传真:741053
北京市基督教两会	北京市东单北大街 21 号 邮政编码:100005 电话:555086
上海市基督教两会	上海市西藏中路 328 号 邮政编码:200001 电话:3204515
天津市基督教两会	天津市和平区滨江道 201 号 394601 邮政编码:300022 电话:702441
河北省基督教两会	河北石家庄市石邑路 1 号 邮政编码:050051 电话:25402
山西省基督教两会	山西太原市桥头街 118 号 邮政编码:030001 电话:227557
内蒙古自治区基督教两会	内蒙古呼和浩特市新城南街 邮政编码:010010 电话:44429
辽宁省基督教两会	辽宁沈阳市沈河区北一经街 60 号 邮政编码:110014 电话:229367

名 称	通 讯 处
吉林省基督教两会	吉林长春市西五马路 37 号 邮政编码:130042 电话:37722
黑龙江省基督教两会	黑龙江哈尔滨市南岗区革新街 107 号 邮政编码:150001 电话:231117
陕西省基督教两会	陕西西安市南新街集贤巷甲字 1 号 邮政编码:710004 电话:715757
甘肃省基督教两会	甘肃兰州市张掖路 84 号 邮政编码:730030 电话:464621
山东省基督教两会	山东济南市经二路 67 号 邮政编码:250001 电话:623228 626227
江苏省基督教两会	江苏南京市大铜银巷 13 号 邮政编码:210029 电话:641548
浙江省基督教两会	浙江杭州市解放路 104 号 邮政编码:310009 电话:729040 761550
安徽省基督教两会	安徽合肥市宿州路 68 号 邮政编码:230001 电话:276725
江西省基督教两会	江西南昌市民德路 124 号 邮政编码:330008 电话:224657
福建省基督教两会	福建福州市仓山区乐群路 7 号 邮政编码:350001 电话:442635
河南省基督教两会	河南郑州市汉川街 23 号 邮政编码:450000 电话:664080

名 称	通 讯 处
湖北省基督教两会	湖北武汉市武昌区民主路 187 号 邮政编码:430061 电话:877807
湖南省基督教两会	湖南长沙市南阳街 114 号 邮政编码:410005 电话:429034
广东省基督教两会	广东广州市中山三路 17 号 邮政编码:510080 电话:7765758 7777411
广西壮族自治区基督教两会	广西南宁市七星路 90 号之一 邮政编码:530022
四川省基督教两会	四川成都市四圣祠北街 19 号 邮政编码:610017 电话:662768 667930
贵州省基督教两会	贵州贵阳市黔灵西路 68 号 邮政编码:550001 电话:623713
云南省基督教两会	云南昆明市武成路 218 号 邮政编码:650031 电话:57485
海南省基督教两会	海南海口市海府大道 46 号 504 信箱 邮政编码:570003 电话:25997

附:

名 称	通 讯 处
银川市基督教三自	宁夏银川市玉皇阁北街 20 号基督教两会 邮政编码:750004
西宁市基督教两会	青海西宁市南关街 83 号 邮政编码:810000
乌鲁木齐基督教两会	新疆乌鲁木齐市明德路 1 号 邮政编码:830002

전국기독교 신학원 연락처

名 称	通 讯 处
金陵协和神学院	江苏南京市大铜银巷 13 号 邮政编码:210029 电话:641439 644248
四川神学院	四川成都市四圣祠北街 19 号 邮政编码:610017 电话:667930
山东神学院	山东济南市经二路 67 号 邮政编码:250001 电话:626227 623228
陕西基督教圣经学校	陕西三原县油坊道 21 号 邮政编码:713800 电话:22577
华东神学院	上海市五原路 73 号 4333304(总) 邮政编码:200031 电话:4333251 4333224
浙江神学院	浙江杭州市解放路 104 号 邮政编码:310009 电话:729040
中南神学院	湖北武汉市武昌区民主路 187 号 邮政编码:430061 电话:876281
燕京神学院	北京市东单北大街 43 号 邮政编码:100005 电话:551090
广东协和神学院	广东广州市东山区寺贝通津 9 号 邮政编码:510080 电话:7776012
安徽神学院	安徽合肥市宿州路 68 号 邮政编码:230001 电话:276725
东北神学院	辽宁沈阳沈河区北一街街 60 号 邮政编码:110014 电话:229367
福建神学院	福建福州市仓山区乐群路 7 号 邮政编码:350007 电话:442635
云南基督教神学院	云南昆明市昆沙路 59 号 邮政编码:650101 电话:82779

각 성, 시 자치구 주요 교회의
주소와 예배시간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北京市		
崇文门堂	北京崇文门内后沟胡同 丁2号 邮编:100005 电话:5133549 542193	日 9:30
珠市口堂	北京前门大街 129 号 邮编:100050 电话:3016678	日 9:30
海淀堂	北京海淀镇池水湖 10 号 邮编:100080 电话:2551392	日 9:30
缸瓦市堂	北京西四南大街 57 号 邮编:100034 电话:6034027	日 9:30
宽街堂	北京地安门东大街 50 号 邮编:100010	日 9:30
天津市		
滨江道堂	天津滨江道 201 号 邮编:300022 电话:702441	日 9:00
仓门口堂	天津东门内大街 186 号 邮编:300090 电话:254669	日 9:30
塘沽堂	天津塘沽区广州路 邮编:300450	日 9:30
上海市		
沐恩堂	上海西藏中路 316 号 邮编:200001 电话:3225069	六 9:00 日 7:30 9:30 14:00 19:00
清心堂	上海大昌街 30 号 邮编:200011 电话:3770874	日 7:30 9:30 19:00
景灵堂	上海昆山路 135 号 邮编:200080 电话:3243021	日 7:00 9:30 19: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国际礼拜堂	上海衡山路 53 号 邮编:200031 电话:4376576	日 7:30 10:00
怀恩堂	上海陕西北路 365 号 邮编:200040 电话:2539394	六 9:00 日 9:00 19:00
闸北堂	上海宝通路 340 号 邮编:200071 电话:6629409	日 7:30 9:00
沪西礼拜堂	上海长宁路 1465 号 邮编:200051 电话:2597389	日 7:30 9:30 19:00
普安堂	上海中山北路 1907 号 邮编:200061 电话:2146562	日 7:30 9:30
沪东礼拜堂	上海宁国路 486 弄 51 号 邮编:200090 电话:5433326	六 7:00 日 7:00 9:30 19:00
诸圣堂	上海复兴中路 425 号 邮编:200025 电话:3260906	日 7:30 9:30
河北省		
石家庄市 基督教会	石市新华路 176 号 邮编:050051 电话:22318	日 9:30
邯郸市 基督教会	邯郸市陵西街 190 号 邮编:056002 电话:26176	日 9:30
邢台市 基督教会	邢台市花市街 32 号 邮编:054001 电话:223292	日 9:30
保定市 基督教会	保定市花园街 12 号 邮编:071000 电话:34732	日 9:30
秦皇岛市 基督教会	秦皇岛市民族路文革里 邮编:066000 电话:337980	日 9:30
唐山市 基督教会	唐山市路北小窑马路 邮编:063000 电话:24095	日 9:30
张家口市 基督教会	张家口市桥西区清真寺 巷 1 号 邮编:075000	日 9:3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山西省		
太原市 礼拜堂	太原市桥头街 98 号 邮编:030001 电话:227557	日 10:00 15:00
大同市 礼拜堂	大同市棋盘街 15 号 邮编:037000 电话:233766	日 9:00 14:00
临汾市 基督教会	临汾市北青狮子口 40 号 邮编:031000	日 10:00 15:30
朔州礼拜堂	朔州市朔城区大营街 16 号 邮编:038500	日 9:30 14:30
内蒙古自治区		
呼和浩特市 基督教会	呼和浩特市新城南街 邮编:010010	日 7:00 9:30
包头市 基督教会	内蒙包头市河东大圪料街 22 号 邮编:014040	日上午
集宁市 基督教会	集宁市建国三路 41 号 邮编:012000	日上午
辽宁省		
东关教会	沈阳市大东区东顺城街三自巷 8 号 邮编:110041	日 10:00
北市教会	沈阳市和平区皇市路 144 号 邮编:110001	日 18:30
西塔教会	沈阳市和平区市府大路 33-1 号 邮编:110002	日 10:00
北京街 礼拜堂	大连市西岗区长江路 605 号 邮编:116011	日 8:00 10:00 18:00
玉光街 礼拜堂	大连市中山区玉光街 2 号 邮编:116001	日 8:00 10:00 18:00
朝溪礼拜堂	大连市中山区友好路 邮编:116001	日 9: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吉林省		
长春市 教会	长春市西五马路 37 号 邮编:130042 电话:37722	日 9:00 冬季:10:30 8:00 夏季:10:00
黑龙江省		
南岗 礼拜堂	哈尔滨市南岗区东大直街 50 号 邮编:150001	日 7:00 13:00 18:00
道外 礼拜堂	哈尔滨市道外区北六道街 222 号 邮编:150120	日 7:00 13:00 18:00
齐齐哈尔市 基督教会	齐齐哈尔市龙沙区卜奎南大街路西城市房屋开发公司 2 楼(临时) 邮编:161000	六 9:00 日 8:00 10:30 13:30
佳木斯市 基督教会	佳木斯市友爱路 99 号 邮编:154002	日 9:00 13:30 17:30
大庆市 基督教会	大庆市龙凤区龙前二路 邮编:163711	日 8:00 10:00 18:00
鹤岗市 工农区 基督教会	鹤岗市工农区 邮编:154101	日 8:00 12:00
牡丹江市 基督教会	牡丹江市东四条路 邮编:167000	日 9:00
江苏省		
圣保罗堂	南京市太平南路 396 号 邮编:210002	日 9:00
莫愁路堂	南京市莫愁路 390 号 邮编:210004	日 9:00 六 9:00
使徒堂	苏州市养育巷 130 号 邮编:215002	日 9:00
官巷堂	苏州市官巷 20 号 邮编:215005	日 9: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无锡市教堂	无锡市中山路 98 号 邮编: 214000	日 9:00
常州市教堂	常州市县学街 17 号 邮编: 213003	日 9:00
镇江市教堂	镇江市大西路 343 号 邮编: 212001	日 9:00
南通市教堂	南通市段家坝 53 号 邮编: 226000	日 9:00
徐州市教堂	徐州市淮海西路 47 号 邮编: 221006	日 9:00
扬州市教堂	扬州市翠园路 2 号 邮编: 225000	日 9:00
浙江省		
恩澄堂	杭州市解放路 104 号 邮编: 310009 电话: 729040	日 6:30 8:30 19:00
鼓楼堂	杭州市布市巷 6 号 邮编: 310000 电话: 726413	日 8:30 19:00
嘉兴市基督教教会	嘉兴市姚庄路 10 号 邮编: 314000 电话: 86236	日 8:30 13:00
绍兴市基督教教会	绍兴市东街 553 号 邮编: 312000 电话: 35269	日 9:00 13:30 15:00
湖州市基督教教会	湖州市衣裳街 邮编: 313000	日 9:00 19:00
百年堂	宁波市大梁街 63 号 邮编: 315000 电话: 364860	日 8:30 14:00 19:00
圣教堂	宁波市东郊路 115 号 邮编: 315040	日 8:30 13:30
临海市基督教教堂	临海市西城下 10 号 邮编: 317000	日 9:00 13:30
衢州市福音堂	衢州市蛟池街 4 号 邮编: 324000	日 9: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城西堂	温州市城西街 73 号 邮编: 325000 电话: 222872	日 8:30 14:00 19:00
安徽省		
合肥市礼拜堂	合肥市宿州路 68 号 邮编: 230001 电话: 276725	日 8:30 14:00
芜湖市礼拜堂	芜湖市花津路 46 号 邮编: 241000 电话: 23283	日 8:30 14:00
蚌埠市礼拜堂	蚌埠市南山路 邮编: 233000	日 8:30 14:00
马鞍山市礼拜堂	马鞍山市采石九华街 12 号 邮编: 243041 电话: 22148	日 8:30 14:00
阜阳市礼拜堂	阜阳市解放路 14 号 邮编: 236002 电话: 5245	日 8:30 14:00
安庆市礼拜堂	安庆市健康路 15 号 邮编: 246003 电话: 512072	日 8:30 14:00
黄山市礼拜堂	黄山市屯溪区中马路 4 号 邮编: 245011	日 8:30 14:00
徐州市礼拜堂	徐州市公官巷 9 号 邮编: 239001 电话: 23534	日 8:30 14:00
福建省		
花巷堂	福州 817 北路花巷 3 号 邮编: 350001 电话: 522645	日 8:00
基督堂	福州台江区依霞桥 1 号 邮编: 350009	日 9:00
天安堂	福州仓山区天安里 10 号 邮编: 350007	日 9:00
铺前堂	福州 817 中路 772 号 邮编: 350004 电话: 559042	日 9:00
新街堂	厦门市台光街 29 号 邮编: 361033	日 9:3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三一堂	厦门鼓浪屿安海路 71 号 邮编:361002	日 9:00
竹树堂	厦门市开禾路 133 号 邮编:361001	日 9:00
南街堂	泉州市中山中路 374 号 邮编:362003	日 9:00
西街堂	泉州市西街 208 号 邮编:362003	日 9:00
梅峰堂	莆田市城关胜利路 181 号 邮编:351100	日 9:00
江西省		
南昌市 礼拜堂	南昌市民德路 124 号 邮编:330008	日 8:30 14:00 19:30
赣州市 耶稣堂	赣州市大公路 邮编:311000	日 9:00
九江市 礼拜堂	九江市督府巷 18 号 邮编:332000	日 9:00
庐山市 礼拜堂	庐山市河西路 438 号	日 9:30
吉安市 礼拜堂	吉安市下人民路 21 号 邮编:343000	日 9:00
景德镇市 福音堂	景德镇市中华南路 101 号 邮编:333000	日 8:30 14:00 19:30
山东省		
经四路 礼拜堂	济南市经四路 425 号 邮编:250001 电话:36327	日 9:30 19:00
国际礼拜堂	青岛市江苏路 15 号 邮编:266003 电话:285970	日 9:00 六 9:00
济宁市 礼拜堂	济宁市黄家街 7 号 邮编:272100 电话 6420	日 9:3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枣庄市 礼拜堂	枣庄市峄城区教会 邮编:277300	日 9:00
淄博市 礼拜堂	淄博市周村区丝市街 223 号 邮编:255300 电话:610777	日 9:00
潍坊市 礼拜堂	潍坊市向阳路 47 号 邮编:261011 电话:225413	日 9:00
金雀山 礼拜堂	临沂市金雀山教会 邮编:276004	日 9:00
烟台市 礼拜堂	烟台市胜利路 134 号 邮编:264001	日 9:00
泰安市 基督教堂	泰安市青年路教会 邮编:271000 电话:225828	日 9:00
后宰门 教会	济南市后宰门 邮编:250011 电话:627094	日 8:00 10:00
河南省		
人民路 礼拜堂	郑州市人民路 邮编 450000	日 8:00 14:30
汉川街 礼拜堂	郑州市汉川街 23 号 邮编:450000 电话:664080	日 8:00 14:30
自由路 礼拜堂	开封市自由路东段 107 号 邮编:475000	日 8:30 19:30
西门里 礼拜堂	开封市西门里 邮编:475001	日 9: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南关 礼拜堂	开封市南关医院前街 邮编:475003	日 8:30 14:30 19:30
东关 礼拜堂	洛阳市瀍河区东兴隆街 73号 邮编:471002	日 8:30 14:30
东大街 礼拜堂	洛阳市老城区明新街 49 号 邮编:471009 电话:351828	日 8:30 14:30
许昌 基督教堂	许昌市魏都区五一路北 段 80号 邮编:461000	日 8:00 14:30
湖北省		
武汉市 荣光堂	汉口市黄石路 26号 邮编:430021 电话:325484	日 9:30
武汉市 教世堂	汉口市汉正街 475号 邮编:430033 电话:668195	日 9:30
武昌堂	武汉市武昌区民主路 187 号 邮编:430061 电话:877807	日 9:30
宜昌堂	宜昌市沿江大道 101号 邮编:443000	日 10:00
沙市堂	沙市市中山路 44号 邮编:434000	日 9:30
襄樊堂	襄樊市樊西区朝阳路 35 号 邮编:441000	日 9:30
老渝口堂	老渝口市和平路 93号 邮编:441800	日 10:00
荆州堂	江陵县荆州城关托塔坊 9 号 邮编:434100	日 10:30
湖南省		
长沙市北堂	长沙市外湘春街 50号 邮编:410000 电话:442166	日 9:3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长沙市南堂	长沙市社坛街 邮编:410000 电话:551910	日 9:30
湘潭市教会	湘潭市城正街 327号 邮编:411100 电话:22876	日 9:30
株洲市教会	株洲市解放路 115号 邮编:412000	日 9:30
衡阳市教会	衡阳市中山南路 20号 邮编:421000 电话:26150	日 9:30
常德市 真光堂	常德市卫门口 邮编:415000 电话:25063	日 9:30
益阳市教会	益阳市南门口 邮编:413000 电话:22843	日 10:00
岳阳市教会	岳阳市洞庭南路 89号 邮编:414000 电话:25297	日 10:00
广东省		
东山堂	广州市东山寺贝通津 9 号 邮编:510000 电话:7776305	日 12:00
锡安堂	广州市人民中路 392号 邮编:510000 电话:8889054	日 12:00 19:00
救主堂	广州市万福路 184号 邮编:510000 电话:3335778	日 9:00 19:30
深圳堂	深圳市和平中路 22号 邮编:518001 电话:227377	日 12:00
贵恩堂	佛山市莲花路 71号 邮编:528000 电话:224428	日 12:00
太平堂	中山市石岐太平路高家 基 6号 邮编:528400 电话:823875	日 12: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惠州堂	惠州市中山西路6号之一 邮编:516001 电话:235650	日 12:00
台山堂	台山县台城台西路186号 邮编:529200 电话:25709	日 12:00
东门礼拜堂	梅州市东门 邮编:514000 电话:223899	日 9:30
市西堂	汕头市民权路146号 邮编:515000 电话:273579	日 9:30 19:30
广西省		
南宁市基督教教会	南宁市中山路65号 邮编:530012	六 8:30 日 8:30
桂林市基督教教会	桂林市中山中路185号 邮编:541001 电话:222604	六 19:30 日 12:30
北海市基督教教会	北海市珠海西路115号 邮编:536000 电话:24799	日 9:00
梧州市基督教教会	梧州市大中路5号 邮编:543000	日 12:30
柳州市基督教教会	柳州市北鹤路65号 邮编:545002	日 12:00
海南省		
海口堂	海口市义兴街247号 邮编:570000 电话:225997	日 10:00
三亚堂	三亚市红沙镇 邮编:572019	日 11:00
加积堂	琼海县加积镇北门外 邮编:571400	日 12:30
那大堂	儋县那大镇东风街43号 邮编:571600	日 10: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四川省		
上翔街礼拜堂	成都市上翔街 邮编:610015 电话:27560	日 10:00
四圣祠礼拜堂	成都市四圣祠北街19号 邮编:610017 电话:667930	日 10:00
乐山市礼拜堂	乐山市兴发街11号 邮编:614000 电话:32141	日 10:00
社交会堂	重庆市磁器街96号 邮编:630010 电话:45024	日 9:00 冬天 7:00 } 9:00 } 夏天
江北福音堂	重庆市江北区正街164号 邮编:630024	日 9:00
北碚礼拜堂	重庆市北碚区人民路鱼塘湾 邮编:630700	日 10:00
沙坪坝礼拜堂	重庆市沙坪坝区天星桥正街93-2号 邮编:630030	日 9:00
南泉礼拜堂	重庆市南温泉公园路22-26号 邮编:630056	日 9:00
解放西路礼拜堂	重庆市解放西路47号 邮编:630012	日 9:00
自贡市礼拜堂	自贡市自井区高坪地84号 邮编:643000 电话:226646	日 10:00
万县市基督教堂	万县市三马路273号 邮编:634000	日 10:00
绵阳市礼拜堂	绵阳市解放46号 邮编:621000	日 10:0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贵州省		
贵阳市 基督教会	贵阳市黔灵西路68号 邮编:555001	日 10:00 五 19:00
遵义市 圣马可堂	遵义市遵义路12号 邮编:563000	日 9:00
安顺市 基督教堂	安顺市文化路 邮编:561000	日 10:00
云南省		
三一圣堂	昆明市武成路218号 邮编:650031 电话:57485	日 9:00 14:00
昆明市 福音堂	昆明市长春路100号 邮编:650021	六 14:00 日 9:00 14:00
大理市 基督教堂	大理市(旧城)复兴路576号 邮编:671000	日 10:00
陕西省		
南新街堂	西安市南新街集贤巷甲1号 邮编:710004 电话:715757	日 8:00 10:00 19:30
北大街 礼拜堂	西安市北大街99号 邮编:710003	日 7:00 9:00
东新巷 礼拜堂	西安市东关东新巷55号 邮编:710048 电话:719553	日 8:30 14:30
谷家巷 礼拜堂	咸阳市谷家巷22号 邮编:712000	日 11:00
青年路 礼拜堂	铜川市青年路基督教会 邮编:727000	日 10:00 20:00
友爱路 礼拜堂	汉中市友爱路2号 邮编:723000	日 9:30

各地教会	通讯处	礼拜时间
胜利路 礼拜堂	宝鸡市胜利路22号 邮编:721000 电话:214413	日 8:30
油房道 礼拜堂	三原县东关油房道21号 邮编:713800 电话:22577	日 11:30
甘肃省		
兰州市 礼拜堂	兰州市张掖路84号 邮编:730030 电话:464621	日 10:00
天水市 礼拜堂	天水市秦城区韩家巷3号 邮编:741000	日 10:00
平凉市 礼拜堂	平凉市银行巷基督教会 邮编:744000	日 10:00

注:银川市、西宁市、乌鲁木齐市教堂地址请参阅“全国及各省市基督教两会通讯处”。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선교의 여러 사역 중 특히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사역:

중국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지망자들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을 통해 중국어와 현지적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사역:

정기적으로 **중국선교세미나**를 개최하며, 국내외 선교정보의 수립 및 자료화, 중국교회 동향 분석, 중국소수민족 및 각 성별 연구, 최근중국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중국선교 전략 연구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중국선교의 필요성과 전략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교책자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신앙 및 신학서적을 중역(中譯)하는 일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중국현지 사역:

국내에서 방한 중국교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체자화 양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사랑의 집”**사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승선전도사역:

한국에 들어온 중국배에 매주 올라가 중국인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고문 방지일 목사 • 김지일 장로/대표 박진국 장로/총무 이요한/행정실 실장 장희락
행정간사 최동신/재정간사 강영욱/기획협력간사 문민/홍보협력간사 김정하/해외협력간사 루디아/
전산협력간사 김형동/교육부 운영위원 김성곤/협력간사 안거안/연구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권수영
협력간사 배다니엘/출판부 운영위원 석은혜/간사 차이나/협력간사 한영혜 • 전하리/편집디자인 정광숙
훈련원 운영위원 장희락/간사 김바울/전임강사 방주 • 우신화/선교부 운영위원 정선영/간사 기드온 • 주미애
임화평 • 서정열/인천지부 운영위원 우신화/협력간사 김성수/사랑의집 운영위원 박애린/간사 이순덕 •
서세은/파송연구원 주안도/파견간사 김광석 • 윤승일/파송선교사 박애린(국내) • 예보람(해외) •
정선영(본부) • 강성광(홍콩)/협력선교사 주성지 • 고대위

중국선교세미나

중국선교의 불모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 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소수민족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지금도 한국교회에게 손짓하며 복음을 전해줄 호소하고 있는 오늘의 “마게도니아인”입니다.

한편 최근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을 전하라고

한국교회에게 주신 귀중한 중국선교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얼마만큼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신속하게 순종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종한다면 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이번 세미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고 고민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8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 1994년 8월 22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 중국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강사 : 한정국 선교사 (한국 OMF 대표)

장소 :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 10월 중국선교세미나

일시 : 1994년 10월 24일 (월) 오후 7시-9시

주제 : 방한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국내가 곧 중국선교 현장

강사 : 전호진 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장소 :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주최 : 중국어문선교회

연락 및 문의 : 중국어문선교회

(Tel : 594-8038, 533-5497)



선 교 훈 련 생 모 집

금번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s Association)에서는 소속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세계선교훈련원(Korean World Missions Training Institute)을 개설합니다. 선교사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훈 련 일 정

제1기 - 1학기 1994년 9월 26일 - 10월 22일(4주간)

2학기 1994년 11월 7일 - 12월 3일(4주간)

제2기 - 1학기 1995년 3월 6일 - 4월 1일(4주간)

2학기 1995년 4월 17일 - 5월 13일(4주간)

2. 훈 련 장 소 : 소망수양관(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산 54 소재)

3. 모 집 인 원 : 매기 60명씩

4. 참 가 자 격

(1)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선교훈련에 동참하는 선교단체에서 위탁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허락한다.

* 9항의 참여단체이름을 참고하세요.

(2) 선교의 소명이 있는 개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 담임목사, 교단선교부 혹은 선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5. 지 원 절 차

(1) 지원서 교부처 :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실

위 치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 310호

전 화 : (02)363-7091, 566-3506(원감) 팩스 : (02)393-8462

(2) 접 수 마 감 : 1994년 9월 13일

(3) 면 접 일 시 : 제1기 지원자 면접 - 1994년 9월 15일 오전 10시

(4) 허 가 통 지 : 1994년 9월 16일에 개별통지

6. 등 록 비 용 : 1인당 학기당 50만원/부부가 함께 등록시 80만원

7. 교 수 / 강 사 : 강승삼, 김명혁, 김상복, 김병선, 김성태, 나일선, 노봉린, 박기호, 신흥식
안영권, 윤수길, 이동주, 이은무, 이태웅, 전호진, 정명현, 한도수, 한정국 등

8. 특 전 : 본 훈련원의 강의는 협약에 의하여 학점을 아세아연합신학원(ACTS)에 등록하고 학위취득을 원하는 경우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9. 훈 련 참 여 교 단 및 단 체

참여교단 : 기하성, 기침, 예장개혁, 예장개혁(합신), 예장대신, 예장합동정통

선교단체 : 만민선교회, 바울선교회, 세계제자선교회, 소련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

한국선교사센터, 한국외향선교회, 한나선교회, 해외협력선교회

세 계 선 교 훈 련 원

이 사 장 : 길자연

원 장 : 노봉린

원 감 : 김병선

음이온 발생

공기 청정기

清風 CHONGPUNG IONIZER

- 무소음
- 무필터

살아있는 공기를 드립니다.

세계 최초
국제 발명품전 2연패

- 93.11 독일 국제발명품전 환경부문 금상수상
- 94. 4 스위스 국제발명품전 환경부문 금상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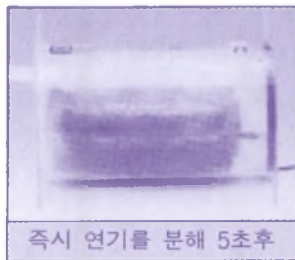
CP-3000 (가정용) 가격 : 248,000 청풍 II (차량용) 가격 : 165,000

CP-5000 가격 : 350,000

CP-1000 (가정용) 가격 : 85,000 CP-500 (가정용) 가격 : 58,000 청풍 I (차량용) 가격 : 98,000

청풍 III (차량용) 가격 : 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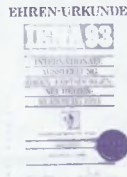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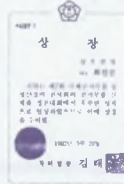
담배연기제거실험



환경기기 전문제조업체
三祐電子

- 무소음, 무필터, 무팬
- 전력소비는 극미
- 자동센서에 의한 공기오염 감지(CP-3000)
- 수명은 반영구적
- 음이온 발생량 조절기능

'94.4.18 스위스 제네바 국제 발명품대회 (환경부문) 금상획득



냄새 · 연기 · 살균 · 삼림욕효과

냄새

담배 · 가스 · 화장실등의 나쁜냄새를 음이온 효과로 화학적 산화분해 · 냄새를 제거하여 주며 쾌적한 공기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각종 냄새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연기

몸에 해로운 담배연기는 비흡연자에 좋지않습니다. 그런 담배연기도 음이온의 강력한 냄새 제거효과로 화학적으로 급속히 분해하여 제거합니다. 흡연자가 많은 장소에서의 사용을 특히 권장합니다.

살균

음이온은 공기중에 보이지 않는세균이나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여 배양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하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에 최적입니다.

■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

음이온이란 숲속이나 폭포, 온천 등에서 인체에 상쾌하게 느껴지는 (-)전하를 띤 공기의 원자요소로서, 피를 맑게 하고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식욕증진의 효과가 있어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청풍음이온발생기는 강력한 음이온 효과와 오존의 살균효과로 우리주변에 나타나는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을 원천분해 신선한 공기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 청풍의 특징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등 제거
- 수험생의 상쾌한 두뇌활동촉진 - 학습효과 증진
- 스트레스, 긴장 및 피로감 완화
- 알레르기, 천식, 기관지염등 원인물질 제거
- 혈액정화 및 자율신경의 조정작용
- 노약자의 신경통 및 신경질환 등에 효과
- 공해, 분진, 매연, 기타 악취제거
- 컴퓨터 작동 등에서 오는 두통 (VDT증후군) 제거
- 냉·난방시 오는 두통 제거

청풍 이런곳에 사용하십시오

가정의 거실·화장실 주방



사무실·OA기기가 있는 장소



가족방문



병원·의원



자동차



레스토랑



스낵바



노래방



회의실



흡연실



판매원 **벤 일 유 통**

TEL (0346) 5724-973

호출 012-295-6591

"전국 주문즉시 배달"

중국을 주께로

1994년 7/8호
통권 29호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발행·편집인/이 동 화

편집장/석 은 혜

편집기자/한 영 혜

차 이 나

권 수 영

편집디자인/정 광 숙

광고/김 정 하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바 - 2078

발행일자/1994년 8월 10일

인쇄인/김수민(신성기획사)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 594-8038, 533-5497

팩스 / 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 873-2570

값/2,500원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편집후기

어느 여름보다도 길고 무덥고 지리한 날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정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처럼 귀한 물을 생각해 봅니다. 어느때는 생각지도 못했을 물의 귀중한. 언제나 흘러 넘치고,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물,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도 그런 것이나 아닌지. 그분이 늘 주시는 말씀들, 사랑의 마음, 기도하며 사는 활력, 봉사할 수 있는 손과 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찬양 등등.

늘 낭비하고 살다가 정작 주님께서 가뭄을 주시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가뭄이 들기 전에 열심히 그 은사들을 활용합니다. 이럴 때만이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테지요.

이번호에는 "중국의 여성"을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부족한 자료로 애를 먹기도 했지만 아시아 여성문화 신학자료센터의 계간지 『in God's Image』에 실린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쪼록 독자들이 중국여성 선교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기구독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 보시려면,

▷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중국어문선교회(TEL. 594-8038, 533-5497)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대금은 1부당 2,500원이며 (1년 구독은 15,000), 보낸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문선교회의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총판/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내/TEL.722-9577, FAX. 722-9578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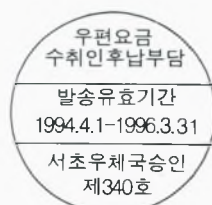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137-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아래의 정기구독 신청엽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으신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거나 직접 전화(594-8038, 533-5497, 담당자:최동신)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중국을 주제로」 독자카드(1994년 9,10)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한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신청서 (전화신청 및 문의: 최동신 594-8038)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15,000원 (6권) 2년 30,000원 (12권) 3년 45,000원 (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분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전화

변경주소(우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성광선교센터



• **선교정보 자료실**
선교지역 및 종족, 선교단체, 선교활동 및 전략 등에 관한 문서자료와 비디오 자료 구비

• **레스토랑**
저렴한 가격의 정성이 담긴 음식



• **도서관**
선교 및 신앙 관련 도서

• **한식당**
300석의 한식 온돌 식당



• **외국어훈련원 (F.L.T.C)**
현대식 LAB 시설완비

• **게스트 하우스 (특실)**
TV, 냉장고, 욕실, 주방



• **세미나실**
30~200석까지 다양

• **게스트 하우스**
냉난방 완비된 온돌 및 침대방



• **유치원**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단, 국교부터 고교생은 50%)

• **의료봉사**
선교사 가족 무료진료 (내, 외, 치과) 의료봉사진 : 필립 선교회, 길선교회)



♣ **교통편**

주안역에서 5번 41번
마을버스 1번
인하대 후문 한 정거장
전에서 하차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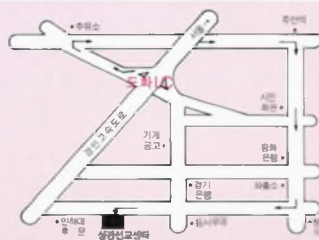
성광선교센터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4동 89번지

양 치 호 목사

TEL : (032) 872-2336~8

FAX : (032) 862-0642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스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흥겨우



1. 품질보증

- 세균 적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하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여립대학,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b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 외1,500여개의 정수장과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음료업체
- 국내는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우정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의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영구적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수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시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음료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두리 양식장용
 - 선박용 • 주류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음.
- 타회사 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 열성과 쾌기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를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보시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점 개설문의:
(02)582-4505
구입상담:
592-0132(방배대리점)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 코카콜라 ● 페이퍼시콜라 ● 맥도날드사 ● 국제적십자사 ● 롯데호텔 ● 스위스항공 ● 하이네켄

KATADYN
(주) 카타딘코리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6-9
이리빌딩 (가계회사용)
Tel: (02)582-4505 (H)